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조성방안 연구

2006.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조성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연구진>

책임연구원: 송희영 (서울예술대학 교수)

공동연구원: 김현주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사업팀장)

정소연 (Visiting Scholar, Duke University in N. Carolina)

박선미 (컬처비즈 대표)

연구보조원: 송민희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3. 연구 의의 및 기대 효과	3
 제2장 국내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실태조사	7
1.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조성 목적 및 필요성	7
2. 국내 음악 전용 공간 및 시설 운영 실태조사	11
3. 국내 음악 전용공간 수요 실태조사	13
 제3장 국내 타 예술 장르의 복합문화센터 운영현황	21
1. 미술계	21
가. 미술 창작 스튜디오	21
나. 미술전용 복합공간 - 인사미술공간	23
2. 무용계	25
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25
나. 무용자료관 - 연낙재	27
3. 연극계	27
가. 극장 지원	27
나. 예술가 지원	28
다. 연극인 복지재단	29
4. 기타	30
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연습실	30
나. 뮤지컬	32
다. 아르코 정보 예술관	35
 제4장 해외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운영현황	37
1. 해외 예술 지원정책의 현황	37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	8
나. 미국	39
다. 아시아	40
2. 해외 음악 관련 기관의 다양한 기능	48
가. 음악 관련 단체의 유형	48
나. 공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50
다. 음악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51
라. 복합음악공간	53
마. 예술가의 편의를 위한 단체	53
3. 해외 사례 연구	58
가. 시카고 문화센터 (Chicago Cultural Center, 미국)	58
나. 에스플라나드 (Esplanade-Theatres on the Bay, 싱가포르)	61
다. 텔러스 센터 (The TELLUS Centre, 캐나다)	66
라. 이르캄 (IRCAM, 프랑스)	67
마. 시테 드 라 뮤지크 (Cité de la Musique, 프랑스)	69
바. 미국 작곡가 포럼 (Meet the Composer, 미국)	77
사. 맥도웰 콜로니 (MacDowell Colony, 미국)	78
아. 베를린 예술가 창작공간 (DAAD, 독일)	78
자. 예술주택사업 및 예술벨트 조성사업 (Arts Housing Scheme & Arts Belt, 싱가포르)	80
차. 뉴올리언즈 엔터지 비즈니스 센터 (The Entergy Arts Business Center, 미 국)	83

제5장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조성방안 87

1. 국내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정의 및 기능	87
가.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정의	87
나.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기능	88
다.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목표	92
2. 국내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설립 및 구성	98
가. 사업구상	98

나. 사업계획 순서	96
다.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SWOT 분석	97
라. 사업기구 구성	97
마. 센터 공간 구성	98
3.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건립방안	102
가. 규모	102
나. 입지	105
다. 채원조성	107
라. 조직 구성안	109
4. 중장기 운영방안	110
가. 초기	110
나. 중기	110
다. 장기	110
5. 운영의 주체	111
6. 수혜자 선발 방법	112
가. 선발 방법 - 해외 사례	112
나. 국내 센터이용 수혜자 선발 방법	113
다. 기타	113

제6장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조성 파급효과 115

1. 기본 개념	115
가. 음악가, 단체 창작 지원	115
나. 음악 상품의 생산	115
다. 문화 관광 도시	115
라. 새로운 경제 상권 형성	115
2. 국내 음악계 관련 및 문화예술분야	116
가. 음악창작활동의 활성화	116
나. 음악상품개발과 유통의 활성화	116
다. 음악지원 시스템 구축	117
라. 타 예술장르와 연계 발전	117

3. 도시개발 측면	117
가. 도시마케팅	117
나. 상권 형성	117
4. 본 연구의 한계점	118
자문위원 명단	119
참고문헌 및 자료	121
인터뷰 명단 및 설문 협조 단체	124
Abstract	127
부록 1.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조성 방안 연구관련 설문지	131
부록 2. 싱가포르 예술주택사업 거주 신청서	135
부록 3.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청서	139

표 차례

<표 1> 전국의 음악대학	7
<표 2> 전국 음악대학 현황	8
<표 3> 우리나라 음악/일반대학생들의 졸업 후 계획	8
<표 4> 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9
<표 5> 공연예술인의 수	10
<표 6> 공연예술단체 수	10
<표 7> 전국의 공연시설 및 공연장 수	11
<표 8> 서울의 분야별/요소별 문화시설 현황	12
<표 9> 전국의 공연단체 연습실 보유 현황	13
<표 10> 음악인들의 창작공간 실태조사	15
<표 11> 음악창작공간이 있을 경우 이용하는 장소	15
<표 12> 창작공간의 주요 이용용도	16
<표 13> 전문음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16
<표 14>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	22
<표 15> 인사미술공간의 사업 현황	24
<표 16> 대학로 연습실 대관비용	31
<표 17> 대학로 연습실 대관률과 재대관률	32
<표 18> 1990년대 일본 문화청 예산 내역	44
<표 19> 2004년도 일본 문화청 예산 내역	44
<표 20> 해외 음악관련 단체의 유형과 단체명	49
<표 21>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중장기 운영 방안	111
<표 22>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주체 4안	112

그 립 차 례

<그림 1> 맥도웰 콜로니의 개인 연습 공간	98
<그림 2> 이르캄의 스튜디오와 창작공간	99
<그림 3> 미국의 유명 작곡가 아론 코플랜드의 작업 사진	100
<그림 4> 시테 드 라 뮤지크의 박물관 관람 모습	101
<그림 5>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규모와 형태 제1안	103
<그림 6>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규모와 형태 제2안	103
<그림 7> 대형 복합공간인 프랑스 이르캄의 조감도	104
<그림 8> 음악 복합공간인 시테 드 라 뮤지크의 전경	104
<그림 9> 예술의전당 전경	105
<그림 10> 혜화동 대학로	106
<그림 11> 산 속에 위치한 맥도웰 콜로니의 개인 스튜디오 전경	106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문화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에 들어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로 문화예술의 산업화 경향을 들 수 있다. 문화산업 진흥이 국가 경쟁력을 가름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음악, 무용, 연극과 같은 순수 공연예술 활동도 뮤지컬, 영화,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여러 다른 예술장르와 함께 문화산업 범주 안에 유입되어 문화상품으로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규모도 날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순수 기초예술의 바탕 없이 상업예술이 탄생할 수 없으며, 특히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순수문화예술은 국가정책으로부터 지원받고 보호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예술발전은 기본적으로 예술창조역량을 지닌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에 따라 좌우된다.¹⁾ 공연예술이 무대에 올려져 상품화되기 이전 단계인 창작과 연습과정에 음악가들은 실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는 있으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미미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음악분야 혹은 음악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자체가 전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난 1973년 한국문예진흥원 설립 이래 우리 정부의 순수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원정책이 꾸준히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35년간의 공공예술지원 정책, 특별히 공연예술분야에 대 지원정책은 ‘소액 다건식 정책’으로, 예술현장의 자생력을 높이기보다 의존을 심화시키고 현장의 사업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 일면이 있다.²⁾ 즉,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중심이 된 지난 30여년 간 국가의 음악예술분야 지원 정책은 음악인들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보다는, 일시적이며 가시적인 효용가치가 높은 비연속적 형태의 단발성 공연지원금 지급방식에 치중한 바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 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총 1천51건 지

1) 위와 같은 책

2) 문화관광부(2004),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예술의 힘, 미래를 창조합니다.』

원건수 중에서 29.8%에 해당하는 3,530건이 지원을 받았으며 건당 942만원씩, 총 99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배분되었다.³⁾ 그러나 공연제작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과정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배제된 채 이와 같은 일회성 단순 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금 배급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이다.

이제는 이러한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개별적이며 일시적인 공연행사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음악인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유형적 시설이나 무형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지원 정책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예를 들어 음악인들의 창작, 연습, 발표회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음악 전용 공간을 조성하여, 같은 장소 안에서, 혹은 그 전용 공간을 주요 축으로 하는 시스템 안에서 음악인들 간의 인적 교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학술자료 및 악보집 열람, 인명 및 예술단체 데이터 활용, 국내외 음악 산업계 동향 및 해외 진출 정보 제공 등 음악창작 기반 활동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과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특별히 순수 음악분야(양악인 클래식음악에 한함)에 대한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음악분야 기초예술의 창작 및 보존, 유통 환경을 점검하는 한편 음악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인 음악예술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방안 모색에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음악 전용 복합 문화공간의 잠재적 기능과 운영 형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하여 국내에서의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존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두루 점검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개념정리에서 시작하여 설립의 타당성과 조성방안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음악 전용 공간 및 유사한 시설 운영 실

3) 위와 같은 책

태를 파악하는 한편 음악인들의 창작과 연주 활동 현실에서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사안들과 창작 공간에 대한 음악인들의 수요 조사를 하고자 한다. 조사를 위한 방법으로는 국내 음악가와 연주단체를 대상으로 개별 설문과 함께 음악계의 여러 분야별 전문가들을 상대로 1:1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두 번째로, 음악 전용 복합센터 조성과 관련 우리나라의 전반적 문화 지원 환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연극계, 무용계, 미술계 등 타 예술장르의 전용 공간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기존의 데이터나 서면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당 기관을 직접 탐방하거나 관계자와의 1:1 심층 면담을 통해 장르별 전용 공간 활용 용도와 효과, 창작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내적 인프라를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이밖에 해외의 모범적인 외국의 음악 전용 복합 공간 운영 사례를 조사 연구하여 국내 음악 전용 복합문화공간 설립 방향 설정에 참고 자료가 되게 하였다. 이미 해외의 경우 음악전용 공간을 조성하여 음악인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돕는 한편, 신인 발굴을 비롯한 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 및 연주를 양성하여 궁극적으로 나라 전체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는 사례는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여러 선진국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입증된 바 있다.⁴⁾ 즉, 음악 분야에 집중 특화된 음악 전용센터를 마련하여 전문 음악인들의 예술창작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국민들의 예술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자원 보존 및 국가의 문화예술 산업 진흥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에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서에서는 이러한 해외의 모범 사례를 연구 분석함과 아울러, 음악 전용 복합문화공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에 있는 음악관련 창작 공간 운영 환경과 음악인들의 창작, 연주 활동 실태를 연구하여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음악 전용 공간설립 조성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운영방법 및 세부 사업 내용, 장기 발전계획 등을 두루 탐색할 계획이다.

3. 연구의의 및 기대효과

클래식 음악인들을 위한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조성 계획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새롭고 낯선’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같은 문

4) 본문의 <제4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해외 사례 연구가 소개될 예정이다.

화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 무용, 연극 등 타 장르 예술계는 음악계보다 앞서 창작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미술계의 경우 일찍부터 미술창작 공간 개념을 마련하고, 창작 스튜디오와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작가들의 작품 활동 지원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창작공간의 설립 주체도 국공립기관과 민간기업, 개인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개인 작업실 지원 차원을 벗어나 지방의 한 도시에 창작촌을 조성하여 작가들이 집단으로 입주하여 작업과 생활을 함께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무용계의 경우는 지난 2006년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위원회가 발족되어 선포식을 갖고 현재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⁵⁾ 이는 기능상 연습실 제공이나 공연장 지원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무용인들의 권리와 복지, 매니지먼트 서비스, 커리어 컨설팅 등 말 그대로 지원센터 (Service-organization)의 성격에 가깝다고 보여 진다. 아직 활동 준비단계에 있어 앞으로의 사업진행 및 활동 여부를 지켜보아야 하지만 음악계를 포함한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음은 분명 하다.⁶⁾

음악 창작 활동은 미술, 무용, 연극 등 타 장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과 환경을 필요로 하기에 상대적인 비교가 합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서양 음악사 100년, 전국 음악대학 250여 개, 음악협회 등록 전문 음악인 1만여 명, 전국 공연예술단체의 37%에 달하는 음악단체를 비롯하여, 세계 음악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뛰어난 연주가 배출이라는 가시적인 성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 무형적인 창작 인프라 시설이 선진 외국의 경우는 고사하고 국내의 타 장르 예술분야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고 미비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계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주된 요인들은 무엇이며, 창작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널리 환기시키고 문제점들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가치와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음악 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연구는 첫째, 앞서 도입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공연장 건립과 같은 하드웨어 개발에만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문화예술정책의 보완책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콘텐츠 개발 및 공급 요구에 맞서, 음악 부

5) 조선일보 2006년 10월 9일자 기사 www.chosun.com

6) 타 장르 예술계의 작업 공간 및 예술가 창작 활동 지원 내용은 <제3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 질 것이다.

문에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적합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둘째 한시적인 성과달성에 급급하여 단발적인 사업비 중심으로 일관되었던 정부의 음악 지원 정책 방향을 창작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되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는,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순수예술의 보호 육성에 대한 가치관을 사회적으로 집중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의 문화상품’ 개발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나라의 문화적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상징되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산업은 클래식 음악과 같은 순수 기초예술의 성장과 뒷받침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클래식 음악은 디지털 기술이 우선시되는 현대사회에서 대중음악과 영상매체에 밀려 상대적으로 대중적 관심권 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순수기초예술의 중요한 한 분야를 차지하는 클래식 음악은 경우에 따라, 오스트리아 비인의 작은 마을 잘츠부르크에서 열리는 모차르트 뮤직페스티벌에서 보듯이 전 세계의 음악 시장을 주도하는 문화산업의 핵과 같은 역할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 밖에도 본문의 해외사례 연구 부분에서 자세히 소개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인 ‘시테 드 라 뮤지크 (Cité de la Musique)’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음악인들을 위한 창작 지원센터로서 역할은 물론이려니와 파리라는 유서 깊은 세계적인 문화 도시를 대변하는 랜드마크이자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서 도시 발전에 기여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중문화에서 발화된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문화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사회가 우리 음악계가 축적해온 숨어 있는 인적, 물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도출하여 발전시켜 클래식 음악을 통한 제 3의 한류, 나아가 한국 문화의 르네상스를 기대하는 것에 본 연구의 가치와 의의를 두고자 한다.

제2장 국내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실태조사

1.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조성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 서양음악이 들어온 것은 1880년대 초이며 올해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게 되었다. 국내 최초의 음악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로 1925년에 음악과가 설립되었고 1947년 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과, 작곡과로 분리되었다.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250여 개 이상의 음악대학이 설립되었다. <표 1> 참조

<표 1> 전국의 음악대학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학 수	64	23	9	16	12	2	38	9	8	18	15	11	14	10	4

자료 :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2006), <http://std.kedi.re.kr/>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6년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음악관련 학과는 400개가 넘으며 한해 졸업자만 해도 17,000명이 넘는다. 또한 <표 3>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졸업 후 계획한 진로로도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유학을 원하는 학생 수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특히 유학의 경우는 청년전체의 7.3%만이 희망하는 것에 비해 47.3%라는 7배 정도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어려서부터 음악 전문교육을 받아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본인의 진로를 정해놓고 준비를 했고 대학교 입학원서를 쓰면서 전공을 정하는 타 전공의 학생들보다 전공학문에 대한 애착도와 집중도가 더 높아서 나타나는 결과라 유추된다. 위의 자료를 봤을 때, 유학을 통해 상위 전문 음악교육기관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음악 대졸자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유학까지 다녀온 전문 음악인들이 전공을 살려 지속적으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극히 적다. 대부분의 음악전공자는 음악창작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습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연주나 창작활동만으로는 고정된 수입을 낼 수 없어 힘겨워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표 4> 참조

이처럼 고등음악교육을 받은 음악가들이 음악 콘텐츠의 제공자인 음악가가 되

기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임에 틀림이 없다. 음악가들이 지속적인 음악창작활동을 하고 공공음악으로 재탄생시켜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음악 산업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표 2> 전국 음악대학 현황

구 분	학과 수	재적학생 수	졸 업 상 황	
			졸 업 자	취 업 자
음악	223	32,874	5,763	3,474
음악학	61	11,701	1,867	1,148
국악	19	2,470	469	242
기악	59	8,486	1,716	1,073
성악	25	3,335	644	368
작곡	23	2,257	403	235
기타음악	36	4,625	664	408

자료 :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2006), 『교육통계연보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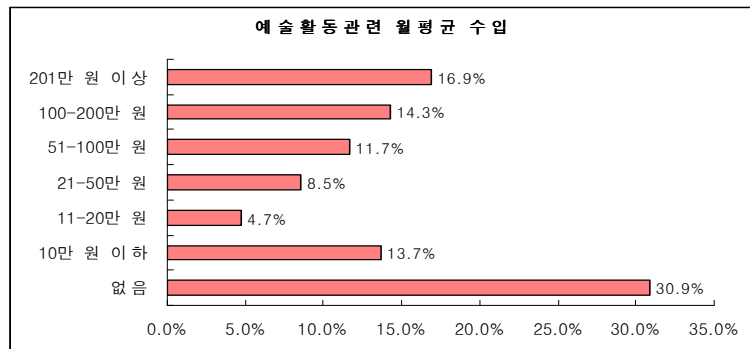
<표 3> 우리나라 음악/일반대학생들의 졸업 후 계획

	음악대학(명(%))	청년전체(명(%))
상급학교진학	202(23.9)	1,308(70.7)
유학	400(47.3)	135(7.3)
편입학	20(2.4)	61(3.3)
취업	93(11.0)	144(7.8)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준비	49(5.8)	54(2.9)
개인사업 및 창업	14(1.7)	64(3.5)
군입대	8(0.9)	40(2.2)
결혼	27(3.2)	9(0.5)
기타	32(3.8)	35(1.9)

자료 :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2003), 『음악대학 재학생 실태조사』

노동부(2001),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표 4> 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자료: 『2003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그동안 우리나라의 서양음악교육은 국가나 학교차원에서의 지원보다는 개인의 역량에 많이 의존되었다. 서양음악이 들어온 지 100여 년 만에 세계적인 음악가들인 지휘자 정명훈,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소프라노 조수미, 첼리스트 장한나 등이 배출되었음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 음악가의 탄생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인의 기량과 가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위에 언급한 세계적인 개인 솔리스트들의 활약과 비교해 봤을 때 실내악단이나 오케스트라, 오페라단과 같은 음악단체의 성장은 미비하다. 예술단체에 대해 연습공간과 경영면에서의 지속적인 지원과 후원 없이 세계적인 수준의 질 높은 단체가 키워지기는 힘들다.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음악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만 해도 2005년 기준으로 7,513명이며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인음악가의 수를 헤아려 볼 때 훨씬 많은 음악인들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2002년도 공연예술단체 수의 조사에 따르면 음악단체가 708개로 전체 공연예술단체 중 37%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공연예술인의 수

구분	회원 수	단위협회
예총	23,383명	음악협회 7,513, 무용협회 2,963, 연극협회 3,993, 국악협회 8,914
민예총	5,815명	민족음악인협회 400, 민족극운동협의회 315, 민족춤위원회 100, 민족풍물굿위원회 5,000
계	29,198명	9개 단체

자료 : 문화관광부(2005), 『2005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표 6> 공연예술단체 수

	단체 수	음악	국악	연극	무용	연예	기타
전체	1,908	708	512	250	207	56	175
비중(%)	100.0	37.1	26.8	13.1	10.8	2.9	9.2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2), 『2002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부록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음악전문가와 음악단체의 수에 비해 예술 창작 활동의 행사개최 횟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제작비의 상승, 작품발표 기회
의 감소 등에 따라 창작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예술현장에서는 ‘예술의 위
기’라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다. 공연의 경우 2000년도에는 10,323회, 2001년도
10,108회, 2002년도 10,660회로 거의 수의 변화가 없으며 창작발표의 기획이 풍족
하다는 응답자가 1997년 75.3%에서 2000에는 61.2%, 2003년에는 61.3%로 감소하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⁷⁾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지원은 지원금, 포상금, 보조금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문화예술 단체가 상주할 수 있는 공간 및 단체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프트
웨어인 단체운영의 노하우, 예술가 체류 프로그램, 예술가 상주 프로그램, 공급자
수요자의 네트워킹 지원을 하고 있다.⁸⁾ 국내 음악가들에게도 활발한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과 음악가들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임에 틀림없다. 이를 통해 더욱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도록 이끌 수 있으

7) 문화관광부(2004),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예술의 힘, 미래를 창조합니다.』

8)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3), 『선진국의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 사례』

며 다양한 음악공연의 공급은 문화국가로의 성장에 기초가 될 것이다.

2. 국내 음악 전용 공간 및 시설 운영 실태조사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80년대와 90년대를 걸쳐, 수적인 증가에 목표를 둔 공연시설의 건립으로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까지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540여 개의 공연장과 410개의 공연시설 (문화회관)이 자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클래식 음악분야에 있어 창작을 위한 음악 전용 공간은 미비하다. 학교차원에서의 연습실, 공연장에 딸려있는 연습 공간 정도이고 장소의 사용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2년 약 100여개의 클래식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창작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는 하나도 없으며 다만 시각예술분야에 3개가 조성되었다. <표 8> 참조

<표 7> 전국의 공연시설 및 공연장 수

구분		합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연 시설수	공연장수	공연 시설수	공연장수	공연 시설수	공연장수
전체		410	541	271	385	139	156
지역1	서울	106	131	36	53	70	78
	부산	21	30	7	16	14	14
	대구	22	29	14	21	8	8
	인천	19	26	14	19	5	7
	광주	13	15	12	14	1	1
	대전	13	17	8	11	5	6
	울산	6	8	2	4	4	4
	경기	57	88	45	73	12	15
	강원	21	28	18	25	3	3
	충북	20	20	14	14	6	6
	충남	14	22	14	22	0	0
	전북	22	31	20	29	2	2
	전남	21	26	21	26	0	0
	경북	22	26	22	26	0	0

	경남	25	34	19	26	6	8
	제주	8	10	5	6	3	4
지역2	특별·광역시	200	256	93	138	107	118
	광역시도	210	285	178	247	32	38

자료 : 문화관광부(2005), 『2005 공연예술 실태조사』

※ 공연시설 조사에서 ‘지역1’은 16개 광역시조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고, ‘지역2’는 서울 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특별·광역시’ 그룹과 9개 광역도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표 8> 서울의 분야별 / 요소별 문화시설 현황

	시설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상/영화	애니메이션	문학	전통문화
창작/ 제작	창작 스튜디오	-	3	-	-	-	-
	창작지원센터	-	-	2	1	-	-
	창작촌	-	-	-	-	-	-
	공공연습실	-	-	-	-	-	-
발표/ 전시	공공발표시설	5	1	-	-	-	2
	전문발표시설	18	20	-	-	2	-
	소규모 발표시설	72	223	-	-	-	-
	일반영화관	-	-	71	-	-	-
	멀티플렉스	-	-	8	-	-	-
보급/ 전수	예술영화상영관	-	-	1	-	-	-
	지방문화원	-	-	-	-	-	24
	전수회관	-	-	-	-	-	4
	공공박물관	-	-	-	-	-	11
	아카이브	-	-	-	-	-	-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4),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향 연구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 ※ 창작 지원센터에 영상미디어 센터 포함
- ※ 공공발표시설인 동시에 전문발표시설일 경우, 공공발표시설로 파악
- ※ 발표시설은 공연장, 미술관, 화랑, 문학관 등을 포함
- ※ 애니메이션 전용상영관은 애니메이션 센터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2005년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따르면 1,522개의 공연단체 가운데 자체 연습실을 소유한 단체는 168개(11.0%) 단체이며, 695개(45.7%) 단체는 임대계약에 의해 연

습실을 사용하고 있고, 653개의 단체는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장르별, 지역별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임대하거나 일시적으로 연습공간을 빌려서 연습하는 경우에는 1회적인 공연에 대한 연습으로 한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악이란 분야는 순간과 공간의 예술임과 동시에 지속적인 창조와 반복 학습의 시간인 연습이 가장 중요시 되는 장르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단체와 연주가가 있다 하더라도 연주 전 충분한 연습이 없이는 어떤 공연도 올릴 수 없을 것이다.

<표 9> 전국의 공연단체 연습실 보유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소유단체수	임대단체수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단체수	1,522	168	695	653	6
	비율	100.0	11.0	45.7	42.9	0.4
장르	연극	378	29	216	131	2
	국악	385	50	188	147	0
	양악	478	45	166	265	2
	무용	241	39	104	96	2
지역	복합장르	40	5	21	14	0
	서울	314	31	138	141	4
	부산	97	9	49	37	2
	대구	81	12	50	19	0

자료 : 문화관광부(2005), 『2005 공연예술실태조사』

3. 국내 음악 전용공간의 수요 실태조사

국내에서 음악 전용 공간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생소할 수 있겠다. 국내의 음악 전용 공간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클래식음악 전용 공연장이다. 국내 최초의 클래식음악 전용 공연장은 서초동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을 들 수 있겠다. 1988년 개관된 예술의전당 설립이후 서울시에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홀들이 비교적 많이 생겼지만 이는 전용이라기보다는 다목적 홀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클래식 전용관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곳은 2006년에 개관한 세

종문화회관의 세종체임버홀을 꼽을 수 있겠다.

위와 같은 클래식 공연장은 내부에 리허설 룸의 개념으로 연습공간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연주회를 위한 리허설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예술단체가 상주해서 연습의 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음악 전용공간의 설립에 대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상주예술단체 개념을 도입하여 공연장의 비어있는 연습실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공연장을 활용하여 연습실의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실정에서는 실행되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공연장이 예술단체가 상주하는 경우는 예술의전당 내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고 군포문예회관 내 군포프라임 필하모닉 정도를 들 수 있다.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울시내에 100여개의 공연시설이 있는데 공연장 내에 상주예술단체를 두는 것은 손에 꼽힐 정도로 흔하지 않은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예술단체가 공연장 내에 상주단체로 있기가 힘든 이유로는 첫 번째로 예술단체와 공연장의 니즈(needs)를 맞추기가 어렵다. 공연장은 예술단체에게 단체의 창조적 음악활동과 무관한 음악회를 열어줄 것을 조건으로 건다면 단체는 이런 모든 것을 수용하며 공생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두 번째로 예술단체와 공연장과의 매개 업무를 할 운영자의 부재이다. 예술단체의 상주는 공연장내의 임대사업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연장은 예술단체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받고 예술단체는 공연장의 공간 및 경영 지원을 받아 함께 성장하는 윈윈(win-win)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실정으로는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단지 공연시설이 많고 그에 딸린 연습공간이 있다고 해서 연습 공간 부족이 해결이 되지는 않겠다.

국내 클래식음악가들을 대상으로 음악 전용공간 설립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현재 클래식음악 전문연주단체인 오케스트라, 소규모 앙상블, 합창단, 오페라단에 소속되어 전문적으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120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둘째는 연주, 작곡 등 각기 다양한 장르에서 선발된 20여명의 음악가들과 타 예술분야의 전문가들과의 1:1 심층인터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듣는 것으로 하였다. 2006년 11월 1일부터 30일 까지 본 연구의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이 조사한 설문과 인터뷰의 결과를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음악인의 전반적인 의견이 아닌 임의로 추출된 일부의 의견밖에 수렴하지 못한 조사의 한계를 갖고 있다.

설문통계에 의하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77%의 답변자들이 본인만을 위한 창작공간이 있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 53%이며, 그 외에는 임대형태의 스튜디오가 대부분이다. 결국 전문적인 창작공간 즉 범주를 정해보자면 ‘가정에서 독립된 곳에서 위치하였으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시설과 방음을 비롯한 악기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 내렸을 경우 이런 조건을 갖춘 연습실을 소유하고 있는 음악가는 매우 적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10> 음악인들의 창작공간 실태조사

창작공간 소유 유무	비율(%)
있다	77
없다	23

<표 11> 음악 창작공간이 있을 경우 이용하는 장소

장소	비율(%)
집	53
학교	13
스튜디오	24
공연장	8
기타	2

<표 11>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개인적 공간인 집에서의 창작공간을 제외한다면 약 30%의 음악가만이 공공의 연습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갖고 있고 그 외의 20%는 공연장이나 학교를 사용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창작공간의 주요 이용 용도로는 가장 많은 수가 개인연주회의 연습장소 및 소규모의 발표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단체의 연주회 연습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연습공간은 주로 연주회를 위한 연습장소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표 12> 참조

<표 12> 창작공간의 주요 이용용도

주요 사용 용도	비율 (%)
개인연주회 연습 및 발표회	47
단체 연주회 연습	28
개인레슨	20
기타	8

음악가들은 <표 13>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창작공간인 물리적 장소의 필요성보다는 ‘공연보조금의 확대’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며, 그 외에 기획자의 역할이나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단지 물리적 연습공간이 없어서 창작활동을 하기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 보다는 공간과 더불어 연주자의 지원 서비스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주자나 단체의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본 설문 조사가 국내의 모든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는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음악가와 관련 전문가들과의 1:1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표 13> 전문음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지원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창작공간(연습실)지원	14	17	6
기획자(매니저)	13	18	16
공연보조금 확대	48	29	16
음악관련 정보	2	5	11
앙상블 활동 지원	5	13	13
공연장 대여	8	10	15
해외진출 지원	7	8	23
기타	3	0	0

다음은 1:1 인터뷰를 통하여 다양한 음악계의 목소리를 담아보고자 했다. 인터뷰 중 연구와 관련된 주요 내용만 나열하였다.

“한국에는 작곡발표회 음악회를 열기위해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선 연주자 지원이 안 되고, 티켓까지 작곡가가 구입해야 합니다. 음악회를 올리고 나면 제가 해외에 비행기티켓을 내고 외국에서 음악회를 하는 것과 똑같이 듭니다. 연주자비용을 내고 음악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매 음

악회 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돈이 들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작곡가는 독주, 이중주, 삼중주 정도의 적은 편성의 곡만 작곡을 하고 큰 앙상블이나 타악기가 들어가는 곡은 쓸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미국 작곡가 포럼 (Meet the Composer)’과 같은 단체에서 연주자지원금을 주고 음악회를 지원하는 매우 이상적인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⁹⁾

“복합문화공간이 생기게 되면 어떤 점이 필요하냐고 생각하면, 백이면 백 아주 다른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악계에서 이런 의견을 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전부 어떻게 보면 지원금을 주는 것을 받고 끝내자 이렇게 될 것이다. 작곡하는 사람은 작곡만 할 것이고, 국악 하는 사람은 국악만 하게 될 것이고 다 자기 이야기만 하다 끝날 것이다.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파트에 유리한 것만 이야기 하고 전체적인 것은 이후 문제라고 생각하고. 복합 건물을 한꺼번에 모아놓는 꼴인데 이렇게 큰 규모가 서울 시내에 쉽게 나올 리도 없지만, 굉장히 큰 규모를 요구하고, 50명 정도 연주를 하게 되면 연주가 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봤을 때 예술의전당 내의 예술 공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중략)

결론적으로 기존의 공연장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연장을 중심으로, 공간이 대부분 공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활용을 해야 한다. 공연장에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개념을 집어넣는다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 런던 안에 어떤 센터가 있는데, 영국에 가면 전체 영국에 있는 모든 작곡가의 모든 작품 목록 및 악보, 연주자에 의한 프로필 같은 것부터 해서 도서관 같은 시스템이 있다. 연주자를 찾고 싶다 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곳이다. 자료 같은 것이 잘 정리, 보관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개인적인 단체가 아니어도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¹⁰⁾

“타악기가 모두 갖춰진 연습실을 렌탈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9) 조사방 (작곡가) 인터뷰 녹취, 2006

10) 박영민 (서울클래식플레이어즈 음악감독, 지휘자) 인터뷰 녹취, 2006

주 저렴한 가격에 집중육성단체에 딱 타악기와 공간을 빌려줬으면 해요. 다 프리랜서 연주들이기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야라서 힘들어요. 발표도하고 일 년에 몇 번 연주하는 것으로 공간을 해주면 너무 좋죠. 제일 중요한건 시간이 중요하고, 이런 데서도 단체를 공모해서 서포터를 해줄 수 있나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집중지원 한다거나 젊은 사람을 지원한다거나…….”¹¹⁾

“단체의 연습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공간들의 해결을 위해 현재 유효한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해 좋은 공간은 놓고 있지 않습니다. 구민회관과 같은 공공기관의 부대시설로 마련된 공간은 음향이라든지 규모 등 음악 연습에 매우 부적절한 곳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습공간과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¹²⁾

“음악 전용 창작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부분의 음악단체들이 연습공간을 갈망하고 있는데 단체의 단원중 개인 연습공간을 확보한 연주자는 많지 않다. 연주를 할 때마다 연습실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음악 전용공간이 설립되더라도 음악 단체 모두를 지원할 수는 없기에 각 구나 동 등 작은 단위의 기관에서의 활성화가 되어야 더 많은 공간이 창출 가능할 것이다.”¹³⁾

“파리의 경우 음악박물관이 있는데 희귀한 악기들이면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악기들과 사용가능한 바이올린, 첼로 등의 악기들이 비치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이 100년이 넘었으니 교회 같은 곳에 보면 낡은 피아노가 있습니다. 방치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선교사가 사용했을지도 모를 역사적인 악기를 보존했으면 합니다.

정보의 공유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악보가 들어와 있는지 몰라서 연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연장, 학교, 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¹⁴⁾

“독일의 경우 대학 도서관만 가도 음악에 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기가 용이

11) 이지영 (한국현대음악양상블 대표) 인터뷰 녹취, 2006

12) 오주은 (첼리스트, TIMF 앙상블 단원) 인터뷰 녹취, 2006

13) 조창환 (트럼페티스트,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인터뷰 녹취, 2006

14) 이숙정 (첼리스트,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단원) 인터뷰 녹취, 2006

합니다. 창작음악활동과 음악가 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음악가들이 현대음악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 할애가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작곡계의 경우 동인 위중의 폐쇄적인 협회활동과 혈연, 지연 등의 각종 인맥 위주의 활동으로 젊은 음악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작곡가는 장소가 없어 원룸이나 독서실에서 작곡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창작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대음악에 관한 악보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시급합니다.

음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창작이 기본, 연주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이 단기간에는 힘들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해야 합니다.“¹⁵⁾

“연습실을 지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연습실을 짓고 누가 수혜를 입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결국 일부 예술가들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물리적 공간도 중요하지만 먼저 음악인이 한뜻을 모아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옹호 (advocacy)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심역할의 기능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¹⁶⁾

“파라다이스재단에서 지원하는 ‘청년미술작가 창작 지원’ 프로그램은 재단의 규모에 비춰봤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고 미국의 아트 오마이 (Omi) 는 청년작가들이 국제무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사업규모로 현재까지 19명이 혜택을 받았고 2억여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미술계에 재단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한 사업입니다. 국내의 문화지원 사업도 이와 같이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¹⁷⁾

앞에서 살펴본 설문과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국내 음악인들과 단체들은 획일화된 음악지원체계가 아니라 클래식 음악의 성격을 알고 해외동향까지

15) 최애경 (음악학 박사) 인터뷰 녹취, 2006

16) 허은영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연구원) 녹취 인터뷰, 2006

17) 송연정 (파라다이스재단 문화사업담당) 서면 인터뷰, 2006

고려한 전문화된 음악지원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문화진흥 정책과 예술가 및 단체를 위한 진흥기금의 지원을 통해 공연장수가 증가했고 클래식 공연의 수가 많아져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고는 하지만, 공연의 질과 음악가와 음악 단체의 질적 성장을 타 예술장르 및 해외 클래식 시장과 비교해 볼 때 보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계획된 전문적인 예술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서에서 연구할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조성의 필요성과 제안방안을 통해 다루고자 하며 제5장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3장 국내 타 예술장르의 복합문화센터 운영현황

제3장에서는 타 예술장르의 복합문화센터의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고 설명하기 보다는 미술계, 무용계, 연극계, 뮤지컬계의 창작지원 활동을 살펴보고 이외 예술지원 분야에서의 지원환경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복합문화센터의 개념이 각 장르마다 명확히 정의될 수 없고 이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장르별 복합문화센터라 분류될만한 시설 및 지원체계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의 기능에 관한 면을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술장르별 창작지원 프로그램과 현재 가장 주목되는 동향을 설명하는데 주목했다.

1. 미술계

가. 미술 창작 스튜디오

국내 미술계는 타 예술장르보다 훨씬 빠르게 미술창작공간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가 지원을 위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작가 스튜디오 제공이라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서울 창동과 경기도 고양에 소재한 국립창작스튜디오 2곳, 폐교를 활용한 미술 창작 스튜디오를 정부가 건립 지원한 29개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창작스튜디오 3곳이다.¹⁸⁾

폐교를 활용한 미술창작스튜디오에 관심을 갖고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경남 김해 미술창작스튜디오 조성에 마사회 기금 2억 원이 지원되면서부터이며, 그 후 2004년까지 총 29개소를 지원하였다. 창동의 스튜디오는 문화관광부가 예술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도봉구 창동에 버려진 공장을 이용하여 조성한 “창동 미술 스튜디오”가 2002년 6월 20일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부지 지 4백52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인 이 미술스튜디오는 14-22평 규모의 스튜

18) 김희영,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디오 14개와 54평의 옥외 공동작업장, 40평 규모의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한국화, 서양화, 설치 및 영상, 조각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1년 동안 창동 스튜디오를 제공함으로 인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토론을 통해 작업을 지원했다.¹⁹⁾ 2004년 4월에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는 기존의 아파트를 활용한 경우이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창작스튜디오는 3곳으로, 1998년 (주)레테데코 씬지가 씬지 아트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0년 9월에 재단법인 대유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영은 미술관 내 경안창작스튜디오, 2002년에 개관한 가나 아뜰리에가 있다.²⁰⁾

<표 14>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

구분		설립 주체/운영	명칭
국 · 공 립	문화 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사)현대미술관회	창동 및 고양 국립미술스튜디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논산(논산시운영) 및 강화 미술창작스튜디오 (폐관)
	지방 자치 단체	진안군/입주작가운영위원회	진안미술창작스튜디오
		평창군/입주작가협의회	평창무이 미술창작스튜디오
		광주광역시/광주시립미술관	팔각정 미술창작스튜디오 양산동 미술창작스튜디오
사립	기업	대유문화재단/영은미술관	경안창작스튜디오
		일주문화재단/일주아트하우스	일주아트하우스 스튜디오
		(주) 씬지/션지스페이스	션지창작스튜디오
		하나은행/가나아트갤러리	가나아뜰리에
	개인	지역작가	하제마을
		지역작가	문화예술촌 쟁이골

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19) 김희영,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20) 위와 같은 책

나. 미술전용 복합공간 - 인사미술공간

미술 창작 스튜디오와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00년 방송발전기금으로 시작된 인사미술공간은 유망작가를 지원하는 미술전시공간으로 국내 최초의 정부지원 미술전용공간이다. 처음에는 미술전시지원이 주된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미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도에는 특화된 아카이브와 지속적인 워크숍 활동을 기초로 시간예술 프로젝트 연구개발의 토대를 갖추었고 2006년 프로젝트 컨설팅과 출판기획 활동을 결합하여 복합-교류-지속형 기능체제를 마련하였다.²¹⁾

인사미술공간의 주요 프로그램은 아카이브 (Archive), 프로덕션 (Production), 워크숍 (Workshop), 출판 (Publishing) 4개로 크게 구분된다. 인사미술공간이 단순히 작가의 전시를 열어주는 1차적 예술지원이라기 보다는 창작활동을 하는 아이디어의 제공에서부터 창작품을 현대사회와 연결시키는 기능을 작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의 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5>에서 보면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작가포트폴리오 서가를 구성하는 것이다. 기관별 추천작가들이 직접 제작한 실물자료를 비치하여 아티스트를 찾는 국내외 관련자들에게 자료의 제공을 한다. 2006년의 경우 100명의 포트폴리오가 준비되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작품제작비를 1인당 20만원씩 제공하고 있다.

인사미술공간은 신진 미술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 예를 들어 본인의 작품에 대한 작가노트를 쓰는 글쓰기 워크숍에서부터 홍보 등의 일까지 두루 지원하고 있다. 국내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서가는 이미 해외에서 인정받아 국내 작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해외큐레이터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일반인들보다는 전문 미술인을 양성하는 미술콘텐츠 제작소와 같은 역할을 하며 미술계 창작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고 내실을 쌓도록 하는 선두에 서 있다. ²²⁾

21) 인사미술공간(2006), 『인미공 2006』

22) 정순민 (인사미술공간 대표) 인터뷰 녹취, 2006

<표 15> 인사미술공간의 사업 현황

구분	제목	내용
아카이브	작가포트폴리오서가	· 기관별 추천작가들의 직접 제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비치함
	사운드 & 스크리닝	· 국내외 사운드, 영상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초대하여 상설 스트리밍 후 자료로 재구성
	큐레이터의 사물함 (프로그램/전시)	· 전 세계 17개국 약 90명의 큐레이터들이 기획한 프로젝트의 아카이브를 통해 현대미술의 현장을 육안으로 관찰해 보는 워크숍 동반 프로그램
프로덕션	신진작가의 수첩	· 신진작가들이 성공적으로 미술계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비법’의 전수 · 작가별 특성에 따라 시장, 홍보, 비평, 전시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
	호모푸블리쿠스 아고라	· 시각예술활동의 공공성에 대한 제고, 공공미술작품과 지역 커뮤니티를 매개하는 교차-학제적 프로그램의 기획 및 론칭
	미디어아트 터보엔진	· 미디어아트 분야의 혁신적 관객층을 형성하는 한편, 국내외 유력 기관과 연계하여 미디어아트를 배포, 유통함으로써 미디어아트 마케팅에 주력
워크숍	선택의 조건	· 공공미술기관이 대면한 선택의 조건들, 즉 정체성의 전략적 선별과 효과적인 시각화 과정 논의
	AFI 정의	· Artist Forum International의 브레인 학술프로그램
	화두 2006	· 매년 시각문화의 이슈를 발굴하여 다각도로 심화, 확대하는 연속 토론 프로그램
출판	저널 ‘볼’	· 시각문화의 인문학적 지평에 대해서 토론하는 국/영문 혼용 저널
	인미공 출판물	· 기존의 전시 카탈로그를 지양하고 기록과 보고, 사후토론을 충실히 수집하는 텍스트 작업
	인미공 아티스트 북	· 텍스트와 지면 또는 책을 미디어로 독자와의 직접 소통을 시도하는 시각예술의 또 다른 작업

자료: 인사미술공간(2006), 『인미공 2006』

2. 무용계

가.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최근 국내 무용계에 새로운 이슈 중 하나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것이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2006 무용인 한마음 축제’의 홍보전단에는 전문무용수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무용기초예술의 기본 요소인 인적자원, 그 중에서도 무대에서 춤을 추는 무용수의 육성과 권익 보호를 목표로 설립된 단체이다.

전문무용수란, 무용 창작 작업의 중요한 주체로서, 전문적으로 춤추는 행위를 통해 무용예술 공연에 기여하는 예술가를 지칭한다.

전문무용수들이 현장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센터 설립을 구상하여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예술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시작점이며, 전문무용수의 창작활동 및 복지를 지원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나아가 뛰어난 기량의 무용수를 배출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²³⁾

전문무용지원센터가 설립된 계기는 2년에 한 번씩 모나코에서 열리는 ‘모나코 댄스포럼’에 참석한 문훈숙 단장(현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이 직업무용수의 직업 전환에 관련된 세미나를 참석한 후 우리나라에도 무용가들을 위한 직업전환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2005년부터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에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무용수의 직업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연극, 음악, 미술과 같은 예술의 타 장르와는 달리 40세가 되면 유럽이나 미국에선 무용수에서 은퇴를 하는 게 공식화되어 있다. 40세의 나이는 인생에서 절정을 이룰 수 있는 나이인데 무용계에서 은퇴하여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무용수들에겐 생존을 위한 직업전환이 필요하다.

23)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2006 무용인 한마음 축제’ 홍보전단 중

전문무용수의 안정된 직업과 노후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무용계 내부에서 인지하고 이에 따른 국내에서의 지원 사업 방향을 토의하기 위해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관련한 심포지움을 2005년 9월에 갖게 되었다.

특히 무용분야 중에서도 발레계의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어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는 무용 장르의 특성상 한국무용과 다르게 발레의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발레계에서의 여론 형성이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국립발레단의 박인자 단장과 유니버설발레단의 문훈숙 단장의 시작으로 심포지움을 통해 현재 국내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무용수들이 노후나 생계의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일치되었다.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무용수를 위한 지원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목표로 하여 시작된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재단설립 기금마련을 위해 2006년 12월에 1,000원짜리 티켓을 판매하여 문화계 및 국민 여론을 형성하였다. 지난 12월에 재단법인화 되었고 자체적으로 모금된 금액을 토대로 문화관광부의 예산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24)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센터의 수혜자를 전문무용수라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무용수에 대한 파악과 범위의 설정이 안되어있는 국내현실에서 전문무용수를 규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자체적으로 전문무용수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예를 들어 일 년에 어는 공연장에서 몇 편의 작품을 올렸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서울국제공연의 프로단체나 무용수를 위주로 선정하고 학교나 학원에서 파생된 단체나 동호회 학연의 연결은 제외함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인의 목소리를 내는 응집소가 될 뿐만 아니라 무용 연습실, 무용인 전용카페, 사무공간을 갖추고 무용경영 전문가들이 상주하여 무용수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사업과 무용과 관련된 각종 컨설팅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런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탄생은 무용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복지를 개선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무용계가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지원센터가 하드웨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용계의 의견을 모아 목소리를 내고 본인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지지(advocacy) 집단의 기능도 함께 함을 볼 수 있다.

24) 임소영 (유니버설발레단 홍보팀장) 인터뷰 녹취, 2006

나. 무용자료관- 연낙재

2006년의 또 다른 무용계의 소식은 국내 최초의 무용자료관인 연낙재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연낙재는 1세대 무용평론가이자 월간 ‘춤’지 발행인인 조동화가 30여 년간 모아온 자료의 보관을 위해 그의 후배 평론가 성기숙 교수가 마련한 공간이다.

이 공간에는 월간 ‘춤’지가 발굴 수집한 국내외 춤 관련 서적을 비롯해 문화예술 정기 간행물, 춤 관련 단행본, 학위논문, 잡지, 공연관련 서적 자료, 미디어 자료 등 각종 자료들이 총 망라돼 있다.

또 연낙재는 춤 자료를 더욱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해 ‘한국춤기록보존연구소’를 창립하여 춤 문화유산의 기록화 사업, 해외소장 춤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학술 세미나를 여는 등 국내 무용 연구와 자료수집의 허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연극계

가. 극장 지원

연극계의 지원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는 극장에 대한 지원이고 둘째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다. 공연의 생산을 수용하고 이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수용하는 장소인 극장은 공연예술의 단순한 매개 정도가 아니다. 공연 창작이 실현되는 장소이면서 아울러 이를 구매하는 시장 자체이다. 공연예술의 시장이 형성되려면 극장은 공연작품을 구매하고, 이를 관객에게 다시 파는 공연 유통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연 예술의 특성상 일반 상품과는 달리 재화의 가치가 아닌 공익적 무형 가치를 다루는 공연예술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를 모두 떠맡게 되는 곳이 극장이다.²⁵⁾그 동안 정부는 극장의 설립이라는 하드웨어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세계적 수준의 연극을 위한 최

25)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서면 인터뷰, 2006

고의 극장이나 연극을 위한 복합 센터가 없음은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

나. 예술가 지원

두 번째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인데 여기서는 창작품에 관한 지원에 대해 역사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다.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공포되고 1974년 1차년도 사업이 시행되면서 연극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창작극 지원이었다. 극작가의 희곡발표 통로를 열고 작품료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창작극을 상연하는 극단에 대해 백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시작되었다.²⁶⁾

그리고 1985년 창작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발표되었는데, 86, 88 문화올림픽을 겨냥한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창작극활성화 계획, 극작가 집중지원책의 방안으로 우수한 창작 극본을 선정해 작품료를 지급하고 제작비까지 제작단체에게 보조하며 최우수 공연단체에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방순회공연까지 보장하는 안이었다.

작품을 창작하는 주체에 대한 이러한 지원방식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자 90년대 들어서는 창작자 중심의 지원제도는 유지하면서 관객지원제도가 새로이 창안되었다. 91년 연극·영화의 해 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관객지원제도 ‘사랑티켓 제도’가 새로 생겨 관객층 저변 확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는 창작극 육성 목표를 향한 집중지원책, 문화생산자 중심의 지원책에서 연극 일반을 위한 지원, 문화소비자 중심의 지원제도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복권기금으로 최초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4년 ‘올해의 예술상’ 제정, 문화예술소외지역 순회공연에 대한 특별지원정책 등 창작극이나 번역극이나를 막론하고 관객층을 개발,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는 연극문화 수용자 중심의 지원책이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²⁷⁾

연극의 지원도 타 공연 장르와 마찬가지로 창작품에 대한, 즉 일회적인 연극작품에 대한 사업비가 일반적이었고 연극인이나 창작과정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

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1976), 『문예연감』

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6), 『문예연감』

다. 이는 비단 연극계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재의 진흥기금이 소액 다건 지원, 제작지원인것에서 탈피하여 계약을 통해 2년 또는 3년 씩 지속적 지원을 통해 안정된 창작 환경 속에 좋은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극단 쪽의 지원을 살펴보면 소액 다건식으로 실제로는 예술단체들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며, 좋은 작품의 생산이나, 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상의 가능성밖에 없다. 예술가들은 다 서로 다르고, 그 수준도 편차가 크다. 결국 수준별 차등 지원과, 미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의 형성 등 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다.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은 1999년 총 610개의 사설 예술가 단체에 할애되었는데 그 중 245개가 3년 계약에 의한 단체 지원이었다. 간략히 말하면, 제작 프로젝트 지원, 연간 지원, 다년 지원, 상주를 통한 지원 등으로 예술적 발전에 따른 지원 형태의 변화가 읽힐 수 있어야 한다. 28)

현재와 같은 정부의 제작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해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으며 그 대안 중의 하나가 공연예술센터의 건립과 운영이다. 이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여건 지원이며 이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며 예를 들자면 현금을 지원하면 이 돈을 인건비로 쓰건 어디에 쓰건 마음대로지만 여건 지원은 꼭 필요한 그곳에만 쓰여 진다고 볼 수 있다.29)

다. 연극인 복지재단

연극계에서 예술가를 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움직임 중 하나는 연극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연극인복지재단을 꼽을 수 있다. 이 재단은 2005년 5월 연극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구로 배우들이 출연료 1%씩을 제작자들이 매표수입 1%씩을 모아 연극인들의 복지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고 초대 이사장은 연극배우 박정자씨가 맡았다.

2006년 서울연극협회와 연극인복지재단이 2006 한마음 축제 기간 중에 ‘예술인

28)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서면 인터뷰, 2006

29) 정진수 (연출가, 성균관대학교 교수) 서면 인터뷰, 2006

복지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여론과 관심을 이끌며 예술가들의 사회적 여건을 보장하는 일이 문화, 예술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인식의 확산에 대해 지명하였다. 연극인 복지재단이 연극인의 안정된 생계와 노후를 위한 지원정책이긴 하지만 예술인 개인에 대한 지원의 한계와 이와 같은 지원이 창작활동에 대한 직접적 연관성은 아직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기타

본 단락에서는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습실과, 뮤지컬분야의 연습 공간, 국내 자료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본 연구의 음악 전용복합문화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연습실

(1) 개요

현재 국내에서의 공연을 위한 연습실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로 연습실을 꼽을 수 있겠다. 2004년 12월에 개관한 대학로 연습실은 양질의 창작시설과 저렴한 대관료로 장소와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이 시대의 예술인들이 예술의 혼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습 공간 확충을 통한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는 2004년 공연예술단체 및 극장 밀집지역인 대학로에조차 공공 전용연습실은 2개소, 사설 공연연습실은 10여개 밖에 없어 공연예술인들은 공연장 주변의 사설연습실을 주로 이용했는데 그나마 규모가 20평 내외의 협소한 공간이라 연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대학로 연습실은 이와 같은 연습 공간 부족이라는 창작여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30)

30) 78P, 서울문화재단(2006), 서울문화재단 백서 『문화예술로 행복한 서울창조』

(2) 시설

대학로 연습실은 총 370평 면적에 대규모 연습실(70평) 2개와 중규모 연습실(40평) 2개, 70명 수용가능한 중규모 세미나실 1개,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부대 시설로 구성되었으며, 소규모공연에서 중대규모 공연 및 뮤지컬, 워크숍, 세미나 까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외에도 샤워실, TV, 오디오시설, 냉방시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있으며 365일 운영하여 예술인들이 언제나 연습에 전념할 수 있게 배려되었다.

연습실의 입지를 대학로로 선택한 것은 극장과 단체가 밀집되어 있는 주변 창작환경과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연습공간뿐 아니라 공연예술인의 “교류의 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³¹⁾ 대학로 연습실은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타 사설연습실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된다.

<표 16> 대학로 연습실 대관비용

총 수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1층
연습실 구분		제1연습실	제2연습실	제3연습실	제4연습실	세미나실
임대평수(평)		72	52	72	46	70
대관료 (원)	오전	20,000	17,000	20,000	15,000	100,000
	오후	28,000	23,000	28,000	20,000	200,000
	야간	28,000	23,000	28,000	20,000	200,000

자료: 서울문화재단백서(2006), 『문화예술로 행복한 서울 창조』

(3) 현황

이런 저렴한 비용과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대학로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배경으로 인해 90%이상의 높은 대관률을 보여주고 있다. 대관은 분기마다 정기 및 수시대관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데 3:1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며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 시설의 문제점중 하나인 음악연습을 위한 방음과 무용연습을 위한 기본자재들을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보완공사를 완료해 장르의 구분 없이 모든 형태의 예술가들이 사용할 수

31) 79P, 서울문화재단(2006), 서울문화재단 백서 『문화예술로 행복한 서울창조』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되었다. 하지만 지리적 배경에 의한 것인지 연극단체의 사 용이 주를 이룬다.

<표 17> 대학로 연습실 대관률과 재대관률

구분	2005년				2006년	
기간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1분기 (1-3월)	2분기 (4-5월)
대관율	71%	68%	84%	82%	79%	85%
재대관 희망률	설문조사 미시행	설문조사 미시행	97%	100%	97.8%	100%

자료: 서울문화재단백서(2006), 『문화예술로 행복한 서울 창조』

나. 뮤지컬

한국의 공연산업 중 뮤지컬시장의 확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이는 뮤지컬이라는 상업예술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 뮤지컬을 성장시킨 원동력 또한 연습이라는 과정을 간과할 수 없다. 해외와 국내 대표 뮤지컬 기업의 연습 공간 및 운영에 관한 사례를 비교해 보고 장점을 수용하고자 한다.

(1) 일본 시키씨어터컴퍼니 트레이닝센터

(가) 개요

일본의 가장 큰 공연기업은 연극으로 시작한 시키씨어터컴퍼니 (SHIKI Theatre Company)로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기업이자 쇼 비즈니스 기업으로 손꼽힌다. 배우를 비롯하여 기술, 스태프 등 1,200여 명이 구성된 극단으로 현재 일본 내에 9개의 전용극장을 운영하여 연극, 국내뮤지컬, 해외뮤지컬, 패밀리 뮤지컬 등 폭 넓은 레퍼토리를 올리고 있다. 연간 총 3천회의 공연 횟수, 3백만 명이라는 총 관람객수가 시키씨어터컴퍼니의 거대함과 일본 내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시키씨어터컴퍼니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근간은 공

연의 수준, 즉 실력이라는 것을 뽑을 수 있다. 그 실력 밑에는 피나는 노력과 연습이라는 기간이 있다. 이런 시키씨어터가 2006년 7월에 새로운 연습장을 완성하였다.

(나) 시설

좋은 배우는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시키씨어터컴퍼니는 반세기의 활동에서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훌륭한 무대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건인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최고의 연습장을 만들었다. 도쿄 옆 동네인 요코하마 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면적 17,400 평방미터 (5,260평)의 새로운 연습장을 건설한 것이다. 바닥재와 음향설비 등에 신경 쓴 연습장에 대, 중, 소 20개의 연습실과 20여개의 개인연습실 및 마사지 룸, 트레이닝 룸 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배우양성센터가 탄생했다. ³²⁾

(다) 운영현황

시키씨어터컴퍼니 트레이닝센터는 일 년 365일 사용이 가능하고 모든 배우들은 9시부터 1시 30분까지 연습을 하고 있다. 각각의 수업은 5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 중, 고, 완전 기초, 완전 발레리나가 하는 것 등 수준별 레슨을 하고 있고 각각의 배우들은 본인에게 맞는 수업에 들어가 기량을 연마한다. 이 외에 모든 배우들은 1시간 30분 동안의 재즈클래스를 들어가게 되며 단순히 재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힙합, 요가, 스트레칭 등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배우들은 매주 금요일에 다음 일주일에 관한 수강신청을 한다. 일련의 모든 지원은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기에 배우들은 본인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고의 트레이너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최고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수준 높은 실력을 요구하고 있다.

시키씨어터컴퍼니 트레이닝센터는 시키극단 소속의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연구생을 뽑는데 많게는 100명의 사람을 선발하기도 한다. 아직 시키극단 소속의 배

32) 시키씨어터(2007), 시키씨어터컴퍼니 소개 책자

우는 아니지만 전문배우들과 함께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래의 배우를 키우는 기업 입장에서의 투자 방법이다. 연구생의 경우 시험을 통해 탈락이 되기도 하고 시키극단의 정식배우로 활동할 수 있기도 하다. 최고의 시설에 이상적인 훈련과 운영을 하고 있는 시키씨어터컴퍼니 트레이닝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간 운영비 30억 원이라는 경제적 부담에 있다. 33)

(2) 한국 점프 (Jump) 대학로 연습실

(가)개요

일본에 시키트레이닝센터와 비교해 국내의 뮤지컬 기업들도 단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연습 공간 마련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2006년 웨스트엔드 완전매진(sold out)의 대기록을 세운 한국창작 뮤지컬 <점프(Jump)>를 살펴보고자 한다. 점프는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택견을 중심으로 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코미디줄거리를 혼합하여 화려하면서도 짜릿한 마살아츠(Martial Arts)를 선보여 이미 해외에서 인정을 받은 작품이다.

(나) 시설

작품 특성상 연습실의 규모는 천정이 3m이상이 되어야 하고 바닥에 스폰지와 같은 쿠션이 있고 그 외 준비운동, 재활운동 등 스포츠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별도의 운동 및 휴식공간도 필요로 한다. 이런 점프의 연습공간은 초기에는 경제적 문제로 서울근교 남양주의 버섯 창고를 가건물처럼 사용하였다. 100여 평 규모의 반을 빌려서 사용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는 대학로에 약 50평의 연습실, 사무 공간, 재활 공간, 식당으로 구성된 연습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목표는 30-40평 규모의 연습실 3개를 지어 공연단체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33) 장혁진 (극단 시키씨어터컴퍼니 부장) 인터뷰 녹취, 2006

(다)현황

점프는 대학로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저변의 힘이 우리나라 공연을 이끌어가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창작 열기에 지원을 하는 개념이다. 점프의 연습실은 앞에서 예시한 일본 시키씨어터컴퍼니 트레이닝센터와 캐나다의 서크 뒤 솔레이 (Cirque du Soleil)의 연습공간을 모델로 연구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연습공간으로 탄생했다고 한다.

점프의 경우 연습공간을 보유하고 있을 때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배우들이 떠돌이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한 공간 안에서 몰입하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작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³⁴⁾

다. 아르코 정보 예술관

연습실과 더불어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바로 도서관일 것이다. 이는 2장에서의 서술한 1:1 인터뷰에서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음악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국내 유일의 예술정보도서관은 서초동 예술의전당 내에 위치한 아르코 정보 예술관이 있는데 아르코 정보 예술관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요

아르코 정보 예술관은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전문 아카이브로서 국내·외에서 생산된 20만 여점의 방대한 문화예술 정보자료를 보유하여 문화예술인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미술, 전통예술 등 예술 전 장르의 전문서적, 연속간행물, 각종 팜플렛, 사진, 비디오, 음반,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매체의 고품질 문화예술 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작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

34) 김경훈 (Jump 프로듀서) 인터뷰 녹취, 2006

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현황

서울 예술의전당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헌정보실(2층)과 영상음악실(3층)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헌정보실에는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각종 단행본, 참고도서, 동인지,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공연대본, 포스터 등 인쇄매체의 자료들의 수집, 보관되어 있고 소장 자료는 개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층 영상음악실에는 문화예술관련 각종 매체에 수록된 영상, 음악 자료와 공연 프로그램과 전시회 도록, 사진 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각종 기자재가 설치된 개인 감상석과 공동감상실이 마련되어 있다.

아르코예술정보관에서는 국내에서 공연된 연극대본을 수집하여 문헌정보실에 소장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목록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콘텐츠 홈페이지 www.artsonline.or.kr에서 제공했다. 더불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은 약 700편의 작품 전문을 웹브라우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진행했으나 현재 이 사이트가 무슨 이유인지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³⁵⁾

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제4장 해외 음악 관련 단체의 운영 현황

1. 해외 예술 지원정책의 현황

해외 여러 나라들의 예술 지원정책은 각 나라의 예술사적 배경이나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다. 먼저 예술 지원정책의 체계를 살펴보면 프랑스와 같은 중앙형의 지원체제와 독일, 미국, 캐나다와 같은 지방자치적인 지원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는 독일과 미국의 중앙 혹은 지방 정부의 예술지원 직접지출 비용을 비교해보면 독일 정부는 1997년 한해 국민 일인당 85달러를 사용한 반면 미국 정부는 겨우 6달러를 지출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8년 영국 예술 위원회 (Arts Council of England)가 OECD 11개국을 비교한 자료에서 보여준 결과이다. 정부의 예술관련 지출에 있어서 독일과 미국의 이러한 큰 간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는 독일의 경제시스템과 힘의 분산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시스템의 차이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독일의 예술지원은 대부분 정부를 통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반면 미국은 정부의 직접지원 보다는 민간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각국의 예술 지원정책은 단순 비교가 어려운 다양성을 보인다.

유럽이나 북미 여러 나라들의 예술 지원정책의 추세를 살펴보면 정부의 예술지원 직접지출이 많은 나라이든 적은 나라이든 90년대 이후 전반적인 예술지원을 위한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가 감소의 패턴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미국은 1992년에 비해 1996년의 국립예술기금 (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을 통한 정부의 직접지출이 43%나 감소하였다. 단지 독일만이 통일 이후 문화예술관련 정책비용이 증가하였다.

예술가에 대한 창작 지원정책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종전의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작비 지원으로부터 경력개발, 연수나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한 예술가의 창작능력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는 추세이다. 또한 예술가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기보다는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이나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새로운 아젠다인 'Ambitions for the Arts'를 통해 '개별 예술가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예술가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예술가 복지에 힘쓰고 ‘작가작품 지원제도’ 등을 통하여 개별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가.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유럽연합에 가입한 25개 회원국과 주변 국가들은 문화협력 (Cultural Cooperation)의 형태로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다. 유럽 여러 국가들 사이의 문화외교 또는 문화협력의 개념은 1989년 독일의 통일이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치경제적 목적성을 가졌던 정부 간 직접적인 협력은 줄어들고 교육적/학문적 아젠다를 지닌 확장된 예술교류와 협력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의 문화협력은 정부 주도보다는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하에 개인 예술가, 비영리 예술 단체, 지역 단체 등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다국 간 교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문화협력 환경에서 국가의 역할은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예술 수요자를 위해 예술 창작 및 공급을 촉진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 간의 문화협력은 아직 자국의 예술작품을 서로 방문하여 보여주는 ‘문화교환’의 형태인 경우가 많다. 특히 각 나라에서 강점이 있는 예술 장르를 다른 나라에 알려 자국의 예술가나 단체가 그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문화교류의 대상이 전통적인 예술 장르나 문화유산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문화 주변국들은 문화협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회원국 또는 주변 국가들의 430개가 넘는 국립문화단체 (National Cultural Institutes)를 통해 국가 간 협력과 다양성의 수용 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문화 2000 프로그램 (Culture 2000 Programme)’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문화 2000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총 2억4천만 유로를 들여 유럽연합 국가의 예술가,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문화예술 단체 간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의 3개 이상 회원국들이 관련된 각종 문화예술 협력 프로그램과 이벤트

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프로그램은 ‘문화 2007’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며 4억 유로로 지원금을 늘려 실질적인 국가 간 협력 프로그램이나 ‘유럽의 문화도시 (European Capitals of Culture)’와 같이 유럽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확 인시켜줄 수 있는 이벤트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음악 분야에서의 유럽 국가 간 협력은 음악 양식, 음악 기관, 19세기 작곡가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의 나라에서 그 외의 다른 나라에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발트 해 연안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음악 훈련기관들이 활발한 교류활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국가 간 문화협력의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이벤트와 유럽방송연합에 의한 방송활동 등에서만 음악과 관련한 문화협력의 적절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나. 미국

중앙집권적인 유럽모델에 비해 미국의 예술 지원정책은 복잡하고 분권적이며 다양하다. 미국의 비영리 예술 단체들은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보조 외에 개인, 기업, 재단 등의 후원금과 티켓판매 수입으로 운영된다. 예술의 장르와 단체의 성격에 따라 비율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술 단체 수입의 50%는 티켓 판매 등의 매출 수입이며 정부의 지원 비용은 10% 미만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정부 직접지원이 적은 이유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민들이 중앙 집권형의 정부보다는 분권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문화정책 또한 분권화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별도의 예술 위원회를 두고 있는 영국의 문화정책 전통을 토대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미국의 예술 지원은 크게 공공부문, 민간부문, 세제혜택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중앙정부를 대신해 기금을 지원하는 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와 같은 독립된 기관이 있으며, NEA는 주정부 단위의 예술 위원회 (State Council on the Arts)와 지역예술기관 (Local Arts Agency)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이란 개인, 기업, 재단 등에서 예술 단

체에 기부하는 후원금 형태의 지원이다. 그 중 개인의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50%나 차지하고 있으며, 33%는 재단, 17%는 기업으로부터 출연되었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가 민간부문의 예술지원을 활성화 시키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 비영리 예술단체 수입의 약 절반은 자체적인 매출 수입으로 벌어들이고 있으며 40 ~ 45%의 수입은 민간부분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예술 단체들은 관객 또는 후원하는 주체들과의 관계 유지가 단체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의 예술 단체나 예술가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으며, 다양한 민간부분에 의한 지원은 다양한 단체의 형태와 운영방식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다양성은 음악과 관련한 단체의 다양성과 예술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의 다양성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예술가 지원 형태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다. 아시아

(1)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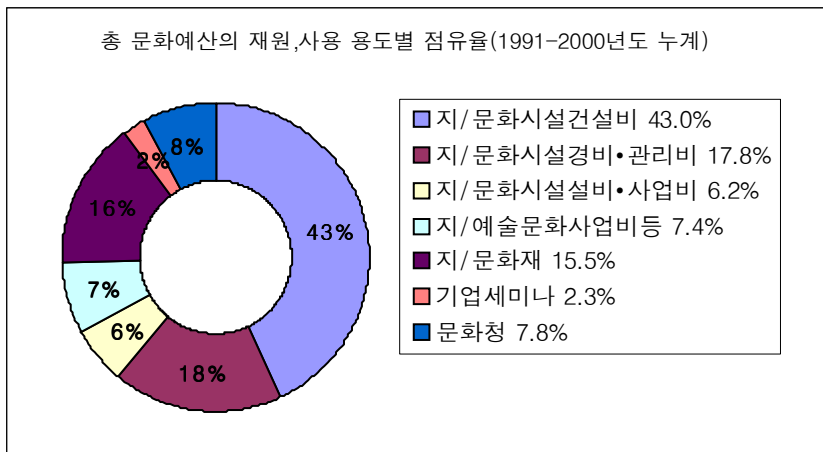
일본의 문화청(Agency of Cultural Affairs)은 1968년 교육부의 문화부와 문화재부가 합병되어 생겼다. 2001년부터 문화부는 일본의 중앙정부와 함께 재조직되며 문화와 국제문화교류의 업무와 다양한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츠플랜 21-Arts Plan 21 (현재 문화예술창조플랜)의 사업을 통해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예술위원회 (Japan Arts Council)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예술위원회는 1966년 국립극장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그 목적도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엔제이 극장 (Engei Hall), 분라쿠 극장 (the Bunraku Theatre), 노 극장 (the Noh Theatre)이 건립되었고 1989년에는 신 국립극장을 만들게 된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990년 일본예술기금 (Japan Arts Fund)이 생겼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500억 엔 (50 Billion Yen)과 100억 엔 정도의 개인후원으로 구성되었다. 1990년에

위원회 안에 일본예술기금이 설립되게 되었고 이 기금은 다양한 예술과 문화 활동에 지원되었는데 이로서 일본예술위원회는 예술과 문화를 알리는 가장 중심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36)

<표 18> 1990년대 일본 문화청 예산 내역



주) “지”는 지방공공단체

자료: 넷세이기초연구소 (2004), 『문화예술을 둘러싼 환경변화』

1990년대의 일본 문화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1991년부터 2000년도까지 10년간의 문화예산누계는 약 8조 6,780억 엔으로 그 중 43%에 해당하는 3조 7,360억 엔이 문화시설 건설비로 사용되었고 지방공공단체의 문화소프트 예산은 문화시설 사업비를 더한다 해도 1조 1,760억 엔인 약 13.6%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표 17> 참조

하지만 1993년 약 1조 엔을 정점으로 감소경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공연장 설립이라는 건설비의 비용이 줄고 문화예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설경비와 사업비등이 시설수의 증가와 더불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표 17>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1년 지방자치문화예산의 13.6% 에 그쳤던 문화소프트예산 (문화시설경비·관리비 및 예술문화 사업비 등)이 2003년 이후

36) Japanese Government Policies in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Towards a Culture-Communicating Society, Ministry of Education (Japan, 1995)
<http://www.classic.or.jp/english/e-frame/f-about.html>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는 약 40% 가까이 증가했다.

<표 19> 2004년도 일본 문화청 예산 내역

(단위: 백만 엔)

예술문화의 진흥	문화예술창조플랜	18,902	18.6%
	[일본문화의 매력]발견·발신편	682	0.7%
	무대예술의 진흥 등	6,209	6.1%
	국립미술관 정비 운영 등	13,689	13.5%
소 계		39,482	38.9%
문화재 보호	사사적적 등의 보존 및 활용	26,663	26.2%
	국보·중요 문화재 등의 보존 사업 촉진	10,056	9.9%
	전통예술문화의 전승	9,371	9.2%
	[일본문화의 매력]발견·발신편	1,240	1.2%
	국립박물관 정비 운영 등	12,248	12.1%
소 계		59,578	58.6%
기 타		2,533	2.5%
합 계		101,593	100.0%

자료: 닛세이키초연구소 (2004), 『문화예술을 둘러싼 환경변화』

예술문화의 진흥 분야는 2004년도 문화청의 문화예술창조플랜의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페라, 발레 등 예술의 창조사업, 중점지원, 국제페스티벌 개최, 신진 예술가 육성, 어린이 문화체험활동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이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순수예술의 지원은 자유로움과 창조적인 예술작업, 예술가나 단체의 자유로운 표현들을 존중하였다. 예술가들의 개별적 작업을 존중하지만 국가나 지역정부차원에서 예술지원의 역할도 중요시 여겼다. 예술가나 단체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예술작품을 인정하고 평가하며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는 일들을 해왔다.

일본에서 공연예술의 주요 수입원은 공연티켓과 그 외 사업수입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재정적으로 어렵다. 일본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결국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이고 정부나 개인후원이 절실하다.

<일본예술기금의 지원형태>

○예술단체를 위한 기금지원

·오케스트라, 오페라, 발레 등의 단체의 일정기간이나 정기공연 지원

○우수 예술 활동의 집중지원

·일본예술가 참여 해외페스티벌, 국내 페스티벌 지원

○우수 공연예술 장려

일본예술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사용되는데 첫째, 예술단체를 위한 기금지원이다. 이 기금의 목적은 오케스트라들의 일정기간이나 정기공연을 지원하는 것이다. 오페라나 발레 등의 단체도 일본 문화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의 예술단체의 지원을 받는다. 1992년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Tokyo Philharmonic Orchestra Inc.), 니키카이 오페라 재단 (Niki-kai Opera Foundation), 일본 극장 협회 (the Association of Japanese Theatre Companies), 일본 현대무용 협회 (the Contemporary Dance Association of Japan)를 비롯하여 53개의 예술단체가 지원을 받았다.

두 번째로 우수예술 활동의 집중지원인데 1988년 이후 예술지원은 일본 공연예술의 큰 성장을 보였고 눈에 띄는 발전을 보게 되었다. 해외 페스티벌과 대규모 국내 공연을 지원하게 되는데 1992년 해외페스티벌 지원의 수는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오사카 필하모닉 (Osaka Philharmonic Symphony Orchestra)을 베를린에서 열리는 일본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과 국내 규모로는 오케스트라의 '전쟁 레퀴엠 War Requiem', '오페라 The Power of Destiny', 발레 'Love in a Warring Country', 와 드라마 'I Give You My Bird'가 있다.

세 번째로 우수 공연예술장려 인데 이 기금은 다양한 창조적 활동의 지원이고 음악, 무용, 드라마, 그리고 일본-미국 공연예술 프로그램으로 일본 현대 공연예술가들을 미국으로 보내 교육을 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문화의 부유와 보급을 위한 것으로 예술가들의 지원 사업을 눈여겨 볼만하다.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1967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젊은 예술가들이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1992년 700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유럽, 미주를 포함 여러 나라에 보내졌다. 이 예술가들이 현재 일본예술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 1992년에는 예술을 운영할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예술경영 분야의 인력들도 해외로 나가는 것에 포함되었다.

국내에서의 프로그램으로는 아트 인턴십이 있는데 이는 젊은 예술가들이 일본 내에서 공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1977년부터 진행되어온 예술가의 국내 교육 프로그램이 1991년 인턴십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은 보다 효과적인 공부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 외 해외 예술가의 일본거주 프로그램인데 1990년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해외의 젊은 예술가들을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초청하여 일본 예술가들과 함께 공부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³⁷⁾

(2) 싱가포르

싱가포르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은 정부 기업 및 예술계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진다. 정부가 엄격한 통제와 규율시스템을 가지고 다 문화사회를 통합하는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에 부합하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예술가와 예술단체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이에 역행하는 예술가와 예술단체는 오히려 탄압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그로 인해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예술계 분위기는 역동적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조용한 편이다. ³⁸⁾

1989년 이후 싱가포르의 문화와 예술이 크게 성장했는데 이는 하드웨어(hardware)인 기관이나 건물들의 발전이 주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software)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기라 선포하였다.

1991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NAC,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는 정보, 통신, 예술부 (Ministry of Informations, Communications and the Arts) 아래 생겼는데, NAC 설립 이후 싱가포르의 예술정책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

37) Japanese Government Policies in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Towards a Culture-Communicating Society, Ministry of Education (Japan, 1995)
<http://www.classic.or.jp/english/e-frame/f-about.html>

38) 이무용(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서면 인터뷰, 2006

NAC의 미션은 예술을 양육하고 싱가포르 삶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있는데 이 안에는 8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공연 (Performing Arts), 시각예술 (Visual Arts), 문학 (Literary Arts), 자료 개발 (Resource Development), 청중 개발 (Audience Development), 계획 (Planning), 시장 개발 (Market Development) 과 기업 커뮤니케이션 (Corporate Communications) 으로 이 모든 부서가 전략적인 적용과 프로그램화를 함으로 8개의 분야가 서로 영향을 주어 시너지를 창출해 싱가포르 안에서의 예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³⁹⁾

21세기를 맞아 이질적인 문화를 극복하고 문화국가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싱가포르의 노력은 문화의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 (Renaissance City Project)’로 활기를 띠며, 문화정보부 청사를 이전하는 등 새로운 각오로 그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예술의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자는 기본 목적을 지닌 싱가포르의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는 예술 진흥을 위한 국립예술평의회 발족 (1991), 국립 문화유산청 (National Heritage Board), 국립 도서관청 (National Library)의 설치, 나아가 주요 문화기반시설인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아시아 문명박물관 조성 등으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0년대부터는 문화를 통한 세계 최상의 도시를 지향하고 창조, 지식기반산업을 새로운 산업의 성장 축으로 설정, 싱가포르의 역사, 예술, 정체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제시하고자 하여, 예술진흥을 위한 예산을 대폭 높이고 에스플라나드 (Esplanade) 공연장 조성과 같은 국제적인 시설과 네트워크 조성, 예술주택사업과 같은 공간의 새로운 활용에 대한 정책 수립 등의 현실화에 중점을 두었다.

다음은 ‘르네상스 시티 리포트’에서 밝힌 싱가포르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6가지 전략이다.

1. 우수한 예술과 문화 기반 형성

- 학생들에게 예술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창조적 생각을 하도록 도우며 예술교육 사업에 1년에 \$400,000을 추가로 투입
- 싱가포르 연구부서 나 프로그램 부서를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 (National

39)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2006) www.nac.gov.sg

University of Singapore)안에 두고 예술관련 수업을 제공

- 다음 5년 동안 \$500,000 을 NAC가 문화관련 리서치와 자료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투입

2. 주요 예술단체의 발전

- NAC 는 일 년에 추가 \$5 백만 을 차기 5년 동안 8개의 주요 예술단체에게 2년 주기로 예술단체들에게 지원
- 매년 \$200,000 을 예술 매니저나 경영자들에게 기술적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3. 재능 지원 정책

- 매년 \$300,000을 지역과 해외에서의 훈련교습을 통해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공
- ‘신 예술가 발견 정책 (New Artist Discovery Scheme)’을 만들고 초기 자본 \$200,000를 프로젝트 수행비로 연 투입함
- 수준급의 싱가포르 예술가나 예술단체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문화 대사로 인정하고 지원함. 일 년에 \$200,000 을 문화메달 (Cultural Medallions) 수여자의 프로젝트나 커미션 작품에 지원함
- 현재의 싱가포르 젊은이 페스티벌 (Singapore Youth Festival-SYF) 이 외국 학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가 되도록 업그레이드 함. 교육부와 청소년 위원회, NAC가 서로 협력하여 SYF가 젊은이들의 쇼케이스와 재능을 키우는 장이 되도록 함

4. 좋은 기반시설과 공간 제공

- 차기 5년에서 7년 동안 NAC의 성공적인 예술주택사업 (Arts Housing Scheme) 에 7,000스퀘어 미터를 더 포함한 아트하우징은 전략과 시스템을 적용

하여 문화 활동의 벨트가 되도록 함

- 차기 5년 동안 싱가포르가 필름작업의 편집 (post-production)의 지역 중심이 되도록 디지털 스튜디오와 일반 스튜디오를 포함한 필름생성 시설을 고려해 만듦
- 싱가포르 역사박물관 (Singapore History Museum)과 오래된 의회건물 (Parliament House)을 예술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퀸 스트리트 (Queen Street)는 갤러리의 거리로 발전시킴

5. 국제화로 가는 것

- 매해 추가 \$700,000을 예술가의 해외교류에 사용함
- 다른 나라와의 문화교류와 해외교류 프로그램, 문화 기관들과 파트너십 강화
- 해외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함

6. 예술과 문화 르네상스 경제의 발전

- 다양한 예술과 문화 활동 창출

연 \$1.5 백만을 추가 투여해 싱가포르 예술 페스티벌, 싱가포르 작가의 주간, 국제 피아노&바이올린 콩쿠르 등과 같은 이벤트 진행

Sculpture Biennale를 시작하고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조각관련 쇼케이스까지 각각의 Biennale에 \$500,000을 지원

공원음악회, 점심 음악회 등 아웃리치 프로그램 지원

- 강화된 예술 마케팅과 문화관광 (Cultural Tourism)

MITA는 Singapore Tourism Board 와 함께 일해 예술과 문화관광을 홍보해야 함

- 컨퍼런스, 컨벤션, 전시 유치,

- 해외 미디어, 여행 작가, 관광산업관련자들과 함께 일하며 예술과 문화 관광의 국제적 마케팅을 실시

-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공연과 전시의 온라인을 통한 예매시스템

예술마케팅 전략팀(Arts Marketing Test Force)을 결성하여 싱가포르와 해외의 보다 많은 청중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마케팅을 실시함. 차기 3년 이상 \$500,000을 시장조사, 마케팅 방법 및 기획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지원함

· 예술 스폰서를 위한 인센티브의 증가

세금 인센티브가 기업의 예술지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

싱가포르를 국제 예술 이벤트의 중심지가 되도록 함

국제 예술행사가 싱가포르에서 열리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해외 예술가나 예술단체, 제작자에게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제도 고려함

차기 3년 이상 \$500,000의 보조금액을 투여해 아시아의 공연예술마켓이 되어 주변 아시아 국가의 예술단체, 제작사, 페스티벌 관계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조직함⁴⁰⁾

2. 해외 음악 관련 단체의 다양한 기능

가. 음악 관련 단체의 유형

해외 예술 기관 중 음악을 전부 혹은 일부로써 다루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단체들을 아래의 네 가지 유형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네 가지 유형이란, 시설을

40) Renaissance City Report-Culture and the Arts in Singapore (2000)
<http://www.mica.gov.sg/renaissance/FinalRen.pdf>

보유하고 공연을 주 기능으로 하는 단체, 전문가 또는 일반인을 위한 음악 교육/훈련 기관, 복합음악공간, 음악가를 비롯한 예술가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단체 등이다.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로써 중복되는 기능을 갖는 단체도 있음을 알려 둔다.

<표 20> 해외 음악관련 단체의 유형과 단체명

단체의 유형		단체명
공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대형 공연장 Performing Arts Center	뮤직 센터(The Music Center, 미국) 에스플라나드(Esplanade, 싱가포르)*
	지역 문화센터 Cultural Arts Center	시카고 문화센터(Chicago Cultural Center, 미국)*
음악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지역 예술 학교 Community School of the Arts	폴린트 음악학교(Flint Institute of Music, 미국)
	연구 개발 단체 Research & Development	이르캄 (IRCAM, 프랑스)*
복합공간	복합음악공간	시테 드라 뮤직 (Cité de la Musique, 프랑스)*
예술가의 편의를 위한 단체	예술가 센터 Artists' Center	미국 작곡가 포럼(American Composers Forum, 미국)
	예술가 창작공간 Artists' Residency	맥도웰 콜로니(MacDowell Colony, 미국)* 다드 (DAAD, 독일)*
	예술가 정착단지 Artists' live/work	예술주택사업(Arts Housing Scheme) 및 예술벨트(Arts Belt) 조성사업(싱가포르)* 아트스페이스(Artspace Project Inc., 미국)
	예술 창업지원 Art Incubator	엔터지 센터(Enterger Arts Business Center, 미국)*

* '3. 해외 사례 연구' 참조

나. 공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1) 대형 공연장 (Performing Arts Center)

주로 콘서트와 오페라, 뮤지컬, 무용 등의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한 규모의 대형 공연장 및 콘서트 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속 오케스트라나 오페라, 무용 단체와 같은 상주 단체 (resident company 또는 partner)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단체들은 연주가, 공연 예술가들에게 일자리와 리허설/공연의 장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대상이 소수의 잘 훈련된 전문가들에게 국한되어 있으므로 다수의 예술가들을 위한 단체라고는 할 수 없다.

음악과 공연으로 특화된 대형 공연장의 예로서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뮤직센터’나 필라델피아의 ‘김멜 센터’ 등을 들 수 있다. 뮤직센터는 로스엔젤레스 필하모닉, 오페라, 합창단 등의 상주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3천석 이상의 공연장과 콘서트홀, 극장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 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에 파견할 예술가를 직접 선발하여 훈련하기도 한다. 어린 학생이나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다.

- Esplanade (싱가포르)
- Music Center (LA, 미국)
- The Kimmel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and the Academy of Music (필라델피아, 미국)
- Wolftrap (워싱턴, 미국)

(2) 지역 문화센터 (Cultural Center)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 공연, 미술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 장르의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서 대체적으로 콘서트홀, 극장, 갤러리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상주단체를 운영하거나 지역 오케스트라, 공연 단체 등과 파트너십의 관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공연을 개최하기도 한다. 지역예술기관에 의해 운영되기도 하고

사립 문화 재단이 설립/운영하기도 한다. 예술가들을 위한 교육,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일반인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미시간의 플린트 문화센터는 대공연장 와이팅 (The Whiting, 2000석), 플린트 음악 학교, 미술 학교, 청소년 극단, 슬로안 박물관, 뷰익 연구 센터 등 여러 장르의 다양한 기관이 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지역 문화센터이다. 그 중 플린트 음악 학교 (Flint Institute of Music)는 아래에서 살펴볼 ‘지역 예술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플린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며 와이팅에서 정기적인 콘서트를 열고 있다.

- Chicago Cultural Center (시카고, 미국)
- Strathmore (메릴랜드, 미국)
- Walker Art Center (미네아폴리스, 미국)
- Woodruff Arts Center (아틀란타, 미국)
- Flint Cultural Center (미시간, 미국)

다. 음악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

(1) 전문 음악가 훈련 과정 (Artist Training Institution)

전문 음악가 또는 연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 음악 교육과 훈련 기관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음악과 과정이 있는 대학들이 해당되며 그 외에도 많은 국립·공립·사립·개인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수업료를 내고 참석하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전문 예술가에게만 시간과 공간을 개방하며, 많은 경우 참가 자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요구한다. 규모가 큰 경우 자체 콘서트홀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주 단체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일반인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 The Royal Conservatory of Music – TELUS Center for Performance and Learning (토론토, 캐나다)

- Indian Hill Music (매사추세츠, 미국)
- Cleveland Institute of Music (클리블랜드, 미국)

(2) 지역 예술 학교 (Community School of the Arts)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의 예술교육 단체로서 예술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일반인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 예술 학교의 목적은 현역으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이 직접 가르침으로써 예술교육 수요자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 나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관심 있는 모든 지역 주민에게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일도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800개 이상의 지역 예술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 기준으로 317개의 학교가 13,000명 이상의 예술가들을 강사로 고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직접 공연장이나 스튜디오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역의 시설물 보유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단체마다 활동내용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예술 교육 학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며 예술교육을 주된 설립목적으로 한다.
- 현재 활동 중인 지역 예술가를 강사로 고용해서 수업한다.
- 적정한 비용의 수업료를 설정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재정적 도움을 주기도 한다.
- 지역의 다른 교육, 문화,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한다.
- 등록이나 입학은 수업 단위별로 일 단위, 주 단위 등 세분화되어 연중 어느 때나 참여할 수 있다.
-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다른 지역 단체의 시설을 빌려서 사용한다.

- Flint Institute of Music (미시간, 미국)
- Community Music Center of Boston (보스턴, 미국)
- FINN Center: Community School of Music & Arts (캘리포니아, 미국)
- The Music Academy of Rockford College (일리노이, 미국)

(3) 연구 개발 (Research & Development)

현대 음악과 뉴미디어에 관련한 연구와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음악 창작 활동을 한다. 일반적으로 최신 기술을 이용한 녹음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술가와 기술자의 협력 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작곡가, 연주가, 관련 기술자 등에게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작물의 발표를 위한 워크숍, 강의, 이벤트, 콘서트 등을 통하여 대중과 만남의 기회를 갖는다.

- IRCAM: Institute for Music/Acou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파리, 프랑스)
- ZKM - Institute for Music and Acoustics (칼스루이, 독일)

라. 복합음악공간

음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서 음악 교육, 연주, 정보 보관, 음악 유산 보존 등의 다양한 음악 관련 활동을 한다. 음악 교육 센터로서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강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콘서트홀을 통해서 연중 공연을 선보인다. 음악 정보 센터와 도서관을 운영하여 음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박물관을 통하여 음악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일을 한다. 음악 전용 공간으로서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 현재 음악가로부터 미래의 음악가, 아마추어로부터 전문 음악가, 일반 음악 애호가 -를 위한 활동을 한다.

- Cite de la Musique (파리, 프랑스)

마. 예술가의 편의를 위한 단체

(1) 예술가 센터 (Artists' Center)

예술가 센터란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교류하며, 작업하고,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아마추어 예술가, 전문 예술가, 예술 애호가를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한다. 예술가 센터가 다른 예술가 편의를 위한 단체와 구별되는 점은 함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 특히 많이 발달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첫째는 예술 장르별로 특화된 예술가 센터로서 작곡가, 화가, 사진가 등 전문 영역별 센터가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센터로서 다양한 장르의 특정 지역 예술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센터의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관심사로 모인 동호인 그룹을 위한 센터로서, 예를 들면 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센터, 공연과 미술의 만남을 위한 예술가 센터 등이 있다.

예술가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센터가 전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의 두 가지는 핵심 내용이다.

- 누구나 비용 없이 입장할 수 있는 ‘장소’를 예술 장르에 따라 또는 지역별로 또는 공동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따라 제공한다.
- 일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춘 회원으로 참여를 제한하기도 한다.
- 회원들의 관심사를 전하는 소식지나 다른 출판물을 발행한다.
-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성공적인 예술가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그들의 예술과 경력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필요한 도구나 리허설 장소를 빌려준다.
-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한다.
- 창작물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한다.
- 예술 관련 종사자, 자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시킨다.

- American Composers Forum (미국)
- New York Mills Regional Cultural Center (뉴욕, 미국)

(2) 예술가 창작공간 (Artists' Residency)

일반적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스 (Artists Residence)’라는 표현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일 때 사용된다.

첫째, 지역 예술 기관 또는 예술 단체와 지역의 여러 단체들 - 학교, 공원, 청소년 보호 기관, 교회, 병원 등 - 과 연계하여 예술가에게 일자리 또는 지역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 샌안토니오의 ‘교육안의 예술 (Arts-in-Education)’ 프로그램은 샌안토니오시 예술국에서 직접 예술가에게 80시간의 필수 교육을 실시한 후 지역 학교에 파견하여 교사들과의 협력 하에 진행하는 예술교육 과정이다. 이 경우 ‘레지던스’의 의미는 예술가의 지위로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용어 그대로 ‘체재’의 의미에 가까운 경우로 예술가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레지던스 외에 커뮤니티 (community), 콜로니 (colony), 리트리트 (retreat)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용어에 따라 단체의 성격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술가에게 새로운 작품을 위한 작업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창작 활동을 돕는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 살펴 볼 ‘아티스트 레지던스’는 이러한 의미의 ‘예술가 창작공간’을 말한다.

예술가 창작공간은 단지 개별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또는 경력의 예술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협력함으로써 작업을 격려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창작공간들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예술가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창작공간의 85% 이상이 워크숍, 전시, 발표회, 오픈 하우스 등의 이벤트를 활용하여 일반 대중과의 만남을 기획하고 있다.

예술가 창작공간은 미국에만 250여 곳과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국 200여 곳에

분포되어 있다. 참여할 수 있는 예술가들의 범위는 음악가 (주로 작곡가)로부터 화가, 작가, 공연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창작공간의 3분의 2정도가 장르에 제한 없이 예술가들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한해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숫자는 12,000여 명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체재비용은 단체에서 제공하거나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Macdowell Colony (뉴햄프셔, 미국)
- Omi International Arts Center (미국)
- CAMAC (프랑스)
- DAAD - Berlin (독일)
- Akiyoshidai International Art Village (AIAV, 일본)

(3) 예술가 정착단지 (Artists live/work)

예술가들이 모여서 주거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예술가 개개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예술가 정착단지의 본질이다. 정착단지는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에게 ‘장기적’이고 ‘적절한’ 비용으로 일상생활을 (때로는 가족과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작업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이다. 정착단지는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을 연결시켜 주는 통로의 구실을 하기도 하고 지역 회생 프로젝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성공적인 정착단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예술가 정착단지 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공고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정착단지가 있다. 해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도시 규모의 페스티벌 또는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하고 지역 예술 단체와 연결하여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갖기도 한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거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여 거주 및 작업 단지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우범 지역에 이러한 예술가 정착단지가 생기는 경우, 건물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범죄 감소의

효과도 있으며 지역 사회의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예술 교육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예술가 정착단지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은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비용이나 여타의 문제로 자주 거주지를 옮겨야하는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예술적인 주제로 부터 육아, 먹거리 등의 생활 일반적인 문제들까지 공동의 관심사로 의논하며 해결할 수 있다.

- Artspace Project Ico. (미네소타, 미국)
- Tashiro Kaplan Buildings (시애틀, 미국)
- Arts Housing and Arts Belt (싱가포르)

(4) 예술 창업지원 (Arts Incubator)

예술 창업지원은 규모가 작거나 새로 생겨난 예술 단체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이나 보조금에 의해 공간과 경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북미 지역에서 비즈니스 영역의 창업지원 제도는 1960년대 말에 탄생했지만, 예술과 관련된 창업지원은 그보다 20여 년 늦은 1980년대 말에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미국에서 예술 창업지원은 대부분 지역예술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의 형태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다음의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예술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예술 단체에게 저렴한 비용의 사무 공간을 제공한다. 둘째, 입주한 예술 단체들은 컴퓨터, 복사기, 팩스기 등 사무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 컨설팅과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술 창업지원은 예술 단체 또는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교환하고, 예술의 사업적 발전을 도모하는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 최초의 예술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시카고의 ‘아트 브리지’는 초기 예술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전문 경영 컨설팅 기업에 의해 탄생했고, 다른 단체들은 지역예술기관에 의해 설립되었다. 대부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몇몇 특정 장르의 예술 단체에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일정 기간

동안만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그에 비해, 뉴올리언즈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가장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함하면서 예술 단체 뿐 아니라 개별 예술가에게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단순한 공간 제공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 입주도 가능하다.

- The Arts Bridge Incubator Program (시카고, 미국)
- The Entergy Arts Business Center (뉴올리언즈, 미국)

(5) 기타

이상에서 살펴본 예술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은 창작, 거주, 사업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소의 제공 없이 예술가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단체로는 예술가 조합이나 트러스트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단체들은 취업을 위한 상담, 저작권 및 마케팅 관련 이슈, 보험 등 예술가 개인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위한 서비스를 주요 활동 내용으로 한다.

3. 해외 사례 연구

가. 쇼케이스로 활용하는 지역 문화센터-시카고 문화센터 (Chicago Cultural Center, 미국)

(1) 개관

시카고 문화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현재의 건물은 1897년에 시카고 시립 도서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졌다. 1977년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겸하는 건물로 다시 태어났으며 시카고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1991년 도서관의 이전 이후 시카고 문화국 (Chicago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의 사무실이자 시카고 문화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시카고 문화센터는 미국 최초로 자치 단체에 의해 설립된 무료 문화센터로서, 미국 내에서도 보기 드문 광범위한 예술 영역의 쇼케이스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한 해에 이루어지는 수백 가지의 공연과 전시는 모두 시카고 문화국을 통해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프로그램의 영역은 공연,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하다. 시카고 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은 일반 시민의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하는 데에 있다.

(2)재원 조성 및 운영 - 시카고 문화 재단 (Chicago Cultural Center Foundation)

시카고 문화 재단은 시카고 문화센터의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사적지인 문화센터의 건물을 보존하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무료 공연과 전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일반 시민, 기업, 다른 재단으로부터의 기금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시카고 문화국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 역할도 맡고 있다.

법인위원은 변호사, 문화국 행정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독 위원회에는 시의 지도층 인사들과 재단/기업 관계자, 시의 행정위원 등이 등재되어 있다. 매년 평균 백오십만달러 규모의 수입이 있는데 그 중 45% 정도는 개인, 기업, 재단 등으로부터 받는 직접 기부금 수입이며 35%는 정부 보조금, 15%는 장소 임대/판매 등의 매출 수입, 나머지 5%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회비로 구성이 된다. (2005년 세무신고서 기준 5년 평균)

일반 시민은 ‘모자이크 회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노인 회원 30달러로부터 최고 250달러에 이르는 연회비를 지불하는 형태로 회원 가입할 수 있다. 회원들은 센터로부터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으며, 회원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나 전시회에 초청받고, 주차비 할인, 센터 내 상점 할인, 관련단체 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린다.

(3) 시설

○공연장 Preston Bradley Hall 500석 규모의 콘서트홀 외

○극장 Claudia Cassidy Theater 294석 외

○전시장 Sidney R. Yates Gallery, Exhibit Hall 외 8곳

○댄스 스튜디오

•Dance Bridge - 원하는 단체에 무료로 댄스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 리허설, 워크숍 등을 허용한다.

(4)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음악영역은 클래식, 재즈, 세계음악, 민속음악, 팝, 성악 등이며, 공연으로는 고전연극으로부터 현대무용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토론, 강의, 여러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영화 상영 등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영역 또한 그림, 조각, 사진, 그래픽 디자인, 건축, 공예 등으로 다양하며, 국제적인 순회전시로부터 지역 예술가에 의한 단독전시 등이 제공되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중에 음악 프로그램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일 점심시간 공연 (Lunch Break Series): 월-금 매일 오후 12시 15분 공연

월요일 - Classical Mondays: 클래식, 챔버, 오페라 곡 등 소개

화요일 - Jazz, Blues and Beyond

수요일 - Dame Myra Hess Memorial Concerts:

젊은 클래식 연주가의 쇼케이스

목요일 - Daily Blend: 팝, 민속, 컨트리 등

금요일 - Music Without Borders: 세계 음악을 소개

•일요일 공연 시리즈 (Sunday Salon Series): 시카고 챔버 오케스트라, 클래식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의 지속적인 공연

•새로운 음악 시리즈 (New Millennium/New Music): 매월 열리는 단독 공연으로 초청 아티스트 또는 지역 음악가의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는 자리

•시카고 문화센터 제공 시리즈 (Chicago Cultural Center Presents): 매월 열리

는 쇼케이스 시리즈로 관객과 만남의 기회가 적은 음악가들을 소개하는 자리

- 라이브 음악 (Live Music Now!): 국제 음악 재단에서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문화의 클래식부터 현대 음악까지 소개
- 세계 음악 축제 (World Music Festival Chicago): 매년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열리는 축제로 시카고 주변의 다양한 세계 음악을 알리는 행사
- 성악 시리즈 (Vocal Journeys): 오페라, 가곡, 민속음악, 성악 앙상블 등 클래식 성악가들의 공연

지역 음악인이란 누구냐 신청을 통해서 시카고 문화센터에서 공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공연의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을 위해서는 보도 자료, 데모 테이프 또는 CD, 사진, 약력, 기사 자료 모음, 공연 경력 등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⁴¹⁾

나. 예술과 관객이 만나는 예술 공간

-에스플라나드(Esplanade-Theatres on the Bay, 싱가포르)

(1) 개관

싱가포르에 위치한 에스플라나드 (Esplanade) 공연장은 1970년 문화도시로의 발돋움 위한 정책의 하나로 구상되어 1987년 설계 초안이 나왔다. 1990년 조성위원회를 구성해 1992년에 싱가포르 아트센터 (Singapore Arts Centre Co Ltd.)를 발족하였고 1996년 공사의 첫 삽을 떠 마침내 2002년 12월 'Esplanade-Theatres on the Bay'로 정식 오픈하였다. 에스플라나드는 싱가포르 최고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 (Bay)에 근처하고 있어 공연과 미술전시의 예술 공간이자 관광객과 싱가포르인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41) Chicago Arts Center(2006) www.cityofchicago.org

(2) 시설

전체 6헥타르(ha)의 부지에 두 개의 조개가 놓여있는 모습을 한 유럽스타일의 오페라극장을 연상하는 건물로 주변에는 시티 쇼핑몰, 컨벤션 센터, 마리나 야외 공원 등을 갖춘 싱가포르의 복합 명소로 조성되었다. 1,600석의 콘서트홀과 2,000석의 극장이 주축이 되고 그 외 220석의 소극장, 250석의 리사이틀 스튜디오, 야외공연장, 3개의 연습시설, 전시관, 예술가 라운지, 싱가포르 최초의 공연예술 자료실 및 도서관 (Library@Esplanade) 등이 구비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4,000여 평의 다양한 쇼핑 시설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패션, 캐릭터, 공예품 나아가 사우나까지 공연장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 시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인 문화시설을 지향하지만 소극장 및 전시장은 싱가포르의 새로운 젊은 예술가들에게 할애하는 한편 전문도서관을 통한 교육 및 쇼핑 기능은 시민들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공간임을 알게 한다.

(3) 프로그램

에스플라나드에서는 연중 약 2,000여 회의 공연이 전개되는데 이 중 1,200여 회의 공연이 무료로 진행된다. 세계 최고 공연단의 유료 공연도 기업의 후원으로 일정부분은 지역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민족의 명절이나 축제일에는 이곳에서 공연과 전시 등을 전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연중 민속축제 일정동안에는 모든 종파와 민족이 자국의 민속공연을 펼치며 그야말로 축제의 장으로써의 기능을 백분 발휘한다.

그 외 아시아 아트 마트 (Asian Arts Mart) 가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의 공연문화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인을 위한 것과 공연관련 전문가 양성 두 개로 나뉜다. 일반인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어린이들에게 예술을 통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18개월부터 9세까지 유아를 위한 ACTphabets이라는 드라마 예술교육이 있고 DXO 댄스수업, 어린이를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공연과 극장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극장관련 일반지식을 쌓기 위한 기본 수업과 전문화된 수업으로 나뉜다.

○Technical Theatre Programmes (극장 기술 프로그램)

○Foundation Course in Technical Theatre (극장 기술 입문 수업)

- Introduction to Technical Theatre (극장 기술 입문)
- Fundamentals of Stage Management (무대 경영 기초)
- Fundamentals of Stage Lighting (무대 조명 기초)
- Fundamentals of Performance Sound (공연 음향 기초)

○Esplanade Technical Theatre Specialist Programme (ETTSP) (극장 기술 심화 프로그램)

- Rigging for the Entertainment Industry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위한 장비)
- Role of a Master Electrician (전기 담당자의 역할)
- Role of a Production Manager (프로덕션 매니저의 역할)
- Supervising Safely in Theatre (극장 내 안전 감독)
- Working Safely in Theatre (극장 내 안전 근무)

(4) 운영

국제성과 지역성의 동시 만족이라는 하나의 큰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데에는 이곳의 독특한 운영시스템이 한몫을 한다. 국가가 건립하였지만 철저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에스플라나드는 벤슨 푸라는 호텔 매니저 출신 CEO를 영입, 설계와 운영 방향 등을 설립하는 데에 많은 영향력을 부여하였다. 이곳의 모든 예산 내역은 수시로 인터넷과 책자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만하다.

공연장 등 시설 임대와 각종 이벤트를 통한 수입이 전체의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각종 쇼핑몰 등의 임대수익이 27%, 티켓은 단 17%로 수입의 12%

를 차지하는 기업 스폰서와 기부의 역할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42)

다. 전문음악훈련과정-텔러스 센터 (The TELUS Centre, 캐나다)

(1) 개관

텔러스 센터는 캐나다 토론토의 로얄 음악원 (The Royal Conservatory of Music)이 2007년도에 확장 이전 할 새로운 공간의 이름이다. 로얄 음악원은 1881년에 지어진 현재의 건물에 1963년 이전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나, 음악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대로 인해 새로운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새로운 21세기의 문화,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Building National Dreams’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음악원의 예술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텔러스 센터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캠페인은 캐나다 정부 및 온타리오 주정부의 지원과 기업, 개인의 기부금 수입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로얄 음악원은 1886년 미국 태생의 오르간 연주자 에드워드 피셔 (Edward Fisher)에 의해 설립된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독립 음악 교육원이다. 토론토 음악원으로 설립된 초기에는 성악가와 연주자의 훈련을 위한 교육원의 역할을 하였다. 이후 RCM은 빠른 발전을 거듭하며 캐나다의 중요한 음악 교육원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글렌 굴드 (Glenn Gould)를 비롯한 유명한 캐나다 음악인들을 배출하였다. 1947년 왕실로부터 왕립 (Royal) 지위를 부여받아 현재의 음악원 명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설립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나, 음악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함없이 ‘음악과 예술 교육을 통해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2) 로얄 음악원 (RCM) 프로그램

○The RCM Community School

음악원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음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연령과 레벨의

42) 에스플라나드(2006), www.esplanade.com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음악 교육 과정이다. 악기 연주 실기부터 음악 이론까지 실용적인 음악 교육과 개인 레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음악원의 연주 공간을 이용하여 발표의 기회도 갖는다.

○The Glenn Gould School

1997년 설립된 대학 과정이상의 전문 음악 교육 학교이다. 학생들에게 일 년에 80회 이상의 공연 기회가 주어지며, 졸업 이후 전문인으로서의 진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The Young Artists Performance Academy

9세부터 18세 사이의 재능 있는 학생 연주자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진행된다.

○Learning Through The Arts (LTTA)

예술 행위를 도구로 한 일반 교과 과정의 학습 방법으로, 일반 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공된다. 그리기, 노래하기, 춤추기, 이야기 만들기 등을 통해 예술 교육 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언어, 사회 과정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RCM Examinations

북미 지역 300여개의 지사를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고 인증서를 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건반, 현악, 관악기를 비롯하여 성악부문까지 실기능력 평가와 음악사, 분석 등 이론능력 평가로 나뉘어 있으며 한해 국제적으로 십만 여 명의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3) 텔러스 센터 (The TELUS Centre for Performance and Learning)

텔러스 센터는 9천2백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공사 중에 있으며, 음악원의 교육적/예술적 목적에 부합하고 21세기형 멀티미디어 요구에 걸 맞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시설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 로얄 음악원의 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 공립학교 프로그램, 공연, 평가 프로그램, 출판 등의 모든 활동을 확장 전개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센터의 새로운 다목적 홀과 방송 센터를 통해서 음악원의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캐나다인의 문화 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텔러스 센터의 명칭은 캐나다의 통신 대기업이자 센터 설립 캠페인에 1천만 달러의 초기 설립기금을 기부한 텔러스 기업 (TELUS Corporations)로부터 유래되었다. 센터 설립 캠페인을 통하여 2002년 이후 현재까지 7천 3백만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최종 기금 목표액은 1억 1천만 달러이다. 센터 설립의 주요 재원은 캐나다 정부, 온타리오 주정부와 같은 공공 기관의 보조금과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Legacy (5백만 달러 이상), Founders Circle (2백5십만~5백만), Landmark (1백만~2백5십만), Leadership (5십만~1백만), Premier (1십만~5십만), Patron (1만~1십만)으로 나뉘어 있다. 기부 금액이 큰 경우 센터의 시설물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4백만 달러를 기부한 커너 (Koerner) 부부의 성을 명명한 커너 콘서트홀과 기업으로는 캐나다의 시멘스 회사명을 사용한 시멘스 홀 등이 있다.

(4) 시설

○공연장

•Koerner Hall - 1140석의 콘서트홀로 클래식, 재즈, 팝, 오페라 등 전 음악 장르의 공연뿐 아니라 영화 상영, 강연, 컨퍼런스 등의 이벤트를 위한 다목적 홀로 설계되었다. 콘서트홀은 2008년 초에 오픈하며 로얄 음악원 오케스트라와 글렌 골드 스쿨, 커뮤니티 스쿨에서 주로 사용할 예정이고 음악원의 파트너 단체인 오페라 아뜰리에, 토론토 국제 영화 축제, 토론토 어린이 합창단 등이 함께 이용하게 된다.

•Siemens Hall - 150석 정도까지 조정 가능한 공간으로 프로젝션, 시청각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컴퓨터 연결 시스템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실험적 음악과 젊은 작곡가의 새로운 시도의 공연 장소로 이용할 뿐 아니라 로얄 음악원 오케스트라와 학생들의 리허설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Mazzoleni Hall - 237석 콘서트홀로 로얄 음악원의 현재 건물에서 사용 중인 공연장이다.

○교육 시설

•스튜디오 - 다양한 규모의 스튜디오 60실이 새로 건축되고 있으며 기존 음악원 건물에 17실을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스튜디오는 다양한 규모로 지어지며 모두 원목 바닥, 방음 시설, 컴퓨터 연결 시설 등이 설치된다.

•교실 - 기존 음악원에 있는 15실 외에 5실의 새로운 교실이 텔러스 센터에 지어진다.

•도서관 - LP, CD, 악보, 관련 서적 등을 보관한다.

•미디어랩 - 학생들에게 편집, 믹싱 등 관련 기기를 제공한다.⁴³⁾

라. 음악과 과학의 공동 연구 개발-이르캄 (IRCAM, 프랑스)

(1) 개관

이르캄 (IRCAM, Institute for music/acoustic research and coordination)은 음악과 음향학의 연구와 협조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1969년 조르쥬 폼피두 (Georges Pompidou)의 제안으로 작곡가 피에르 불레즈 (Pierre Boulez)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의 목표는 음악의 세계에 과학을 접목시킴으로써 음악 언어를 확장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197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컴퓨터 음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해를 거듭하면서 대상 예술 영역과 대중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으며 최근의 경향은 기술 연구와 예술 창작의 조화로운 공동 작업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 과학적인 연구에 의한 기술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해 작곡가에게 새로운 창작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음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단체의 목적이다.

(2) 조직 구성과 활동 내용

43) The TELUS Centre for Performance and Learning(2006), www.rcmusic.ca

○연구 개발 (Depart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들을 음악에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하는 기관의 핵심 부서이다. 열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향, 음향기, 신호체계, 컴퓨터, 인지심리학, 음악학 등 음악 창작과 관련된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팀은 연구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 연구 결과의 확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창작과 확장 (Department of Creation and Diffusion)

이르캄의 모든 연구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음악 창작의 발전에 있다. 이 부서는 예술기획 (The Artistic Direction)과 제작서비스 (The Production Service)의 분야로 팀을 이원화해서 작곡가들의 음악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연주자들의 공연을 기획한다. 두 팀 모두 기관내의 연구, 개발, 교육 부서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한 아티스트 지원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무용, 연극, 서커스, 영화 등 다른 예술 영역에서의 기술 접목을 위한 연구도 시도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도서관 (Department of Multimedia Library)

음악 서적, 악보, 음악 관련 잡지로부터 작곡가 분석, 음악 해석 등의 전문 내용과 멀티미디어 리코딩 자료 등의 다양한 리소스 센터이다.

○교육 (Department of Education)

이르캄은 전통적인 음악 영역 - 작곡, 악기 제조, 해석과 분석 등 - 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확장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연구 결과물들을 작곡가, 연주가, 공연 예술인, 교육자, 음향기술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년 과정의 ‘작곡과 컴퓨터 음악 프로그램’은 일 년의 기술적인 교육과 나머지 일 년의 창작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전문가를 위한 심화 프로그램, 일반 대중을 위한 워크숍, 심포지움, 세미나, 국제 강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음악 통합 연구 (Department of Coordination of Scientific and Musical Research)

이 부서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음악적인 연구 결과의 생산적인 협력을 창조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관 내에서의 협력 뿐 아니라 외부의 파트너와도 협력한다.

(3) 프로그램

○콘서트

스튜디오 상주 작곡가와 학생들의 작품 발표, 외부 작곡가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공연이다.

- 이르캄의 2006/2007 시즌은 Cursus (2년의 작곡/컴퓨터 프로그램 과정) 학생들의 공연으로 막을 연다. 젊은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예술적 감성을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클라리넷, 첼로, 비올라, 벤조, 성악 등 여러 가지 악기와 도구를 이용해 발표한다.

○작곡가를 위한 프로그램

작곡가들은 이르캄을 통해 창작 또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창작을 위해 선발된 작곡가들은 기관 내 음악 보조원과 사운드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작곡활동을 할 수 있다. 담당자들은 작곡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연구 개발 부서의 새로운 기술을 프로젝트와 적절히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창작 활동 외에 작곡가, 연구자, 음악 보조원이 함께 구성원을 이루는 여러 그룹이 음악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⁴⁴⁾

마. 복합음악공간-시테 드 라 뮤지크 (Cité de la Musique, 프랑스)

44) IRCAM (Institut de Recherche et Coordination Acoustique/Musique)(2006), www.ircam.fr

(1) 개요

프랑스 문화부와 파리시가 운영하는 모든 대중을 위한 모든 장르의 음악 공간인 시테 드 라 뮤지크 (Cité de la Musique)는 파리북부의 빌레뜨 공원 (parc de la Villette)에 위치하고 있다. 프랑소와 미테랑 (François Mitterrand)의 마지막 문화적 포부를 재현한 시테 드 라 뮤지크는 1995년 1월 개관하여, 음악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세계로 초대한다. 교육의 장소(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학습활동), 음악연습실, 자료실, 그리고 국가보물 발견의 장소로서, 시테 드 라 뮤지크는 모든 대중(음악 애호가, 청소년, 예술가, 예술지망생, 음악 아마추어, 그리고 음악 전문가들)을 위한 공간이다. 시테 드 라 뮤지크는 이러한 의지 하에, 공연장, 박물관, 기획/영구 전시, 자료실,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출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시테 드 라 뮤지크를 설계한 프랑스 건축가 크리스티앙 드 포장박 (Christian de Portzamparc)은 이 프로젝트의 포괄적인 의미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하나의 작은 마을을 설계하듯 서로 다른 기능의 다양한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열린 복도와 채광을 이용하여 조화롭게 연결하여 나간다. 부피감, 리듬, 그리고 뉘앙스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하여 건축과 음악의 대화의 장을 열어감으로써, 시테 드 라 뮤지크의 복합적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부각시킨다.

(2) 시설

○공연장

앙상블 인터컨템포러리 (Ensemble Intercontemporain)은 1976년 문화부 비서관 미셸 기 (Michel Guy)의 지지 피에르 불레즈 (Pierre Boulez)가 창단한다. 앙상블은 유일한 음악인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20세기부터 오늘날까지의 현대음악을 사랑하는 31명의 솔리스트들로 구성되어 왔다. 지속적인 그룹을 형성하여, 그들은 앙상블이라는 형식을 유지하면서 음악을 전파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디렉터 수잔나 말키 (Susanna Malkki)의 지휘 하에 작곡가로서 악기의 기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음악과 무용, 연극, 영화, 비디오, 순수미술과 같은 다양한 장르

와의 교류를 시도한다.

한편, 1995년 개관 이후의 대부분의 콘서트는 녹음되어있다. 이는 바로크 음악, 고전주의, 현대, 재즈, 세계음악, 그리고 음악박물관의 악기들로 연주된 콘서트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녹음된 콘서트는 오늘날, 400개의 오디오 카세트와 200개의 비디오로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으며, 일부는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도 있다. 이 자료들은 매년 150개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박물관

음악박물관에 영구 보전된 컬렉션은 3,000m²의 공간에 사회적이고 미학적인 컨텍스트 (context) 안에 진열되어있으며, 그 숫자는 1,000점 (악기, 회화, 조각, 가구)에 다다른다. 음악 그 자체도 이 전시물들에 포함되는데, 관람객은 헤드폰을 착용하고 진열되어 있는 악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초대된 연주자들의 제안에 따라 연주된 즉흥곡들은 이 컬렉션에 살아있는 생동감을 전달한다.

9개의 전시실은 음악 역사의 주요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분리되었다. 개개의 공간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악기를 중심으로 하여 완성된다. 동시에, 초보자들을 위하여 유리전시관들은 같은 계열의 악기들로 분리하여 전시한다.

복합적인 음악계의 특성과 역사적 컬렉션의 보전의 필요에 입각하여, 박물관은 대중, 역사가들, 음악가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대화의 장을 기획한다. 이는 건설적이고 개방적인 방법을 가지고 음악과 미술을 접목하고 국가유물의 실용적인 실험을 지향하고 악보와 음악기기의 이론적이고 기능적인 연구 (예: 대담, 학습 포럼, 영화, 콘서트, 콘서트 산책과 녹음 프로그램)를 함목시킨다.

○자료실

시테 드 라 뮤직 자료실은 음악뿐만 아니라, 무용과 공연들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자 (학교선생, 교수, 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악보 (25,000부), 음악관련 서적 (2,600권), 무용관련서적 (2,000부), 등 음악에 관련된 다양한 서적과 잡지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음악교사들을 위하여 음악연주기법 서적 (1,000부), 유아오페라서적 (400부), 음악교육서적 (1,000부), 비디오테이프 (600부) 등을 보유하고 있다.

(3) 프로그램

시테 드 라 뮤지크의 프로그램은 공연장, 박물관, 자료실을 기반으로 일반인을 위한 취미프로그램,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전문인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로 다른 위의 세 기관은 협업을 통하여 대중들을 음악의 세계로 끌어들이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인들이 협업하고 연구할 수 있는 창조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박물관 견학

다양한 각도의 관심사에 따라, 일반견학, 역사견학, 장애인을 위한 견학, 우화견학, 놀이견학, 아뜰리에 견학과 같이 분류하여, 일주일 동안 다른 시간에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주/공연 참가

파리 오케스트라나 앙상블 인터컨템포러리를 초청하여 청소년, 음대 지원자,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뜰리에

‘음악의 발견’, ‘전통음악’, ‘악기의 구조’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초적인 타악기의 소리, 민속음악과 제삼세계 음악세계, 악기의 발전과정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아뜰리에를 운영하고 있다.

○대담

‘작가와의 만남’, ‘청각의 열쇠’, ‘대담과 포럼’, ‘전문인들의 만남’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반인과 전문인의 만남, 대담과 토론, 전문인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다.⁴⁵⁾

45) Cite de la Musique(2006), www.cite-musique.fr

바. 작곡가를 위한 아티스트 센터-미국 작곡가 포럼 (Meet the Composer, 미국)

(1) 개관

미국 작곡가 포럼은 1973년 작곡가 스테픈 폴러스 (Stephen Paulus)와 리비 라센 (Libby Larsen)에 의해 미네소타 작곡가 포럼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미국 전역의 작곡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설립 당시의 목표는 작곡가들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작품 의뢰, 발표 등의 기회를 넓히는 데에 있었다. 현재도 포럼의 주요 목적은 작곡가를 지원하고 그들의 음악이 더 많이 들려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작곡가들의 전문적/예술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음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차세대 음악가를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스턴과 뉴욕의 지부가 1995년 설립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 내 대도시에서 9개의 지부를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7개의 지부만 운영되고 있다. (미네소타, 로스앤젤레스, 뉴잉글랜드,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2) 프로그램

○작곡

개인으로부터 작곡을 의뢰받아 회원 작곡가와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부터 NEA와 공동으로 주관한 작곡가들의 지역 파견 활동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작곡가들에게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넓혀 주고 있다.

• Continental Harmony Millennial Celebration 프로젝트

포럼과 NEA가 공동 주관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이다. 미국 전역에서 참가 의향이 있는 58개 커뮤니티를 선정한 후 작곡가들에게 관심지역에 신청을 하게하고 각 지역에서 직접 프로젝트에 적합한 작곡가를 선발하여 공동 창작 작업을 한 사업이다. 참가 작곡가들은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음악적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며, 경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작곡의 창조적이고 고무적인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에 따라 2005년까지 연장하여 작곡가와 지역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였다.

○지역 파트너

특정 지역의 파트너와 연계하여 작곡가들에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다.

• Viva Voce

조지아 주의 작은 마을에서 전통 있는 여름 캠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새로운 음악 프로그램을 지역 여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합창 수업 뿐 아니라 작곡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지역 주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 Composers in the School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작곡가들이 진행하는 음악 수업이다.

○공연

작곡가들에게 새로운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여러 가지 형식과 무대를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Art Song

매년 열리는 경연 대회로서 선발된 작곡가들의 곡은 성 바오로 여름 음악 축제(Saint Paul Summer Song Festival)를 통해 발표된다. 일등 당선자에게는 1천 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 Encore

작곡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그들과 작업한 경험이 없는 연주자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 후원 프로그램이다. 후원 금액은 공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와 연주 단체는 함께 신청할 수 없다.

○회원 워크숍 (Workshop)

회원 작곡가들의 전문적인 개발을 위해 재무 경영, 예술 장르 간 교류, 기금 신청 작성법, 저작권 등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상담을 해준다. 지부에 따라서는 방문 작곡가와의 만남, 지역 앙상블과의 오픈 리허설 등을 열기도 한다.

○펠로우십 (Fellowship)

미네소타 지역 맥나이트 재단 (McKnight Foundation)에서 지역 작곡가를 후원하는 제도이다. 한 해 네 명의 미네소타 지역 작곡가를 선정하여 각 2만 5천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악기구입, 여행, 개인연구 등 후원금의 사용에 제한이 없다. 단, 학교, 지역 단체 등에서의 예술 교육 등 레지던스 활동을 장려한다.⁴⁶⁾

사. 아티스트 레지던스-맥도웰 콜로니 (MacDowell Colony, 미국)

(1) 개관

맥도웰 콜로니는 1907년 작곡가 에드워드 맥도웰 (Edward MacDowell)과 부인 마리안 맥도웰 (Marian MacDowell)에 의해 설립된 미국 최초의 예술가 창작공간 (Artists Residence) 중 한 곳이다. 동북부 뉴햄프셔 주 피터보로에 위치해 있으며, 약 450에이커의 숲속 공간에 32개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맥도웰 콜로니의 설립 목적은 재능 있는 예술가들에게 창조적인 영감을 주는 최적의 작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올해로 꼭 100년이 된 이 단체는 그동안 5,800여명의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후원해 왔다. 한 해에 약 250여명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예술가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2주에서 2개월에 걸쳐 개인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하며 숙식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은 단체에서 지불한다. 약 2천5백만 달러의 기금을 운영 중이며 기금 운영 수익과 캠페인을 통한 후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순수 예술가들을

46) American Composers Forum(2006), www.composersforum.org

지원해 온 공로로, 1997년에 국가에서 수여하는 ‘국립 예술상 (National Medal of Arts)’을 수상했다.

(2) 후원 예술 영역

지난 일 년 (2005년 4월 ~ 2006년 3월) 동안 1,720여명의 예술가들이 신청을 했으며, 그 중 미국 내 32개주와 해외 11개국에서 238명이 선발되어 콜로니에 머물렀다. 선발된 예술가들의 예술 장르와 참가자 수는 작곡가 28명, 건축가 7명, 영화 27명, 극작가 13명, 미술 36명, 문학 110명, 기타 17명이다.

(3) 재원 조성

맥도웰 콜로니에 체재하는 예술가에게는 펠로우십 형식으로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데 주요 펠로우십의 재원으로는 매년 지원되는 후원금과 (annual fellowship) 기금 형식으로 적립되어 있는 후원금의 (endowed fellowship) 운영 수익이 있다. 또한 스튜디오의 유지/운영을 위한 후원금과 기금도 (annual and endowed studio maintenance grants)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콜로니에 기부하는 개인/기업/재단 등은 개인 또는 단체의 지원 목적에 따라 후원 예술장르, 예술가, 프로그램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회계년도 2005-2006년 한 해 동안 1백만 달러 이상이 53가지의 예술가 지원 펠로우십과 11가지의 스튜디오 지원기금 형식으로 기탁되었으며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Geraldine R. Dodge Foundation Fellowship (annual) - 2000년부터 매년 뉴저지 주 출신의 예술가를 지원하는 재단 후원금이다.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Fellowship (annual) - NEA에서 매년 맥도웰 콜로니에 참가하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후원금이다.
- Bill and Maria Spears Fellowship (annual) - 개인의 이름으로 참여 작곡가를 후원한다.
- Philip Morris Company Fellowship (endowed, 1991년) - 필립 모리스사에서 1991년 기금을 적립하여 문학 부문의 예술가를 후원한다.

•Omicron Studio - 오미크론 스튜디오는 1927년 국제 음악 클럽인 텔타 오미크론의 회원들의 후원으로 지어진 작곡가용 스튜디오의 이름이다. 텔타 오미크론 재단은 1996년 스튜디오의 그랜드 피아노를 교체하기도 하였으며 2005년에는 매년 스튜디오의 보수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기부하였다.

(4) 참여 작곡가와 활동 내용의 예

- Robert Carl (미국) - 스트링 콰르텟 ‘The Wind’s Trace Rests on Leaves and Waves’ 작곡, 피아노 연주곡 ‘Shake the Tree’ 완성
- Silvia Fomina (독일) - 오페라 ‘Chess’의 일부인 ‘Coda’ 작곡, 2007년 맥도웰 콜로니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Time and MacDowell Polyphony of a Century’ 작업 시작
- Lucio Gregoretti (이탈리아) - 이탈리아에서 초연 예정인 오페라 ‘L’Ultimo Avventore’ 작업 지속

(5) 시설 - 32개 스튜디오

스튜디오는 각각 별도로 독립된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화 연결이 되어있지 않고 침실도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어 있다. 작곡가를 위한 스튜디오에는 피아노와 책상이 제공된다.

(6) 프로그램

예술가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없으며, 작품의 구상, 개발, 결실의 어느 과정에서든 머물면서 개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원하는 예술가에게 한해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맥도웰 다운타운’과 ‘학교안의 맥도웰’을 들 수 있다.

○맥도웰 다운타운 (MacDowell Downtown)

2002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피터보로 역사회’, ‘새론 아트 센터’ 등 지역

예술 단체와 연계하여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오픈 스튜디오’ 형식으로 - 집필 중인 작품의 낭독, 리사이틀, 영화 상영 등 - 작품 발표회를 갖는다. 지역 신문사에서 매월 지면을 통해 공지하며,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된다.

○학교안의 맥도웰 (MacDowell in the Schools)

1996년 시작되었으며, 지역 공립학교에 예술가들이 방문하여 그들의 예술 영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학생들과 만나는 프로그램이다.⁴⁷⁾

아. 아티스트 레지던스-베를린 예술가 창작공간 (DAAD, 독일)

(1) 개관

베를린 예술가 창작공간 (Artists-in-Residence) 프로그램은 1963년 포드 재단 (Ford Foundation)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독일의 다드 (DAAD - 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 Dienst)가 이어받아 1965년 베를린에 정착하였으며 독일 외무부와 의회가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 해 15~20명 정도의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젊은 조각가, 화가, 작가, 작곡가, 영화제작자들이 초청되어 베를린에서 6개월 또는 1년간 체재하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930여명의 예술가들이 거쳐 갔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현대 예술을 베를린에서 소개하는 역할을 해왔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서로 다른 나라의 예술가들이 모여 그들의 예술적 경험과 현재 문화적 이슈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돕고자하는 것과 자유로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지 예술가들이 베를린에서 생활하며 작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예술가와의 만남 등 지역 문화 단체와 연계한 각종 이벤트를 통해 현지 문화생활에 융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참여 예술가들의 많은 수가 기간 이후에 독일에 남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예술 교류를 전개한다.

47) MacDowell Colony(2006), www.macdowellcolony.org

(2) 선발과정과 지원내용

체재를 원하는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담긴 사진, 녹음테이프, CD, 악보, 비디오테이프 등을 신청서와 함께 보내야 하며 신청 예술가들은 국제적으로 조직된 심사관의 판정을 거쳐 선발 초청된다. 심사관들이 직접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를 공동 제안 형식으로 초청하는 경우도 있다. 초청된 예술가들은 원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으며 체재와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작업에 필요한 스튜디오를 제공받는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세를 포함한 월별 생활비

○여행 경비 (가족 포함)

○건강/상해 보험

○어학연수

(3) 음악/작곡가 프로그램

음악 분야의 예술가 초청 기준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큰 영향력이 있는 혁신적인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초청 작곡가 명단 중에는 윤이상도 포함되어 있다. 80년대 이후에는 전자 음악과 공연 예술계의 작곡가로 영역이 넓혀져 왔다.

○60-70년대 초청 음악가

Gyorgy Kurtag, Krzystof Penderecki, Gyorgy Ligeti, Isang Yun, John Cage, Morton Feldman 등

○80년대 초청 음악가

Luigi Nono, Bill Fontana, Shelley Hirsch, Fatima Miranda, David Moss, Gordon Monahan, Sainkho Namtchylak 등

초청 작곡가들은 ‘작곡가의 초상’이나 ‘초상 콘서트’ 등을 통해 대중에 소개되기도 했는데 지나치게 실험적인 작품의 성격 때문에 일반적인 공연 형식을 통한

발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82년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Inventionen’ 축제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전자 음향 음악,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장르 통합 공연 등을 선보여 왔다.

또한 미국 작곡가 에드가드 버리스 (Edgard Varese)의 이름을 딴 초청 교수제 (Guest Professorship)를 베를린 기술 대학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에드가드 버리스 초청 교수제도는 특히 미디어 기술과 예술의 관계, 전자 스튜디오와 음악의 관계를 관심 주제로 삼고 있다.⁴⁸⁾

자. 아티스트 레지던스-예술주택사업 및 예술벨트 조성사업 (Arts Housing Scheme & Arts Belt, 싱가포르)

(1) 개요

세계적인 예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1991년 설립된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NAC, National Art Council)는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이 시민들의 삶에 필수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술의 생활화를 지향한다. ‘예술 클러스터 (Cluster) 개발’을 전략으로 삼고 있는 예술위원회의 대표적인 예술지원사업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예술주택사업(Arts Housing Scheme)’과 이를 통한 ‘예술벨트(Arts Belt) 조성사업’이다.

예술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은 예술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1999년의 경우 예술위원회에서 298만 달러를 예술가를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였고, 319만 달러는 ‘예술주택사업’ 하에서 건물 임대 보조금 등으로 지출되었다.⁴⁹⁾

1985년부터 시작된 예술주택사업은 예술단체나 예술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편안한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예술센터 기능을 하는 아트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예술가들의 창작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설

48) 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 Dienst(2006), www.daad-berlin.de

49) 고영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0), “‘젊은 땅’ 싱가포르와 문화사랑”, 『문화도시문화복지』 제86호

립되었다.

(2) 개관

○예술주택사업

예술주택사업은 총 3단계를 거쳐 진행되어 왔는데 1단계는 폐건물의 활용단계, 2단계는 잊혀진 지역 재생단계, 3단계는 커뮤니티 센터 결합 및 예술벨트 조성단계 이다.

•1 단계 (1985~1991년)

폐교가 된 초등학교 등 폐건물을 활용하여 스탬포드 아트센터 (Stamford Art Center) 등 총 7개의 예술주택이 마련됨

•2 단계 (1992~1994년)

NAC와 도시개발공사 (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의 공동조사를 통해 오래된 건물과 상점, 창고, 방갈로 등 잊혀진 지역의 공간들을 재생하여 셀레지 아트센터 (Selegie Arts Center) 등 총 7개의 예술주택이 조성됨

•3 단계 (1995년 이후)

- NAC와 지역커뮤니티 센터가 합작하여 오래된 교회와 창고, 상점 등을 활용하거나 신규 조성해 조각광장 (Sculpture Square Ltd) 등 총 7개의 예술주택과 워털루 예술벨트, 차이나타운 예술벨트, 리틀인디아 예술벨트 등 세 개의 예술벨트가 형성됨으로써, 예술이 시민 및 지역과 보다 밀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예술벨트

•워털루 예술벨트

도심에 위치하였으며 음악, 무용, 연극, 조각, 비주얼 아트(사진, 서예) 등 5개 분야의 단일임대형 예술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차이나타운 예술벨트

전통중국 오페라, 중국문학, 중국서예, 음악, 연극 등과 관련된 예술가와 단체들

이 입주해있음

•리틀인디아 예술벨트

가장 나중에 조성된 예술벨트로 댄스, 연극, 비주얼 아트, 말레이 드라마 등과 관련된 예술가 그룹들이 입주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3)운영

이 사업은 NAC와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 (SLA, Singapore Land Authority) 등 3개 정부기관의 파트너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적합한 후보지 조사 및 개발을, 토지공사는 예술주택의 임대 및 관리를, NAC는 예술가나 단체의 신청 접수 및 선정과 임대료의 90%를 보조한다.

예술주택의 신청자격은 아마추어나 전문가로 등록된 모든 예술가와 비영리 예술조직에게 주어진다. 경력, 운영능력, 예술성, 활동계획, 예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의 심사기준을 통해 선발된 예술가나 단체는 임대료의 10%만 부담하고 입주하게 된다. 신청자격과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그에 적합한 예술가나 예술단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청자격이 안 되었거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예술가나 단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예술주택의 비어있는 장소는 없지만 관심 있는 예술가나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어있는 경우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예술주택의 유형은 같은 장르의 예술가들이 한 건물에 거주하는 ‘단일임대형’,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한 건물에 거주하는 ‘멀티임대형’, 예술가와 비예술가 입주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복합시설형’ 등으로 구분된다. 50)

(4) 입주상황

67의 예술단체와 29명의 예술가들이 20개의 건물, 20개의 복합 상가, 2개의 마린 퍼레이드 (Marine Parade - Marine Parade Community Building)와 침 모 (Ghim Moh - Ulu Pandan Community Building)에서 거주하고 있다. 특히 마린 퍼레이드와 울루 판단에 있는 독립 건물의 커뮤니티 클럽을 이용한 예술주택사

50) 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서면 인터뷰, 2006

업은 예술이 보다 지역민에게 가까이 가고 정부의 토지사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울루 판단 커뮤니티 빌딩은 2000년부터 음악단체인 싱가포르 윈드 심포니 (Singapore Wind Symphony)의 리허설과 연습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⁵¹⁾

차. 예술단체와 예술가를 위한 창업지원 -뉴올리언즈 엔터지 아트 비즈니스 센터 (Entergy Arts Business Center, 미국)

(1) 개관

뉴올리언즈 예술 창업지원 (Arts Incubator) 프로그램은 뉴올리언즈 예술 위원회가 1989년 NEA로부터 22만 달러의 기금을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애초 기금의 목적은 3년 동안 지역 내 예술 단체들의 경영과 행정 현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보조적인 필요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활동 기간 동안 많은 예술 단체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것이 현재의 뉴올리언즈 엔터지 아트 비즈니스 센터 (The Entergy Arts Business Center) 이다.

아트 비즈니스 센터의 설립 모델은 당시 전국적으로 경제 개발의 수단으로서 활성화되고 있던 비즈니스 영역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비영리 예술 단체로서 최초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시카고의 아트 브리지와 뉴욕의 펜타클 등과 협력하여 개발하였으며, 뉴올리언즈 예술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992년 문을 연 아트 비즈니스 센터의 설립 목적은 예술 경영의 자료 제공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며, 예술 단체와 예술가의 창조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사무 행정적인 필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새로 설립되는 예술 단체에게 사무 공간 등의 장소를 제공하며, 예술 경영과 관련된 주제의 포럼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의 저소득 예술가를 위한 단체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등

51) 싱가포르 문화예술위원회(2006), www.nac.gov.sg

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센터는 1999년 창업지원 연합 (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에 의해 ‘올해의 창업지원 센터 (Business Incubator of the Year)’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 설립 재원

센터의 설립을 위한 초기 자금은 주로 지역 기업이나 경제 관련 기금으로부터 모금되었다. 이는 지역 경제인들이 예술 분야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지역 기반 사업인 석유 관련 사업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다른 주요 분야인 관광과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서 지역 예술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평가한 결과였다.

-루이지애나 경제 개발국 - \$15,000

-엔터지 기업 - \$50,000 x 3년

-NEA - \$38,500

-뉴올리언즈 경제 개발 기금 - \$150,000

(3) 운영 방식

38개의 예술 단체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그 중 6개의 예술 단체와 3개의 서비스 제공 단체의 사무실이 센터 건물 내에 입주했다. (현재는 9개의 단체 중 1개의 단체만 서비스 제공 관련 단체이다. 81p 입주 단체 참고) 예술 단체들은 연간 150불, 개인은 연간 50불의 회비를 지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은 센터가 개최하는 워크숍, 포럼 등에 할인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외에 법률 서비스, 건강 보험 단체 가입 등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가구 소득이 31,950불 이하인 저소득 개인 예술가들은 무료로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입주 예술 단체들은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영리 혹은 비영리 단체가 혼합되어 있다. 입주 단체들은 센터의 직원들로부터 단체의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저렴한 사무실 사용비, 사무기기 공동 이

용, 자료실 및 회의실 이용, 다른 입주 단체와의 네트워킹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센터의 디렉터는 정기적으로 입주 단체들과 만나 회의를 한다. 입주 단체 중 서비스 제공 단체는 센터의 회원이나 다른 입주 예술 단체에는 가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입주 단체 중 엠케이 아트 기업 (MK Arts Co.'s)은 예술 단체에 경영 관련 즉 조직 구성, 재무 경영, 컴퓨터 사용 등의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로서, 센터의 회원 단체에는 할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입주 단체

○뉴올리언즈 음악 예술회 (Musical Arts Society of New Orleans)

뉴올리언즈 음악 예술회의 전신은 뉴올리언즈 공연 협회 (New Orleans Institute for the Performing Arts)이다. 협회의 주요 목적은 지역 주민에게 클래식 음악 공연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클래식 음악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협회는 매년 '뉴올리언즈 국제 피아노 대회'를 '여름 건반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다.

<입주 단체명>

- Cuba Nola collective
- Fertile Crescent Entertainment
- JB Dezigns, LLC
- Junebug Productions, Inc.
- MK Arts Co.
- National Performance Network
- Ovation Entertainment
- Player Productions

(5) 지원 프로그램

○포럼/워크숍

기업 구조, 재무, 기금 조성,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법률, 인사, 전략 기획과 같

은 경영 관련 지식을 예술 단체나 예술가에게 전달해 주는 자리이다. 워크숍에는 배우, 감독, 작가, 음악가, 작곡가, 화가, 예술 행정가, 교육자 등 다양한 예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워크숍의 주제는 ‘사업 기획서 작성’, ‘법률 이슈 - 계약/저작권’, ‘저소득 예술가의 주거 기회’ 등 다양하며, 주말 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2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법률 자문

‘예술을 위한 루이지애나 자원봉사 변호사회 (Louisiana Volunteer Lawyers for the Arts)’는 매주 금요일 오후 회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 예술가에게는 필요할 경우 무료 법률 자문도 해준다.

○건강 보험

개인 혹은 개별 단체로 가입할 경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단체 건강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단체나 예술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다. 1994년의 경우 28,000불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경영 컨설팅

센터의 전담 직원이 회원 단체의 사업 계획을 함께 검토해주며, 자료 제공 및 네트워킹 등의 지원으로 단체의 운영을 돕는다.

제5장 국내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조성방안

1.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정의 및 기능

가.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정의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란 말을 한 가지 설명으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음악 전용’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생소하며 내재 돼 있는 수혜자가 음악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공간에 관한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용이라는 말의 의미도 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사전적 의미로 ‘전용(專用)’은 [1.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2. 오로지 한 가지만을 씀 3. 일정한 부문에만 한하여 씀]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전용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설명된 ‘전용’의 정의를 참조해 볼 때, 클래식 콘서트만을 위한 공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 음악과 팝 음악을 포함한 음악 관련 전반적인 일을 다 포용하는 것인지 이 또한 정의 내리기 쉽지 않다. 셋째, 음악 전용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된 ‘복합문화센터’는 세 단어인 ‘복합’, ‘문화’, ‘센터’의 결합(combination)으로 이루어져 그 의미가 상당히 광범위하나, 여러 가지 기능이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복합적 성격의 공간, 즉 영어로 표기하자면 complex(복합)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음악 전용’이라는 단어와 ‘복합문화센터’가 결합되어 나타난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조합만으로는 정확한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다소 복잡한 단어 구성을 염두에 두고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라는 말을 정리해 보자면 ‘음악에만 한정을 둔 공간 또는 장소이자, 그 장소는 다양한 음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음악활동과 관련된 여러 복합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곳’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단순한 단어 풀이식 접근이 아닌, 음악 또는 음악인의 활동 범위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개념과 연구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 전용’은 그 범위를 **클래식 음악분야로 한정한다.**

둘째, 기구의 형태로서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는 본 연구서의 제3장에서 설명된 무용계의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규정한 무용수를 위한 공간과 같이, **전문음악인을 위한 공간이 우선시됨을 전제로 한다.**

셋째, 공간의 활용도 및 성격 면에서도 대중 (public, 관객)과 예술이 만나는 공연장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음악전문가들을 위한, **음악 창작결과물을 발표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러한 창작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연습공간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라 함은, *클래식음악분야 전문 음악인의 창작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간 (building & space)과 프로그램 (program & service)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나.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기능

제4장에서 살펴본 해외 여러 사례들은 음악지원사업에 관한 공간의 활용과 프로그램 구성, 음악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하고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여러 사례들의 운영 분석 결과, 음악 전용 센터 또는 기관들은 공간별 특성과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그 기능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공간 기능에 따른 구분

- 대형아트센터 (예: 케네디센터, 링컨센터, 바비칸센터, 예술의전당 등)
- 지역문화센터 (예: 시카고문화센터, 전국문예회관 등)
- 음악전문복합공간 (예: 시테 드 라 뮤직 등)
- 예술창작공간 (예: 맥도웰 콜로니, 다드 등)

○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구분

-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전문음악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예술가의 활동 지원 프로그램 제공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일본문화청의 예산사용에서 1990년도 전체예산의 절반이 문화시설건설비로 사용되었고 13%정도만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화소프트 예산으로 사용된 반면, <표 17> 참조 2004년도에는 소프트예산에 해당되는 예술문화진흥비가 약 40%까지 올라가며 문화지원의 흐름이 하드웨어의 구축에서 소프트웨어의 지원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8> 참조

또한 싱가포르의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에서는 시스템화 된 예술지원사업에 관해 논하며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 (hub)가 되고자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들 중 시카고문화센터는 미국 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광범위한 모든 예술장르의 쇼케이스 (show case)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보통 국내의 공연장들이 이미 만들어진 공연상품을 들여와 티켓판매를 위한 상업공연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시카고문화센터의 경우는 공연장이라는 장소를 활용하여 결국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실험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외 유럽의 대표적인 복합음악공간인 시테 드 라 뮤직는 프랑스 문화부와 파리시가 운영하는 대중과 음악가들을 위한 모든 장르의 음악을 위한 음악공간이다. 10여 년 동안 프랑스 음악의 발전을 위한 선두주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일반인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소, 대중과 음악전문가들을 위한 장소이자 박물관, 기획전시관, 자료실, 출판 사업에 이르기까지 음악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음악 중심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이 공간을 활용한 음악지원 분야라면 미국작곡가포럼, 음악가들을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맥도웰 콜로니, 다드 베를린 예술가 창작공간, 싱가포르 예술가와 단체의 창업을 지원하는 뉴올리언즈 엔터지 아트 비즈니스

스센터는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개발된 곳이라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음악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례들은 지원효과가 비록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음악의 질적 향상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서양음악이 유입된 지 100년의 역사가 넘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작품의 탄생과 현대음악의 개발은 국내 타 서양음악분야 예를 들자면 연주자, 연주단체의 양성에 비해 가장 더디게 진행되어왔다. 이는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접촉한 작곡가들과의 1:1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은 첫째, 작품을 써도 연주할 단체나 연주자를 찾지 못하거나 높은 연주료 때문에 솔로곡이나 작은 편성의 곡들을 쓰는 것에 만족해야 하며 둘째, 현대음악은 다양한 음원소스와 컴퓨터의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개인이 구입을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커 업무를 못낼 뿐 아니라 이런 장비를 갖추고 일반에게 대여해 주는 곳조차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작곡가들의 네트워킹을 돕고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미국 작곡가 포럼이나 음악과 음향개발로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컴퓨터 음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프랑스의 이르캄의 예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음악계의 창작 환경이 얼마나 낙후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사례를 참고로 국내의 음악지원사업도 공간기능과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나누어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 공간 기능에 따라 구분되는 실제 사례를 찾아보자면, 대형아트센터로는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을 지역문화센터로는 전국의 문예회관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장르별 지원공간이나 창작지원공간은 미술 분야의 창작스튜디오 외에는 특화 된 모델을 찾을 수 없으며, 이에 음악계에서도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볼 때에도 일부 공공문화시설(문예회관을 비롯한 문화의 집 등)에서 일반인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하나로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외사례에 비하여는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학교를 졸업한 뒤 지속적 창작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할 전문음악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06년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문화예술관련 활동 전반에 관하여 간

접적 지원사업인 정보제공이나 문화예술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격의 기관이 유일한 국내 상황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장르적 특성을 모두 반영한 전문적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태조사나 수요조사, 해외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내의 상황은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이 어떤 한 유형으로 특화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이 기능들을 조합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음악 전용 복합문화 공간의 기능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유럽과 미국의 경우 예술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작비 지원 외에도 경력개발, 연수, 교육기회, 작업 공간, 복지 등의 예술가와 단체의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는데 반해, 국내 현실은 대부분의 기금 (문예진흥기금이나 중앙정부, 자치단체나 공공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이 제작비의 직접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은 전문음악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예술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하며, 예술가 개인의 성장을 돕고, 예술단체 운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설정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음악 분야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환경 제공

-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는 전문음악인을 수혜자로 규정
- 음악가의 창작과 연습·작품 발표를 위한 공간 제공

(2) 예술(음악)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 개인 및 단체 활동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 마련
(포럼, 워크숍 등)
- 해외 진출에 관한 지원 등

(3) 예술(음악)가의 성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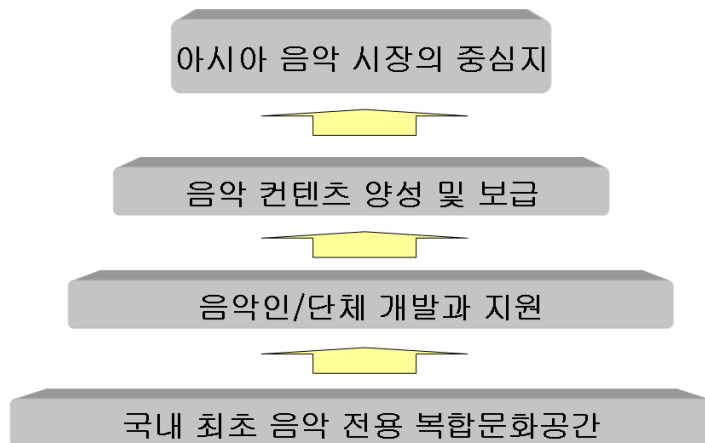
- 포럼,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교육 기회 등 예술적 자양분 제공

(4) 예술단체 발전에 대한 노력

- 행정적·법률적 상담 지원
- 각종 데이터의 수집 및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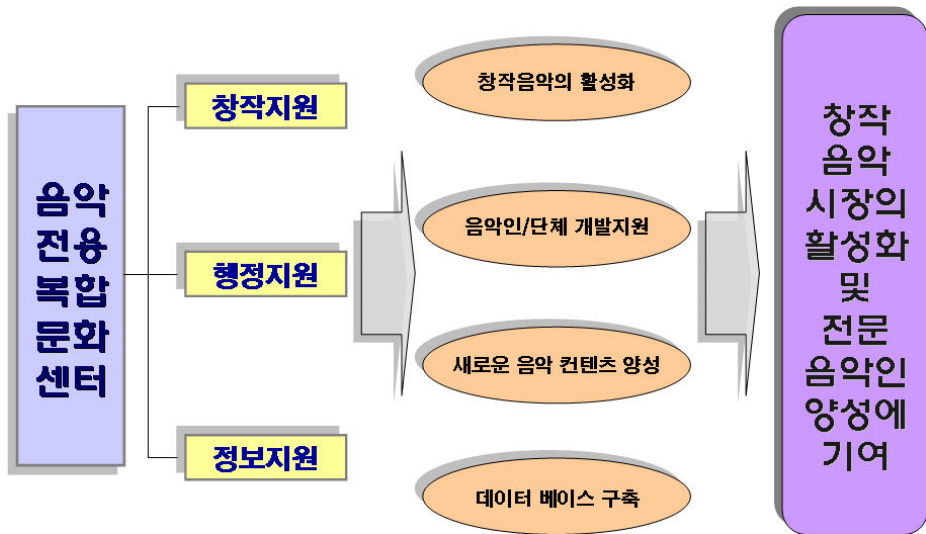
다.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목표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기본 운영 목표는 음악인과 음악단체를 개발하고 육성하여 음악의 콘텐츠를 양성하고 보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음악 산업을 강화하고 아시아 음악시장의 중심지로 거듭 나가는 것으로 한다.



2. 국내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설립 및 구성

가. 사업 구상



음악예술은 한 번의 무대를 올리기 위해 창작과 끊임없는 반복인 연습과정이 가장 중요시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습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모든 단체가 인식하고 있지만 연습공간을 찾아 헤매는 것이 마치 셋방살이 하듯 하루하루 연습실을 찾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실이다. 2005년 공연예술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의 단체 중 연습공간을 갖고 있는 수는 50%도 못 미쳐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⁵²⁾ 연습공간을 찾지 못한 단체의 경우 무대에 오르기 전 한 두 번에 그치는 불충분한 연습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수준미달의 음악회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아무리 좋은 단체와 연주자가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연습 없이는 훌륭한 무대를 만들기 어렵다. 연습실은 음악을 만드는 창조자 (creator)로 분리되는 작곡가와 작품의 실연의 주체자인 연주자 (performer)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인

52) p. 10 <표 9> 참조

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센터의 필수요건 시설이다.

연습실과 함께 보다 전문적 시설을 갖춘 스튜디오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음악이 발전된 유럽의 경우를 보면 먼저 컴퓨터를 통한 다양한 음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먼저 작곡가들에게 최신식 시설의 음악작곡 연습실과 연주실을 만들어 주었다. 이로 인해 현대음악의 선두로 나설 수 있게 된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예를 들어 이르캄의 경우 설립당시 목표가 음악의 세계에 과학을 접목시킴으로써 음악언어를 확장시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R&D 센터를 운영하여 과학과 음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이르캄의 활동은 197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컴퓨터 음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정책이나 지원이 음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근시안적이고 일차적으로 음악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음악의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의 여건을 보면 현대음악의 작곡을 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비싼 장비구입의 부담으로 기껏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그친다. 또한 작곡가에게 피아노하나 있는 연습실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독서실이나 원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참으로 딱한 시설은 말할 것도 없다. 연주자의 경우 개별 심층인터뷰에서도 확연히 나타나는 것과 같이 2명만 모여도 연습할 공간이 없다고 한다. 4명 이상의 작은 규모의 앙상블 팀도 연주를 위해 연습공간을 대여하는 비용에 많은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현대음악의 경우 창작발표의 공간조차 찾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사업에서 스튜디오, 연습실, 공연장 등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대규모의 연습 및 창작전용공간을 확보하여 필요한 단체나 음악가에게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음악가와 단체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정보의 지원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혜택에서 나아가 음악가와 단체가 창작과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이나, 워크숍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음악가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의 문화르네상스를 키우고 이를 통한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려는 싱가포르의 문화정책은 매우 치밀하게 시스템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NAC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가 혹은 예

술단체가 각각 여러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원스톱 서비스를 전개한다. 또한 문화정책의 변화를 그때그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워크숍 개최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 음악가가 해외공연을 나갈 때 절차에 관한 정보와 요령을 제공한다.⁵³⁾

그리고 전문적인 음악활동을 하고자 하는 음악가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음악인들이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음으로써 다양하고 활발한 예술 활동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음악가의 개별 혹은 단체 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컨설팅과 상담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정부 및 재단, 기획자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음악 지원프로그램을 위한 상담, 저작권과 같은 음악활동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상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내 음악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국내 음악계의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음악가들의 활동이 음악계는 물론 대중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지원을 펼치는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센터 지원 사업들이 더 많은 음악인들에게 알려지도록 안내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해외 음악 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국제적인 음악가들과 음악계 인사들과의 교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지원기관과 우리나라 음악가들을 연결해줌으로써 지속적인 해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서 위와 같은 지원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와 홍보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1) 공간지원 사업

- 연습공간의 대여
- 스튜디오 공간 확보
- 창작 발표를 위한 공연장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53) 서울시정개발원(2003), 『문화예술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 세미나, 포럼 및 워크숍 개최
-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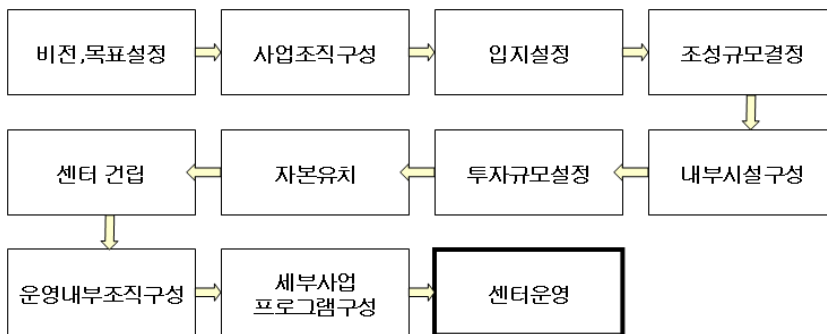
(3) 행정 지원

- 컨설팅 및 상담
-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 홍보·마케팅 등 기획 전반에 관한 지원

(4) 교류·협력의 촉진

- 해외 진출 지원
-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

나. 사업 계획 순서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구성에 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조직을 구성 후 입지, 조성규모, 내부시설의 전체적 윤곽을 만들 수 있겠다. 그 후 규모에 맞는 제정안을 도출한 후 투자규모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자본을 유

치하여 센터를 설립한다. 센터 설립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즉, 운영자의 선정이다. 이 작업이 끝난 후 운영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SWOT 분석

강점 (S)	약점 (W)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최초의 음악전용 공간 •음악창작 지원의 직접적 결과도출 •해외사례를 통해 검증된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계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함 •운영자의 역할이 중요함
기회 (O)	위협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가의 수요가 많음 •정부의 창조적(creative) 문화산업 육성사업에 가장 적합한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공간이나 기관과의 사업영역의 경계가 모호함

라. 사업 기구 구성

(1)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실행위원 및 위원장, 간사 등
- 음악 분야 뿐 아니라 문화계 전반의 인사를 참여시킬 필요 있음
- 임시 사무공간의 확보 (예술의전당 등)

(2)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기구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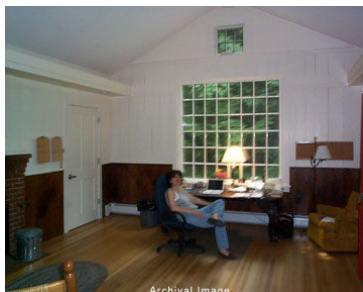
- 전문음악인 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 기구 준비 · 출범
- 자문위원회 구성
- 재단법인 등록 및 센터 개소
- 사업 실행을 위한 기금 조성
- 센터 건립을 위한 활동 전개

마. 센터 공간 구성

(1) 연습실

리허설룸은 첫째, 창작음악가, 신진음악인, 음악 그룹 등 전문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가들을 위한 공간이다. 기본적으로 센터의 운영기준을 만족하여 선발된 전업 음악가들을 위한 혜택을 우선시하며 이들을 위한 연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로는 음악활동의 특성상 연습공간이 부족한 음악 단체들의 연습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단체가 지정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 연습실
- 소규모 앙상블 연습실
- 오케스트라 연습실
- 리허설 룸



<그림 1> 맥도웰 콜로니의 개인 연습 공간. 출처 www.macdowellcolony.org

(2) 스튜디오

복합문화센터의 창작스튜디오는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단체의 연습을 위한 리허설의 공간이고 두 번째는 현대음악작곡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현대음악에 쓰여 지는 최첨단 기자재들과 악기들을 보유하여 활발한 현대음악 창작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현대음악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대음악의 청중은 클래식음악분야 중 가장 청중이 적으며 새로운 음악에 대한 수요도 많지 않다. 따라서 국가는 이처럼 취약한 분야에 대한 창작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현대음악이 기존의 악기만을 대상으로 작곡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2차 대전 이후부터는 각 방송국들이 뮤직 스튜디오 시설들을 현대화하고 국가가 음악연구센터들을 설립지원하면서 전자장치들과 전자음향들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음악연구센터의 실비 투자비와 운영비는 엄청났지만, 음악인, 전자기술인 및 기능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됨으로써 실험적인 작품을 창작하고 전통적인 음향에다 새로운 음향을 결합시키기가 용이하게 되었다. 프랑스 정부가 음악(무용포함)분야에 예술생산을 위한 총예산의 2분의 1이상을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4)

- 녹음 스튜디오 : 음반제작과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녹음실
- 현대음악 창작 스튜디오 : 현대음악 창작을 위한 악기 비치

I



<그림 2> 이르캄의 스튜디오와 창작공간. 출처 www.ircam.fr

54) 김희영, 불어불문학회(1995), 『프랑스의 창작진흥정책』



<그림 3> 미국의 유명 작곡가 아론 코플랜드의 작업 사진. 맥도웰 콜로니. 출처 www.macdowellcolony.org

(3) 공연장

기존의 공연장과 특화를 두어 복합센터 내의 공연장은 소규모의 공간으로 창작 음악가, 신진음악가, 그룹을 위한 발표회의 장소를 활용한다. 공연기회를 제공하여 정기적으로 신진음악가를 소개하며 외부 스폰서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소규모 공연장 관객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함
- 관객 : 일반 대중 관객이 아닌 클래식 매니아 및 관계자 대상 공연장
- 현대 음악 등에 창작 발표의 장 마련 : 쇼케이스 등
- 가변형 구조 : 평소에는 연습실로 사용가능하고 관객들이 있을 경우는 공연장으로 변경되어 활용될 수 있음

(4) 음악박물관

국내에 서양음악이 들어온 10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쉽게도 음악 박물관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음악 전용 복합공간이 음악가들을 위한 장소가 우선적이지만, 대중과 교류할 수 있는 박물관이 함께 있다면, 음악사적 자료 보존 기능은 물론이고 잠재된 음악청중들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악기전시
- 국내외 작곡가 회고전, 유물 전시회
- 음악회 포스터 및 홍보물 전시
- 고(古)악보 전시



<그림 4> 시테 드 라 뮤직의 박물관 관람 모습. 출처 www.cite-musique.fr

(5) 자료실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내에만 해도 64개의 음악 대학이 있지만 충분한 정보를 소유한 음악 전용도서관이나 자료실이 전무하다. 센터 내의 자료실은 음악관련 전문 서적, 자료, 해외서적, 악보 등을 구비하도록 하며, 현장 활동을 위한 최신의 정보를 구비하여 음악가들의 활동에 기여해야 한다.

- 한국 역대 작곡가들의 악보 구비
- 국내외 현대 악곡 악보구비
- 음악관련 전문 서적 비치
- 해외 음악관련 저널 비치
- 국내 최대의 음악자료실인 아카이브의 기능
- CD, DVD등 음악관련 영상자료 비치

(6) 부대시설

부대시설로는 방문자들의 휴식은 물론 음악계 내의 다양한 네트워킹 기능이 가능한 카페와 세미나 룸, 소규모의 포럼 및 상담의 공간이 될 미팅 룸을 갖추게 된다.

- 음악가들을 위한 카페테리아
- 소규모 미팅 룸

3.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건립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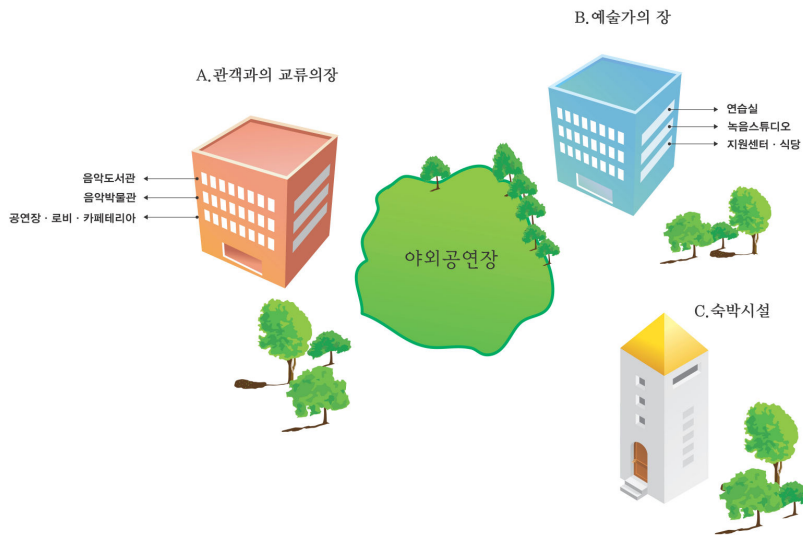
가. 규모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된다고 해서 모든 음악인의 요구를 다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규모 형태면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방식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프랑스 파리의 시테 드 라 뮤지크가 입지해 있는 방법과 같이 공원 규모의 대규모 단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경기도 과천의 현대미술관이나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 마을 입주형식) <그림 5> 참조

두 번째는 빌딩 전체가 마치 백화점처럼 뮤직 콤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부지가 협소한 도심 지역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적합한 규모로, 연습 및 작곡 스튜디오, 소규모 공연장 등 직접적인 기간 시설과 함께 편의 시설 (레코드 숍이나 악기점, 악보사 등)이 공존하여 음악가의 편의와 경제적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6> 참조

<그림 5>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규모와 형태 제1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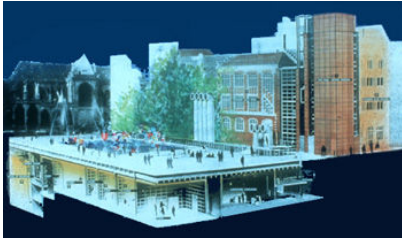


※ A동은 관객과의 교류를 위한 건물로 공연장은 물론 일반에게 공개되는 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B동은 음악가들을 위한 건물로 연습실과 창작 스튜디오, 지원 상담을 위한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다. C동은 장기체류자나 해외 아티스트의 숙박을 위한 시설을 갖춘 건물이 되겠다.

<그림 6>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규모와 형태 제2안



※ 건물 하나에 모든 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제2안은 쇼케이스를 위한 공연장과 연습실, 스튜디오는 물론 대중에게도 공개될 음악도서관과 박물관, 수익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각종 편의 시설이 갖춰져 한 건물 안에서 음악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대형 복합공간인 프랑스 이르캄의 조감도. 출처 www.ircam.fr



<그림 8> 음악 복합공간인 시테 드 라 뮤직의 전경. 출처 www.cite-musique.fr

나. 입지

서울시 및 대도시에 설립할 경우는 이미 많은 건물들로 채워진 대도시에 대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대도시의 좁은 부지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고층 빌딩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대도시를 벗어난 넓은 토지가 확보 된 곳에 추가로 연습실과 스튜디오 등의 창작공간을 확보하여 지원에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소음과 접근성에 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1) 센터 입지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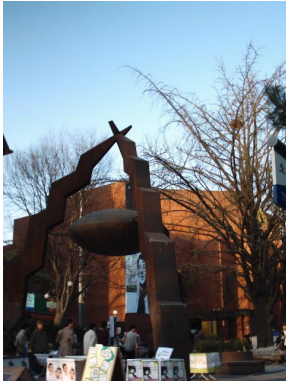
복합문화센터는 기존 음악 활동의 동선 고려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련 시설의 밀집도를 고려해 이용 편의성이 높은 지역에 조성하여 문화벨트 조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연장과 예술학교, 음악 유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강남의 서초동 예술의전당의 인근 지역과, 강북 지역으로는 연극 공연 위주의 공연장과 문화예술위원회, 예총, 예술인 협회 등 문화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로 지역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 서울시 서초동 예술의전당 인근지역

○ 서울시 혜화동 대학로 인근



<그림 9> 예술의전당 전경. 출처 <http://www.lifeinkorea.com/Images/Seoul/Sac001.jpg>



<그림 10> 혜화동 대학로. 출처 www.naver.com

(2) 창작스튜디오 입지 제안

다양한 음악인들이 장단기로 상주하여 창작에만 몰두 할 수 있는 창작 스튜디오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안에 모든 단체를 수용할 만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이다. 리허설개념의 공간은 복합문화센터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나 창작스튜디오의 경우는 서울을 벗어나 지역에서 예술가들이 공동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음악, 미술, 무용, 작가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함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맥도웰과 같은 빌리지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경기도 양평 예술인마을
- 경기도 파주 헤이리 예술인마을
- 인천 무의도 예술인마을



<그림 11> 산 속에 위치한 대규모 창작공간 맥도웰 콜로니의 개인 스튜디오 전경. 출처 www.macdowellcolony.org

다. 재원 조성

재원조성에 있어서는 각각 건립 소요 및 사업 운영 재원이 절실하다. 4장에 언급된 해외사례 중 재원조성 및 운영자금활용을 참고로 국내 센터 조성 시 투입된 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시카고 문화센터

- 시카고 문화재단에서 운영
- 평균 백오십만달러 규모의 수입운용
- 45%는 개인, 기업, 재단으로부터 받는 직접수입
- 35%는 정부보조금
- 15% 임대료 매출
- 5% 일반시민참여 회비

(2) 캐나다의 텔러스 센터

- 9천2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캐나다 최고의 21세기형 첨단 복합공간을 조성
- 초기 자본은 캐나다 통신 대기업이자 센터 설립 캠페인에 1천만 달러의 초기 설립기금을 기부한 텔러스 기업으로부터 시작됨
- 그 외의 주요 재원은 캐나다 정부, 온타리오 주정부와 같은 공공기관
-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조성
- 기부금액이 큰 경우 센터의 시설물에 명칭사용
(예: 커너 콘서트홀, 시멘스 홀 등)

(3) 맥도웰 콜로니

- 작곡가 맥도웰과 부인에 의해 설립
- 연 2천5백만 달러의 기금운영

- 기금 운영 수익과 캠페인을 통한 후원금으로 운영
- 예술가의 지원은 연간 후원금과 적립 후원금을 통해 운영
- 스튜디오 유지, 운영비용은 스튜디오지원 후언금과 기금을 별도로 모집
- 기부목적에 따라 매칭 펀드형식

(4) 예술주택사업과 아트벨트

- NAC,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 등 정부기관의 파트너십에 의해 추진
- 도시개발공사는 후보지조사 및 개발 담당
- 토지공사는 예술주택의 임대 및 관리 담당
- NAC는 예술가나 단체의 신청접수 및 선정, 임대료의 90% 보조 담당
- 예술가나 단체는 임대료의 10%만 부담

(5) 엔터지 아트 비즈니스 센터

- 뉴올리언즈 예술위원회가 NEA로부터 22만 달러의 기금을 받는 데에서 출발
- 설립초기자금은 주로 지역 기업이나 경제관련 기금으로부터 모금
- 예술단체와 개인회비 운영
- 저소득층은 무료회원 혜택제공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국내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재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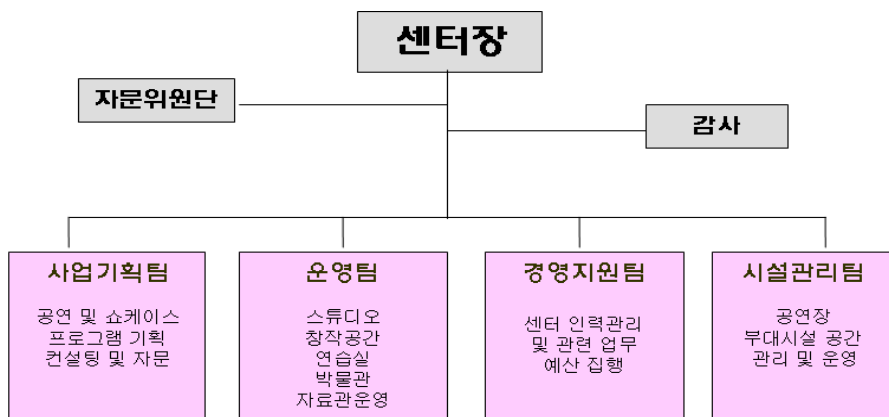
- 공간건립재원
 - 초기 설립 자본은 정부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하고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를 통해 재원 조달
 - 기업이나 개인후원의 경우 건물 내 시설에 고유이름을 붙임
(예: 텔러스 기업의 기금으로 이루어진 텔러스 센터)
- 사업자금

- 개인이나 기업의 매칭 펀드 (matching fund)를 조성함. 기부자가 원하는 프로젝트나 예술가에게 기금을 사용하도록 함
(예: 델타 오미크론재단은 맥도웰 콜로니 스튜디오의 그랜드 피아노 교체 등 매년 스튜디오 보수, 유지비용을 기부함)

○ 수익방안

- 실비정도의 공간 사용료 수입
(예: 싱가포르 예술주택의 경우 예술가나 단체는 임대료의 10%만 부담)
- 부대시설 운영 임대료 수입
(카페테리아, 식당, 음악관련 상점의 임대사업)
- 행사용 공간 대여료 수입
(예: 시카고 문화센터는 결혼식을 위한 공간대여로 수익창출)
- 음악 콘텐츠 제작
(예: 이르캄의 경우 작곡가들의 작품을 악보로 편찬해 주고 저작권료 받음. CD, DVD 등 영상물 제작의 저작권료 수익)
- 입장수입
(저가의 유료공연을 실시해 티켓수입과 박물관 관람,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투어를 위한 입장수입)

라. 조직 구성안



센터장을 중심으로 시설운영, 공간운영, 사업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재무와 회계 및 기금조성을 위한 경영팀으로 구성한다.

4. 중장기 운영방안

가. 초기 (2008-2009년)

- 음악계의 여론을 형성하고 집중시킴
- 운영조직을 구성함
- 출범식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모음
- 재원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나. 중기 (2010-2012)

- 새로 건립할 경우 하드웨어 구축
- 기존 건물을 이용할 경우 공간 활용 방안 구성
- 센터를 개소하고 사무국 조직 운영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장기 (2013-2018)

- 자료실, 박물관 등 구성
- 공간지원 프로그램 확대
- 예술가, 단체 지원강화
- 대중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해외 예술가와의 교류사업
- 국내외 유사기관과 협력체결을 통한 공동프로그램 개발

<표 21>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중장기 운영방안

	사업 운영	조직 운영
1기	○음악계 네트워킹과 여론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 ○출범식 : 사회적 관심을 환기 시키고 음악인들의 참여를 규합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 개최	○운영조직 출범준비: 설립 준비위원회 발족 ○재단 설립 : 이사회 조직 및 설립자금 모금
2기	○센터 개소 : 별도의 독립 건물 : 연습실 등의 개방 ○행정 지원 사업 개시	○사무국 조직 운영
3기	○자료실 기능 확대 ○별도의 연습·창작 스튜디오 마련: 공간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교육 사업 프로그램 확대	○사무처
4기	○해외 교류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 운영 ○해외 진출 아티스트 컨설팅 제공	○국내 유관기관과의 제휴 해외유관기관과의 MOU 협정 체결

5. 운영의 주체

센터 조성 후 운영의 주체 선정은 사업의 성공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다. 정부의 직영, 재단법인화, 공공이나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재단법인화를 추천하는 바이다.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음악전용 복합문화센터이기예 전문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재단법인화를 통해 전문적인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주체를 키우고(cultivate) 모델 사례를 만듦으로써 타 예술장르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예술창작의 기반형성을 위한 노하우(know-how) 보급이 가능할 것이다.

<표 22>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주체 4안

구분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운영형태	직영	재단법인	공공위탁	민간위탁
운영기관	정부산하기관	법인체계	시설관리 공기업	비영리법인
센터장	시장위임	이사회에서임명	공단이사장임명	비영리법인 이사장 임명
시설관리	정부산하기관과 협력진행	전문기업에 위탁	자체운영	전문기관 위탁
프로그램운영	전문업체위탁	자체 진행	전문업체위탁	자체 진행
장점	공공성 강화	목적에 적합한 조직,인력구성	공공성 강화	목적에 맞는 민간활동
단점	공공조직확대	재단설립에 따른 초기 자본필요	민간활력 이용 약함	공공성 미흡할 수 있음

6. 수혜자 선발 방법

창작공간을 이용할 수혜자를 선발하는 방법은 지원효과를 극대화 하는 결과를 창출할 것이다. 이에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방법을 이용해 수혜자를 선발, 지원해야 한다.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의 경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선발 방법 - 해외 사례

○ 시카고 문화센터

- 지역음악인을 우대함
- 4~6주 간격을 통해서 신청자에 대한 심사, 신청일로부터 3~6개월 안에 공연의 기회 제공
- 자료제출: 보도자료, 데모테이프, CD, 사진, 악력, 기사 자료 모음, 공연경력 등 관련 자료

○ 다드

- 국제적으로 조직된 심사관의 판정에 따라 선발됨
- 녹음테이프, CD, 악보, 비디오 테이프제출
- 심사를 하지 않고 심사관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를 초청하기도 함

나. 국내 센터이용 수혜자 선발 방법

○ 심사위원단을 통한 선발

- 국내외 유명 음악가, 예술경영가 등으로 조직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선발

○ 서류 심사와 자료 평가를 통한 선발

- 신청자 제출 서류
 - 신청서
 - 프로필
 - 포트폴리오 (작품악보, CD, DVD 등을 통한 신청자의 예술 활동 증명)
 - 보도자료 등 리뷰
 - 추천서
- 신청기간 및 상주기간
 - 1년에 1회 혹은 2년에 1회 상주할 음악가나 단체를 선발함
 - 신청기간은 전차년도 하반기에 실시함
 - 상주기간동안 프로그램 참가함

○ 기타 사항

- 작곡가와 상주 단체 혹은 연습실을 이용하는 음악가, 단체 각각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함

다. 기타

- 창작 공간 외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등은 일반관객들에게도 혜택을 주어 함께 이용하도록 함

제6장 국내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조성 파급효과

1. 기본 개념

가. 음악가, 단체 창작지원

- 음악가들이 생계에 걱정하지 않고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음악 관련정보와 함께 해외정보 교류를 통해 여건형성
- 자료실의 정보를 통해 아이디어 제공

나. 음악상품 (product) 의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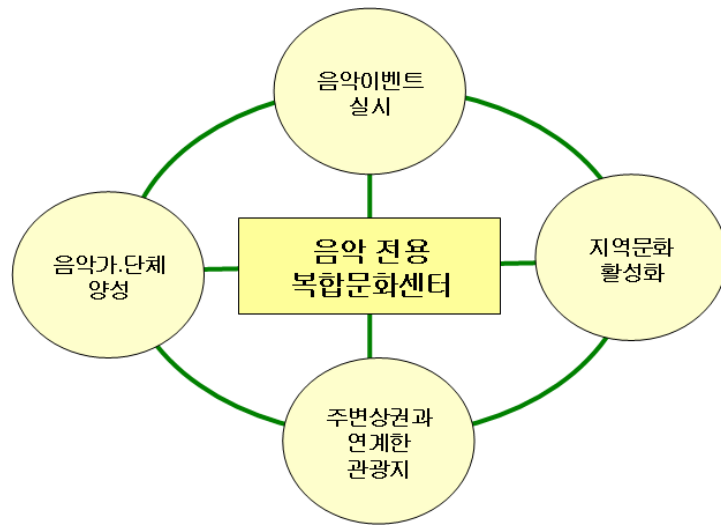
- 작곡가의 창작과정을 통해 음악작품 (music work) 생산
- 연주자나 단체를 통해 많은 음악회 (concert) 보급
-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에서 지원받은 작품이나 연주를 타 공연장에 보급하는 음악 콘텐츠 (music contents) 개발

다. 문화관광 도시

- 국내 일반 공연장과 달리 24시간 항상 음악이 흐르는 장소로 새로운 문화관광 장소 창출
- 역사적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역사와 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지역 탄생

라. 새로운 경제상권 형성

- 주변의 상권과 연계되어 새로운 문화 상권을 형성함
- 센터와 상권과의 연계 속에서 일자리 창출



2. 국내 음악계 및 관련 문화예술 분야

가. 음악창작활동의 활성화

- 음악가들의 본연의 업무인 음악활동보다 생계를 위한 교습(teaching) 활동이 주를 이룬 한국음악계의 방향을 옴직임
- 작곡가의 지원을 통해 창작음악을 활성화하고 센터 내에서의 실연을 통해 현대음악 발전을 도모함
- 연주자와 연주단체를 지원하여 다수의 수준 높은 음악회를 진행하도록 함

나. 음악상품 개발과 유통 활성화

- 센터 내에서의 쇼케이스(show case)를 통해 음악 상품 개발
- 선발된 작곡가의 작품의 악보나, 연주 CD, DVD 발매를 통해 음악상품 생산
- 모델화된 음악프로그램을 통해 타 공연장에 음악소프트웨어인 콘텐츠 제공

다. 음악지원 시스템 구축

- 기존의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은 기금 위주로 비록 지원은 하나 창작에 관여할 수는 없었음
- 창작환경과 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정부는 창작과정의 지원을 통해 효과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평가를 통해 효율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

라. 타 예술장르와 연계발전

- 무용이나 연극관련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협동작업을 통해 새로운 문화컨텐츠 개발 (예: 무용 음악 연주, 연극음악 작곡 외)

3. 도시개발 측면

가. 도시 마케팅

- 프랑스의 시테 드 라 뮤지크는 도살장을 개조하여 문화공간으로 만듦으로써 도시를 새롭게 포장한 관광지가 되었음
- 싱가포르의 예술주택복원사업은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여 예술가와 일반인이 함께 교류하는 문화공간이 되었음
- 미국의 맥도웰 콜로니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예술가들이 상주하고 있는 특징으로 관광장소가 되었음
-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를 통해 도시를 새롭게 포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나. 상권 형성

- 싱가포르의 에스플라나이드는 관광단지내에 위치하여 문화공간과 상권이 함

께 공존하는 상권을 형성하였음

- 문화공간의 형성은 많은 유동인구를 유입시켜 상권을 형성하게 함
- 우면산 아래 위치한 서초동 예술의전당은 건립초기에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었으나 2004년의 경우 음악당만 445,503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최근 3년 간 연평균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지⁵⁵⁾하고 있어 주변에 음식점, 카페, 주유소, 악기점등 상권이 형성됨
-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가 설립으로 음악관련 비즈니스, 음식점, 상점 등이 유입되어 경제 활성화를 가능케 함

4. 본 연구의 한계점

- 본 연구가 클래식음악계의 모든 여론을 수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타 예술장르와 다르게 개별창작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획일화된 지원정책의 적용은 맞지 않음
- 음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함
- 일본의 가장 경제력이 탄탄한 시키씨어터컴퍼니의 경우 트레이닝센터를 건립 후 연 30억 원의 재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이에 일회성 제작비지원이 아닌 공간의 설립과 운영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을 위해 재원창출이 큰 관건임
- 타 예술장르와 같이 먼저 음악계 내부에서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설립에 관한 내부의 목소리가 나와야함
- 음악계가 수동적 자세가 아니 능동적 자세로 움직여야 함

55) 예술의전당(2005), 『2005 예술의전당 운영보고서』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조성방안〉 연구 자문위원

(가,나,다 순)

강석홍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사)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회장
김 봉	前 경원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나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은희	한국페스티벌앙상블 대표 겸 음악감독
박창원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음악감독 겸 지휘자
이만방	(사)한국작곡가협회 이사장
이옥희	(사)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 (사)서울튜티앙상블 음악감독
이택주	예술의전당 음악 감독
최지연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 전문위원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참고문헌

- 고영훈, 『문화도시문화복지 제86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0
- 김희영, 『프랑스의 창작진흥정책』, 한국외국어대학교, 1995
- 라도삼,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 양건열 외,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양건열 외, 『주요 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 양현미 외, 『박물관, 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 이원태 외,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 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소, 2003
- 이호영, 『선진국의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 사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 이흥재, 『문화예술과 도시경제』, 문자향, 2002
- 전병태 외, 『공연예술분야 예술인상주제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정갑영 외,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 _____,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구상 연구 공청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타당성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 2004
- 『음악대학 재학생의 취업의식 실태』,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 2003
-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76
-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 『문화예술로 행복한 서울창조』, 서울문화재단, 2006
- 『문화예술을 둘러싼 환경변화 - 제1회 아일랜드시티에 관한 문화, 예술이 숨쉬는 마을 만들기를 검토하기 위한 간담회 보고서』, 넷세이기초연구소, 2004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소, 2003
-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예술의 힘, 미래를 창조합니다.』, 문화관광부, 2004
- 『2005 공연예술 실태조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 『2005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문화관광부, 2005

『2005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American Composers Forum, “Continental Harmony: A Study in Community-based Arts: Results of an Evaluation”, 2001

Americans for the Arts, “An Introduction to Arts Incubators”, Monographs V4, March 1995

Americans for the Arts, “Community Schools of the Arts: An Arts Education Resource for Your Community”, Monograph, October 2003

Americans for the Arts, “Live/Work Space: Housing for Artists in Your Community”, Monographs V4, August 1995

Americans for the Arts, “Local Art Agency Facts: Fiscal Year 2000”, 2001
Bowler, Gail Hellund, Artsits and Writers Colonies: Retreats, Residencies, and Respite for the Creative Mind, Blue Heron Publishing Inc., 1995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the State of Cultural Cooperation in Europe”, 2003

Falconer-Salkeld, Bridget, The MacDowell Colony, Scarecrow Press, Inc., 2005

Hillman, Grady, Artists in the Community: Training Artists to Work in Alternative Settings, American for the Arts, 1996

Kihm, Christophe, “IRCAM at 25: Looking Back and Forward”, Art Press V.288 p.39, 2003

Markusen, Ann & Johnson Amanda, “Artists’ Centers: Evolution and Impact on Careers, Neighborhoods and Economics”, University of Minnesota, 2006

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How the United States Funds the Arts”, 2004

NEA, “International Data on Government Spending on the Arts”, 2000

Vinet, Hugues, “Recent Research and Development at IRCAM”, Computer Music Journal, pp. 9-17, Fall 1999

인터넷 사이트

문화관광부 www.mct.go.kr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예술의전당 www.sac.or.kr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www.kctpi.re.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 www.artistcommunities.org

American Composers Forum www.composersforum.org

Chicago Cultural Center www.cityofchicago.org

Cite de la Musique www.cite-musique.fr

DAAD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 Berlin www.daad-berlin.de

Esplanade www.esplanade.com

Esplanade Handbook

www.esplanade.com/download/web/at_centre/venues/Handbook.pdf

European Union www.europa.eu

IRCAM(Institute for Music/Acoustic Research and Coordination)
www.ircam.fr

Ministry of Informationa, Communications and the Arts www.mica.gov.sg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www.nac.gov.sg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NIRA)

www.nira.go.jp/publ/review/98winter/hata.html

Performing Arts Network Japan
www.performingarts.jp/E/overview_art/1.html

Renaissance City Report – Culture and the Arts in Renaissance Singapore
www.mica.gov.sg/renaissance/finalRen.pdf

Southwest Symphony www.swsymphony.org/index.htm

The MacDowell Colony www.macdowellcolony.org

The TELUS Center for Performance and Learning www.rcmusic.ca

Visiting Arts Cultural Profiles www.culturalprofiles.net/japan/Units/48.html

기타

『문화예술로 행복한 서울창조』, 서울문화재단, 2006

『2005 예술의전당 운영보고서』, 예술의전당, 2005

『인미공 2006』, 인사미술공간 브로셔, 2006

『2006 무용인 한마음 축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홍보 전단, 2006

인터뷰

김경훈 (Jump 프로듀서)

김정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연구팀장)

박영민 (서울클래시컬플레이어즈 음악감독, 지휘자)

박원모 (음악학 박사, 前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송연정 (파라다이스재단 문화사업담당)

오주은 (첼리스트, TIMF 앙상블 단원)

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이숙정 (첼리스트,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단원)

이지영 (한국현대음악앙상블 대표,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교수)

임소영 (유니버설발레단 기획홍보팀장)

장혁진 (극단 시키씨어터컴퍼니 부장)

정순민 (인사미술공간 대표)

정진수 (연출가,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사방 (작곡가)

조창환 (트럼페티스트,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최애경 (음악학 박사)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허은영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연구원)

설문 협조 단체

서울솔리스트첼로앙상블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클래식플레이어즈(SCP)

서울튜티앙상블

화음챔버오케스트라

TIMF 앙상블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Music Complex Center in Korea

ABSTRACT

Korean government has supported and nurtured arts and arts organizations with various ways including building facilities and sponsoring concerts. In order to provide more effective service to arts organizations based on the overall mission of the country,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KCAF) was founded in 1973 in accordance with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The KCAF became the predecessor of the Arts Council Korea which was launched in 2005, and it continues the activities and proposes to establish a more specialized and diversified support system for the arts.

The state fund could increase numbers of concerts and music events, but it is doubt that it could improve a quality of music environment and developing artists. In the past few decades, divided total funds to various projects with a small amount grant have incurred weak music markets as compared with rapidly developed commercial cultural sectors. Government should strategically allocate fund to intensive projects and musicians so that this fund could effectively support musicians and music groups. Furthermore, arts could be an important role for people by enhances the quality of life.

A government cultural policy is developing art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which has focused on building 'hardware'. However, the government still has planned to build more cultural centers around the country during the next decade. It is necessary to improve 'software' aspects including programs, artists' service, audience development and arts education to establish Korea as a global arts country.

This study specially focused on study of developing the Music Complex Center which is established for classical genre purpose. The Music Complex Center is not familiar to both the public and artists and groups. So, this study defined the definition of the Center, proposed ways to establish the facility and organize the Center.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proposed the Music Complex Center, there were several methods were conducted.

First, a survey was conducted focused on classical musicians by distributing survey forms to music groups such as orchestras, chamber ensembles, and individual musicians.

Second, in-depth interviews with arts frontier leaders on various genres including composers, players, conductors, educators, writers, researchers, and scholars were crucial resource to formulate this study.

Third, a research of Korean culture environment and data resource on musicians and arts centers were used to understanding current situation on music market

Fourth, case studies of foreign music centers, organizations and service programs from America, Canada, Germany, France, and Singapore, and they were conducted to explore and observe each organization, programs, contents, its place in supporting musicians and music groups.

To make strengthen musicians and music groups, more efficient support system is necessary and this study introduced prominent cas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 that some cases could apply to development the Music Complex Center in Korea. The Center would be operated as both hardware and software provider for professional musicians and music groups so that it could cultivate music environment in Korea.

There are four categories to provide music related services from a Music Complex Center which is proposed in this study.

1. The Center provides facilities as creative working places for musicians and groups. These facilities include a recital hall, rehearsal rooms, practice rooms, and a recording studio. Artists-in-residence places could be expanded under the long-term planning.

(ex. MacDowell Colony, Arts Housing Scheme)

2. The music complex place for institution and specially purpose of academic purpose as a research center such as a R&D center, music library, media center, instrument museum for music genre. It could be opened for the public as well.

(ex. IRCAM, Cité de la Musique)

3. It works as a service organization for musicians by providing educational programs, consulting, music related data bases, and arts management service.

(ex. Entergy Art Business Center)

4. The music center where audience and artists could meet in arts productions, and operated not only presentation stages for musicians but also space for entertaining the public.

(ex. The Esplanade, Chicago Cultural Center)

This study suggests several locations for the complex. Based on survey from musicians and in-depth interviews, musicians seem to prefer to the place where is closer to music centers or cultural attractive sites such as Seoul Arts Center in Seocho-dong or theater and arts districts in Daehak-ro. Because these places are already familiar to musicians and the public for

cultural distractions, it could make many artists are accessible and the public reorganization is dominant. But we should consider on effects on cultural city marketing resulting from the Center. So, culturally isolated places also carefully consider deciding a location as a city marketing purpose.

Lastly, the effects on developing the Music Complex Center could improve music creative working environment so that artists can more effectively focused on their creative working. It causes a high quality of music works, concerts, and music contents which are treated as the products of music genre. Also, this can be used for city marketing. Even though this music place is initially established for the artist usage, the impact could help improve a quality of life for the public.

부 록 1.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조성 방안 연구 관련 설문지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조성방안 연구 관련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컬처비즈가 수행하고 있는 [음악 전용 복합문화센터 조성방안 연구]를 위한 조사입니다. 클래식음악분야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여 연구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 내용은 연구와 통계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솔직한 응답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02) 760-4534

컬 처 비 즈 ☎ 02) 701-4879

창작 활동에 관한 질문

문1.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 ☐ 1) 건반악기 ☐ 2) 현악기 ☐ 3) 관악기
☐ 4) 타악기 ☐ 5) 작곡 ☐ 6) 지휘 ☐ 7) 성악
☐ 8) 기타(_____)

문2. 귀하께서 전문음악활동을 하신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 1) 연습공간이 부족해서 ☐ 2) 재정이 부족해서
☐ 3) 정보가 부족해서 ☐ 4) 공연장(무대)이 부족해서
☐ 5) 매니저가 없어서 ☐ 6) 기타(_____)

문3. 귀하께서 전문음악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보기>중 중요도 순으로 세 개까지 표기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창작공간(연습실)지원	② 기획자(매니저)
③ 공연보조금 확대	④ 음악관련 정보제공
⑤ 앙상블 활동 지원	⑥ 공연장 대여
⑦ 해외진출지원	⑧ 기타()

문4. 이 외 전문음악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

창작공간에 관한 질문

문5. 귀하께서는 본인만의 창작공간(이하 연습실 포함)이 있으십니까?

- ☐ 1) 있다 ☐ 2) 없다 (창작공간이 없으신 분은 뒷장의 <문13>을 기재해 주십시오)

문6. 음악창작공간이 있다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 1) 집 ☐ 2) 학교 ☐ 3) 스튜디오 ☐ 4) 공연장 ☐ 5) 기타()

문7. 귀하의 음악 창작공간은 누가 마련하였습니까?

- ☐ 1) 본인 ☐ 2) 직장 ☐ 3) 정부 ☐ 4) 기타()

문8. 귀하의 음악 창작공간 월 유지비용은 얼마입니까?

- ☐ 1) 30만원 미만 ☐ 2) 30만원이상~50만원 미만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4)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5) 150만원 이상

문9. 현재 귀하가 사용하고 계신 음악창작공간에서 제일 어려운 점 혹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 1) 공간 크기 ☐ 2) 시설 및 기자재 ☐ 3) 높은 비용
☐ 4) 시설 관리 ☐ 5) 위치(거리) ☐ 6) 사용 빈도수
☐ 7) 기타()

문10. 귀하의 창작공간의 주요 이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 ☐ 1) 개인연주회 연습 ☐ 2) 단체연주회 연습 ☐ 3) 개인 레슨
☐ 4) 기타()

문11. 현재 귀하의 창작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1) 공간 크기 ☐ 2) 시설 및 기자재 ☐ 3) 높은 비용
☐ 4) 시설 관리 ☐ 5) 위치(거리) ☐ 6) 사용 빈도수
☐ 7) 기타()

문12. 음악인들을 위한 공동창작공간이 생긴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 ☐ 1) 개인연주회 연습 및 발표회 ☐ 2) 앙상블 활동 조직 ☐ 3) 개인 레슨
☐ 4) 작곡, 녹음 및 기타

<기타의견을 기재해주세요시오.>

문13. 창작공간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음악인들의 창작공간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사관리와 통계처리를 위하여 몇 가지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DQ1.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1) 20대____ 2) 30대____ 3) 40대____
4) 50대____ 5) 기타____

DQ2.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____ 2) 여____

DQ3.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전문대학____ 2) 대학교____ 3) 대학원____
4) 박사____ 5) 기타____

DQ4.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1) 학생_____ | 2) 교수_____ |
| 3) 대학강사_____ | 4) 전문연주자_____ |
| 5) 기타 _____ | |

DQ5. 본인의 한달 총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 | | |
|----------------|----------------|----------------|
| 1) 50만원 이하__ | 2) 51-100만원__ | 3) 101-150만원__ |
| 4) 151-200만원__ | 5) 201-300만원__ | 6) 301-400만원__ |
| 7) 401-500만원__ | 8) 501만원 이상__ | |

DQ6. 거주지는 어디입니까?_____

★끝까지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부 록 2. 싱가포르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주택사업 거주 신청서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ARTS HOUSING SCHEME REGISTERING OF INTEREST

1. OBJECTIVES

The Arts Housing Scheme provides suitable and affordable housing for arts groups to use as rehearsal, administrative and storage space.

The main objective of the Arts Housing Scheme are:

- ◆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arts organisations to enable them to play a greater role in the cultural development of Singapore;
- ◆ to help arts organisations increase their level of artistic activities and develop a wider audience for the appreciation of the arts;
- ◆ to stimulate greater creative efforts of arts groups and improve the quality of arts activities;
- ◆ to promote co-operation and interaction among arts group.

2. STATUS OF NAC's ARTS HOUSING

At present, we have no vacancies in our Arts Housing Premises. However, you may register your interest with us. We will inform you once premises are available.

Please note that a formal application will be required and each application will be assessed based on its merits according to NAC's eligibility and assessment criteria.

3. REGISTRATION PROCEDURES

You may register your interest using the attached form and fax or mail it to:

Resource Development Division
National Arts Council
1 Coleman Street
#05-06 The Adelphi
Singapore 179803
Attn : Ms Joan Toh
Fax : 6837 3095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phone the officer-in-charge Ms Joan Toh at Tel: 68379514



**NATIONAL ARTS COUNCIL
ARTS HOUSING SCHEME**

REGISTERING OF INTERST

*Please complete the form in BLOCK letters.
No space in the form should be left blank.
Please state 'NA' or 'NIL' where applicable.
Please tick (✓) in the appropriate boxes.*

I	STATUS OF APPLICANT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input type="checkbox"/> Company Ltd by Guarantee <input type="checkbox"/> Registered Organisation </div>			
II	PARTICULARS OF ORGANISATION/COMPANY		
Name of Organisation/Company:		Date of Registration:	Registration No:
Mailing Address:		Contact Person:	
		HP No:	
		Tel No:	
		Fax No:	
		E-mail :	
Membership Strength:		No. of full-time staff:	No. of part-time staff:
TYPES OF ART FORM: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width: 50%;"> <input type="checkbox"/> Dance </div> <div style="width: 50%;"> <input type="checkbox"/> Music </div> <div style="width: 50%;"> <input type="checkbox"/> Theatre </div> <div style="width: 50%;"> <input type="checkbox"/> Literature </div> <div style="width: 50%;"> <input type="checkbox"/> Visual Arts </div> <div style="width: 50%;"> <input type="checkbox"/> Others, please specify : _____ </div> </div>			

III	PRESENT WORKING PREMISES
Address: (if different from mailing address)	
The premises is: <input type="checkbox"/> a home <input type="checkbox"/> borrowed <input type="checkbox"/> rented	
Floor area: m ² Monthly rental: \$	

IV	NEW PREMISES REQUIRED									
Total floor area required: <input type="text"/> m ²										
Reasons for applying for new premises:										
<p>PROPOSED USAGE: (Please state whether for admin., space, practice or storage space).</p> <table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u>Floor Area</u></th> <th style="text-align: left;"><u>Usage</u></th> <th style="text-align: left;"><u>Frequency</u></th> </tr> </thead> <tbody> <tr> <td>eg. 60m²</td> <td>Admin.</td> <td>Daily 9am-5pm</td> </tr> <tr> <td>180m²</td> <td>Dance class</td> <td>Mon 11am-12pm</td> </tr> </tbody> </table> <p>* As we will be charging you rental base on the size of space used, please ensure the floor area requested is not excessive.</p>		<u>Floor Area</u>	<u>Usage</u>	<u>Frequency</u>	eg. 60m ²	Admin.	Daily 9am-5pm	180m ²	Dance class	Mon 11am-12pm
<u>Floor Area</u>	<u>Usage</u>	<u>Frequency</u>								
eg. 60m ²	Admin.	Daily 9am-5pm								
180m ²	Dance class	Mon 11am-12pm								

부 록 3. 미국 맥도웰 콜로니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청서

The MacDowell Colony

APPLICATION GUIDELINES

ELIGIBILITY Artists with professional standing in their fields, as well as emerging artists, are eligible for residencies. Disciplines include Architecture, Film/Video Arts, Interdisciplinary Arts, Literature, Music Composition, Theatre and Visual Arts. There are no residency fees. Grants for travel to and from the Colony are available based on need. Financial aid for writers is available through a special grant from a foundation. An aid application will be mailed following acceptance.

REAPPLICATION All applicants, including Colony Fellows, must submit complete applications, including recent work samples. **Reapplication within a year is not permitted unless you have been waitlisted.**

NONDISCRIMINATION The Colony encourages artists from all backgrounds to apply. It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anyone on the basis of age, race, handicap, sex, religion, marital status, or national origin in its admission policies or in access to its programs and activities. It is the policy of The MacDowell Colony that no one with the AIDS virus, ARC, or HIV shall be denied admission as long as he or she is otherwise qualified. An amplification of this policy is available from the Colony. The Colony offers barrier-free access in all main buildings and some studios.

SPECIAL MEDICAL NEEDS Prospective Colonists should be aware that there are no medical facilities at the Colony and limited medical facilities in the Peterborough area. If you will require routine visits to a doctor, please contact the Resident Director in advance of your arrival. There is a taxi service in Peterborough if you do not have a car while at the Colony.

ADMISSIONS PANELS Acceptance is based on the evaluations of our Admissions Panels, which are comprised of a revolving group of distinguished professionals in each artistic discipline. Panel members serve for three years. Panelists serve anonymously.

APPLICATION PERIODS AND DEADLINES See APPLICATION for deadlines. The summer residency period has more applicants than any other season; please consider fall or winter if your schedule permits. Residencies are limited to eight weeks. You may apply only once in a year and in

only one discipline. **Applications and supporting materials are due in Peterborough on or before the deadline.**

REFERENCES Applicants are required to have one reference letter on file written by an authority in their field who is familiar with them and their work. Applications that do not have a letter of reference on file will be considered incomplete and will not be reviewed. Completed references may be submitted with the application materials in a signed, sealed envelope or sent directly to the Colony by the application deadline. Reference letters are confidential and will be kept on file for five years. If you are uncertain of your reference letter status, please contact the Admissions Department in NH.

COLLABORATIONS Artists collaborating on a project must submit individual application forms and appropriate work samples, but may submit a joint description of the work they intend to do at the Colony. In addition, you may submit an example of a collaborative work (either completed or work in progress). The individual application scores of all participants in a collaboration are averaged, and that final result determines admissions status. Please specify your workspace needs (e.g. separate studios).

COUPLES Couples must apply individually. If both are accepted, each will be offered a studio. There are no other provisions for partners at the Colony.

PROCESSING FEE A nonrefundable processing fee of \$20 (US) is required with each application. Make money order, traveler's check or personal check payable to The MacDowell Colony. Please do not send money via Western Union or Money Gram.

MAILING Send the completed application form, project description, fee, work samples, and self-addressed stamped envelope (SASE) for work sample return to the Admissions Director, The MacDowell Colony, 100 High Street, Peterborough, NH 03458, by mail, FedEx or other express service. **Applications must be in Peterborough by the deadline.**

NOTIFICATION You will be notified of the panel's decision approximately ten weeks after the deadline for your application period.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application process, please contact the Admissions Director by e-mail (admissions@macdowellcolony.org) or telephone (603) 924-3886.

WORK SAMPLE REQUIREMENTS

In order for your application to be considered by the panel, you must adhere to the following guidelines.

Work completed within the past four years is requested unless otherwise noted. Indicate date of completion on work sample. If you are unable to submit new work for the panel to review, please include a note of explanation. If your project does not fall clearly within one of the following disciplines, contact the Admissions Director to discuss an appropriate work sample.

ARCHITECTURE & LANDSCAPE ARCHITECTURE

If you intend to work on a text, please submit three sets of a published article or a ten-page sample of writing related as closely as possible to your proposed work. If you are proposing a design project, please submit three sets of drawings or images (slides, photographs, or photocopies) of two finished projects. Please include a clear explanation of significant features.

MUSIC COMPOSITION Send two clearly reproduced scores, one of which was completed within the last five years, along with a complete recording of each piece (one piece per cassette or one movement per track). Mark the outside of each sample with your name, the title, duration, and date of composition, as well as style of music, performers, and software (if applicable) used in the creation of each piece. **Do not put paper labels on burned CDs.** If you would like the panel to listen to something other than the beginning of your piece, clearly mark the score where you would like the panel to start listening. If the piece is on a cassette tape, cue the tape to the listening point.

FILM/VIDEO ARTS Send two different film or video samples on DVD (no paper labels, please) or ½" VHS tape (one sample per tape, NTSC format) with running times clearly marked, or three copies of one script with a treatment. Whenever possible, submit a work-in-progress along with a sample of finished work.

INTERDISCIPLINARY ARTS Send two different work samples on DVD (no paper labels, please), ½" VHS tape

(one sample per tape, NTSC format), slides, audio or other documentation of your work. Do not send work on a CD-ROM. If submitting a script, please send four copies. If your visual presentation includes written text, please include a hard copy. Be clear and specific about the work submitted for review as well as your proposed project. If your proposal includes work in several mediums, please submit documentation in each of the mediums proposed.

THEATRE Playwrights: Submit three copies of a complete playscript. **Librettists:** Submit three copies of a complete or excerpted score, accompanied by a recording whenever possible.

VISUAL ARTS Send five color slides: 35 mm standard mount for Kodak Carousel Projector (⅜" or 2.5mm thick). 3D artists may submit up to ten slides, as necessary to show detail. **INCLUDE ON EACH SLIDE:** your name, an arrow indicating top, and a number (1-5). Submit a slide list identifying slides by number, title, medium, size, and year of completion. Do not send previously submitted slides.

LITERATURE Submit work **representative of the genre in which you intend to be working at the Colony.**

Whenever possible, submit a work-in-progress along with a sample of a finished work. All prose manuscripts should be printed single-sided and double-spaced in an easily readable font. Put your name on each set.

Poetry:	Six copies of six to ten poems
Fiction:	Six copies of 1-3 chapters of a novel or 1-3 short stories; no more than 25 pages total
Non-fiction:	Six copies of 1-3 essays or articles, or 1-3 chapters of a non-fiction book; no more than 25 pages total
Translation:	Follow the guidelines above, but include both the original text and the translation. Writers working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should send work in the original language plus an English translation.

In any of the above literary genres, you may submit one copy of a published book, plus five photocopied sets of an excerpt from the book, no more than 25 pages.

The MacDowell Colony

Office Use Only	
FEE	
WS	
SASE	
NR	
REF	
CM	

APPLICATION FOR RESIDENCY

Please read enclosed APPLICATION GUIDELINES before completing form.

Send required materials in one package; applications not accepted by fax or e-mail.

DISCIPLINE (choose the **one** most closely related to your project)

Architect: ☐ text ☐ design ☐ Composer ☐ Theatre: ☐ plays ☐ librettos

Film/Video: ☐ animation ☐ documentary ☐ experimental ☐ feature ☐ screenplay ☐ other

Interdisciplinary: ☐ performance ☐ sound art ☐ movement ☐ multimedia installation ☐ other

Visual: ☐ drawing ☐ mixed media ☐ painting ☐ photography ☐ printmaking ☐ sculpture ☐ other

Writer: ☐ fiction ☐ non-fiction ☐ poetry ☐ translation (specify type)

☐ Mr. ☐ Ms. FIRST MIDDLE LAST

PROFESSIONAL NAME

STREET

CITY STATE ZIP

COUNTRY DATE OF BIRTH (optional)

WEB PAGE/URL E-MAIL

If offered a residency or waitlist position, MacDowell will contact you by E-MAIL for updates in your availability.

Please indicate the best way to contact you if you DO NOT have e-mail: ☐ Telephone ☐ Mail

APPLICATION HISTORY

Is this your first application to MacDowell? ☐ Yes ☐ No If no, fill in year of most recent application:

If a Colony Fellow, fill in year of most recent residency:

Colony Fellows must submit complete application and work samples. References must be updated after five years.

How did you first learn of MacDowell's residency program?

APPLICATION PERIOD Application materials are due in Peterborough on or before each deadline. Please note this is not a postmark deadline. (If the deadline falls on a weekend or holiday, applications are due the next business day.)

APPLICATION DEADLINE	CHECK ONE	RESIDENCY PERIOD
January 15	<input type="checkbox"/>	Summer (June 1 – September 30)
April 15	<input type="checkbox"/>	Fall (October 1 – January 31)
September 15	<input type="checkbox"/>	Winter/Spring (February 1 – May 31)

SCHEDULING INFORMATION Number of weeks you are requesting (eight week maximum)

If you are NOT available during the entire four months of the residency period (see dates above), please indicate the dates

within this period when you would NOT be available:

DESCRIPTION OF MACDOWELL PROJECT & SPECIAL SPACE REQUIREMENTS All artists must include a specific project description of 1-2 paragraphs on a separate sheet. Please include any special space requirements (e.g., wall space, size of project, personal mobility limitations, etc.). **Visual artists:** Describe size and medium of work and supply a list of materials and any other information that will affect your use of the studio. **Interdisciplinary artists:** Include an explanation of form and content of the proposed project.

COLLABORATIONS (Please refer to the APPLICATION GUIDELINES)

If you are applying with a collaborator, please check here: ☐

Please indicate name and discipline of collaborator(s):

WORK SAMPLE (Adhere to the enclosed WORK SAMPLE REQUIREMENTS) All artists must list and briefly describe what you have included as your work sample. **Visual artists:** Include a slide list on separate sheet. **Interdisciplinary artists:** Include explanatory notes to describe the work sample submitted for review.

PROFESSIONAL DOCUMENTATION List five important professional achievements, beginning with the most recent, and give dates. For example: completed works, recognitions, publications, performances, exhibitions, etc.

PROFESSIONAL TRAINING Please list any professional training.

REFERENCES Applicants are required to have one reference letter on file; applications that do not have a letter of reference will not be reviewed. Send the attached form to your referee for completion. List his/her name, e-mail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below. **Reference letters are due by the application deadline.**

WORK SAMPLE RETURN Please note that although every precaution is taken to see that work samples are handled with care, The MacDowell Colony cannot be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Work samples will be returned only if you provide a self-addressed stamped envelope (SASE). No **dated metered** postage please.

☐ SASE enclosed

☐ Do not return sample

If you are a Colony Fellow or are awarded a residency, would you like to donate your work samples to the MacDowell Colony Library? ☐ Yes ☐ No

PROCESSING FEE A non-refundable processing fee of \$20 (US) is required with each application. Make money order, traveler's check or personal check payable to The MacDowell Colony. Please do not send money via Western Union or Money Gram.

REQUIRED MATERIALS:

- ☐ Application Form (plus 2 copies)
- ☐ Project Description (plus 2 copies)
- ☐ Work Sample & Slide List
- ☐ Reference Form (sent to referee)
- ☐ Fee
- ☐ SASE (for work sample return)

SEND TO (by mail, FedEx, or express mail service):

Admissions Director
The MacDowell Colony
100 High St.
Peterborough, NH 03458
Tel: 603-924-3886

SIGNATURE _____ DATE _____

6/06

The MacDowell Colony

REFERENCE FORM

Applicant

Please complete this section of the reference form before sending to your referee.

Applicant Name Discipline
Application Deadline (check one): ☐ January 15 ☐ April 15 ☐ September 15
Reference Name

Referee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You may write a short paragraph in the space provided or attach a separate piece of paper, if you would like to elaborate.

MacDowell admissions panels review 1,800 applications each year, relying on recent work samples and a current project proposal to make their determination. Your response provides personal insight into the suitability of the applicant for a residency.

A MacDowell fellowship consists of two weeks to two months of uninterrupted time in a peaceful and secluded environment. The Colony is a serious work place with a continually changing population of artists of different disciplines.

Do you feel the applicant is professionally qualified for and would benefit from a residency at the MacDowell Colony? ☐ Yes ☐ No

The community at The MacDowell Colony is built on mutual respect,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A balance is sought between solitude and communal life.

Do you know of any reason why this person may be a disruptive presence at the MacDowell Colony? ☐ Yes ☐ No

Signature _____ Date _____
E-mail: Phone: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respond to this request. Letters are due in our NH office by the deadline date (marked above). The signed, original document must be on file in order for the applicant to be considered for a residency. Your reply will remain confidential.

Courtney Bethel
Admissions Director

The MacDowell Colony • 100 High Street • Peterborough, New Hampshire 03458 • 603-924-3886 • FAX: 603-924-9142

6/06